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기본연구 98-07

충남의 忠 · 孝 · 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1999. 5.

충 남 발 전 연 구 원

발 간 사

예로부터 충남은 충절(忠節)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이는 충남의 역사성 및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충남지역은 우리 나라 근세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 문화의 중심지였고, 나아가 근세 혹은 근대사의 초기에 충절의 고장으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충남에서는 충효정신(忠孝精神)·절의정신(節義精神)을 충남을 상징하는 정신의 일부로 간주하여 발양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신이 표출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충(忠)·효(孝)·열(烈)에 관한 조사는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 아직도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는 가치관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IMF체제로의 추락을 맛보았다. 갑작스런 물질문명의 빈곤함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곳곳에서 최소한의 인륜마저 저버리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뜻 있는 분들은 전통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자탄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교사회의 중요한 덕목이었던 충·효·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에도 충남 전역에는 많은 충·효·열 정려(旌閭)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은 정려의 원형을 훼손하고 있으며, 정려의 인근에 살면서 대대로 관리하던 후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정려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형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 정려에 대한 조사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 충남 도내의 충·효·열 시설물 등은 여러 번 조사되어 소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대부분 현존 정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내용도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려 건물에 대한 단순한 묘사에 그치는 정도였다. 충·효·열 정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자료를 섭렵하여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촉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틈틈히 방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임선빈 역사문화부장에게 감사한다.

1999년 5월

충남발전연구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박사

황 용 주

차 례

제 1 장 머리말	1
제 2 장 忠 · 孝 · 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3
제1절 三綱과 忠 · 孝 · 烈	3
제2절 忠 · 孝 · 烈 褒獎의 歷史	7
제3절 忠 · 孝 · 烈 행적의 褒獎過程	14
1. 포장의 절차와 과정	14
2. 충 · 효 · 열 포장의 종류	17
3. 충 · 효 · 열 유적과 유물	20
제4절 忠 · 孝 · 烈 文獻資料 概觀	24
1. 사서의 충 · 효 · 열 자료	24
2. 윤리서의 충 · 효 · 열 자료	27
3. 지리지의 충 · 효 · 열 자료	30
4. 예조의 충 · 효 · 열 관련 등록류	32
제 3 장 忠南의 忠 · 孝 · 烈 文獻資料 分析	35
제1절 忠南 市 · 郡의 忠 · 孝 · 烈 文獻資料	35
1. 천안시	36
2. 공주시	45
3. 보령시	55
4. 아산시	58
5. 서산시	65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6. 논산시	69
7. 금산군	76
8. 연기군	81
9. 부여군	86
10. 서천군	97
11. 청양군	104
12. 홍성군	108
13. 예산군	113
14. 태안군	120
15. 당진군	123
제2절 忠·孝·烈 文獻資料의 分析과 活用 - 연기군의 사례 -	127
제 4 장 맺음말	149
참 고 문 헌	151

표 차 례

<표 2-1> 『(동국)삼강행실도』 (원·속·신속)의 충·효·열 분포	29
<표 2-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충·효·열 분포	31
<표 2-3> 『여지도서』의 충·효·열 분포	31
<표 3-1> 역대 『실록』에 기록된 천안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38
<표 3-2>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천안시 인물	39
<표 3-3> 『여지도서』에 수록된 천안시의 충·효·열 인물	41
<표 3-4> 문헌에서 확인된 천안시의 정려	43
<표 3-5> 역대 『실록』에 기록된 공주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48
<표 3-6>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공주시 인물	49
<표 3-7> 『여지도서』에 수록된 공주시의 충·효·열 인물	50
<표 3-8> 문헌에서 확인된 공주시의 정려	52
<표 3-9> 역대 『실록』에 기록된 보령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56
<표 3-10> 『여지도서』에 수록된 보령시의 충·효·열 인물	57
<표 3-11> 문헌에서 확인된 보령시의 정려	57
<표 3-12> 역대 『실록』에 기록된 아산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60
<표 3-13>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아산시 인물	60
<표 3-14> 『여지도서』에 수록된 아산시의 충·효·열 인물	61
<표 3-15> 문헌에서 확인된 아산시의 정려	64
<표 3-16> 역대 『실록』에 기록된 서산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67
<표 3-17>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서산시 인물	67
<표 3-18> 문헌에서 확인된 서산시의 정려	69
<표 3-19> 역대 『실록』에 기록된 논산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71
<표 3-20>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논산시 인물	72
<표 3-21> 『여지도서』에 수록된 논산시의 충·효·열 인물	73
<표 3-22> 문헌에서 확인된 논산시의 정려	75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표 3-23> 역대 『실록』에 기록된 금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78
<표 3-24>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금산군 인물	78
<표 3-25> 『여지도서』에 수록된 금산군의 충·효·열 인물	79
<표 3-26> 문헌에서 확인된 금산군의 정려	80
<표 3-27> 역대 『실록』에 기록된 연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83
<표 3-28> 『여지도서』에 수록된 연기군의 충·효·열 인물	83
<표 3-29> 문헌에서 확인된 연기군의 정려	85
<표 3-30> 역대 『실록』에 기록된 부여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88
<표 3-31>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부여군 인물	89
<표 3-32> 『여지도서』에 수록된 부여군의 충·효·열 인물	91
<표 3-33> 문헌에서 확인된 부여군의 정려	94
<표 3-34> 역대 『실록』에 기록된 서천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98
<표 3-35>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서천군 인물	98
<표 3-36> 『여지도서』에 수록된 서천군의 충·효·열 인물	99
<표 3-37> 문헌에서 확인된 서천군의 정려	102
<표 3-38> 역대 『실록』에 기록된 청양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105
<표 3-39>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청양군 인물	105
<표 3-40> 『여지도서』에 수록된 청양군의 충·효·열 인물	106
<표 3-41> 문헌에서 확인된 청양군의 정려	107
<표 3-42> 역대 『실록』에 기록된 홍성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109
<표 3-43>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홍성군 인물	110
<표 3-44> 『여지도서』에 수록된 홍성군의 충·효·열 인물	111
<표 3-45> 문헌에서 확인된 홍성군의 정려	112
<표 3-46> 역대 『실록』에 기록된 예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114
<표 3-47>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예산군 인물	115
<표 3-48> 『여지도서』에 수록된 예산군의 충·효·열 인물	116
<표 3-49> 문헌에서 확인된 예산군의 정려	119

차 례

<표 3-50> 역대 『실록』에 기록된 태안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121
<표 3-51> 『여지도서』에 수록된 태안군의 충·효·열 인물	121
<표 3-52> 문헌에서 확인된 태안군의 정려	122
<표 3-53> 역대 『실록』에 기록된 당진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124
<표 3-54>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당진군 인물	125
<표 3-55> 『여지도서』에 수록된 당진군의 충·효·열 인물	126
<표 3-56> 문헌에서 확인된 당진군의 정려	126
<표 3-57> 충남의 시·군별 현존 정려 현황	128
<표 3-58> 연기군의 충·효·열 유적	129
<표 3-59> 연기군 관련 읍지의 충·효·열 통계	133
<표 3-60> 연기군의 충신	134
<표 3-61> 연기군의 효자	136
<표 3-62> 연기군의 효부(효녀)	143
<표 3-63> 연기군의 열녀(열부)	145
<표 3-64> 연기군의 정려 인물	148

제 1 장 머리말

현대사회는 흔히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산업사회로서 물질적 가치가 우위에 있는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특징은 한편으로 이 세계의 주인인 인간을 소외시키고, 물질문명의 강조로 인한 정신문화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극복은 동양적인 전통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양의 전통사상 가운데 충(忠)·효(孝)·열(烈)은 유교사회의 중요한 덕목이었다. 충·효·열을 언급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신분제 사회의 윤리를 들먹이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효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며, 충도 군주에 대한 충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 정성을 다하는 애국으로 승화시키면, 여전히 생명력을 지닌 윤리이며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충·효·열 행적에 대해 이루어진 포장(褒獎)¹⁾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인 정려는 오늘날에도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니면서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정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지역별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정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려 건물에 대한 묘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 동안 정려가 내려지게 된 배경과 상황, 정려가 세워지는 과정 등에 대한 문헌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화시키고, 충남의 각지에 산재해 있는 정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효·열의 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소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이 분야 연구의 마무리 작업이 아니

1) 여기에서 褒獎은 선행을 칭찬하고 장려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라,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제2장은 충·효·열 포장과 문헌에 대한 일반론이다. 삼강과 충·효·열의 개념을 검토하고, 충신·효자·열녀에 대한 포장의 역사와 포장과정을 알아본 후, 충·효·열에 관한 문헌자료를 거시적으로 개관하였다. 대상 문헌자료는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은 역사서, 『삼강행실도』와 같은 윤리서, 지리지와 각종 읍지, 예조에서 편찬한 충·효·열 관련 등록류 등이다.

제3장은 충남의 충·효·열 문헌자료를 분석한 각론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군은 전통시대의 고을명칭이나 지역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시·군마다 행정명칭의 변천을 개관하고, 사서(史書), 윤리서, 지리지 등에 실려있는 충·효·열 인물을 시·군별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사례연구 지역으로 연기군을 선택하여 연기지역의 충·효·열 문헌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존 정려 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²⁾

이상의 연구는 충·효·열, 특히 충남의 충·효·열 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관련문헌자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현지조사가 병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기초연구가 앞으로 충·효·열 문헌분석 및 현지조사 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정리 작업은 홍제연 선생(문학석사, 본원 역사문화부 연구조원)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제1절 三綱과 忠·孝·烈

유교에서 삼강(三綱), 즉 부자·군신·부부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로 중시된다. 부자·군신·부부관계는 위로는 자연의 법칙에 합치되고 아래로는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인식되었다.³⁾

『주역(周易)』에서는 “천지(天地)가 있는 후에 만물(萬物)이 있고, 만물이 있는 후에 남녀(男女)가 있고, 남녀가 있는 후에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는 후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는 후에 군신(君臣)이 있고, 군신이 있는 후에 상하(上下)가 있고, 상하가 있는 후에 예의(禮義)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여, 부부·부자·군신이 천지 만물의 이치에 근원하고 인간사회의 도덕질서를 바로잡는 근본이라고 하였다.

군신·부자·부부관계는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한대(漢代)에 동중서(董仲舒)가 군신·부자·부부관계를 음양설로 해석하여 존비(尊卑)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직적 윤리의 성격을 분명히 갖게 되었다. 후한대에 이르면 『백호통(白虎通)』에서 처음으로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의 삼강(三綱)을 규정하여 정치·사회적인 핵심윤리로 개념화되었다. 송대의 성리학에서는 삼강의 본체는 천리(天理)라고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천리에 의해 부여된 인간 본성(本性)에서 삼강(三綱)·오상(五常)이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삼강·오상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강상(綱常)의 윤리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지고의 가치이며,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윤리로 강조되었다.

삼강에서 제시한 부자·군신·부부의 세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3) 三綱에 대해서는 金恒洙, 「《三綱行實圖》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1998 참조.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있었다. 세 관계는 경중(輕重)의 차이가 없이 모두 중요한데, 이들 사이에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부자관계는 일차적인 관계로서, 부자사이의 효(孝)는 가장 핵심이 되는 윤리였다. 부자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족윤리는 군신관계의 국가윤리로 확대되고, “이효어충(移孝於忠)”이라 표현되듯이 부모에 대한 효를 확대하여 국가 또는 임금에 대한 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자관계와 군신관계는 표리(表裏)를 이루고, 효의 윤리는 충의 윤리를 세우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는 가족을 형성하는 바탕으로 “혼례정시지도(婚禮正始之道)”, “부부삼강지본(夫婦三綱之本)”이라 하여 정(貞)·열(烈)이 강조되었다.

충(忠)은 자기 자신 및 특정 대상(국가·임금·주인 등)에 대하여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⁴⁾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기의 온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으로서, 공자(孔子)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을 이에 두고 이를 충신(忠信)이라 하였다. 또한, 주로 타인에 대한 경우에는 이를 충서(忠恕)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희(朱熹)는 “자기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그것을 미루어 타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서(恕)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충신과 충서는 결국 동일한 정신이다. 충에는 다수의 사람 전체에 대하여 공평하게 성실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다. 개인보다도 국가나 군주를 우선하는 법가(法家)의 사상에서 충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국가나 군주를 위하여 자기의 능력과 정성을 다하는 충의(忠義)의 덕이 되었다.

충이 특정 대상에 대한 것일 때에는 주로 신하가 임금에게 임하는 도리를 지칭한다. 『논어』 팔일편(八佾篇)의 “신하는 충으로써 임금을 받든다.”라거나, 『순자(荀子)』 신도편(臣道篇)의 “군주의 명령에 거슬리더라도 군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충이라 한다.”라는 언급에서 잘 나타나 있다. 중국에 있어서는 특히 진한시대(秦漢時代) 이후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이런 의미의 충이 효(孝)와 병행하여 매우 중요한 덕이 되어 갔다. 그리하여 당나라 때

4) 이후의 충·효·열에 관한 서술은 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충(忠)·효(孝)·효자(孝子)·효녀(孝女)·효부(孝婦)·열녀(烈女) 등의 항목을 참조하였다.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부터 정사(正史)에 충의열전(忠義列傳)이 씌어지기 시작하여, 충의에 투철한 인물들을 역사에 길이 표창하게 되었다. 또한, 송나라 때에 이르면 『충경(忠經)』이라는 책이 출현하고 있다.

효(孝)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경애의 감정에 토대를 두고 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중국 고유의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본래 부모와 자녀간의 효가 도덕규범의 기초가 되고, 더욱 확대되어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의 가르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효 사상의 문헌적 기록으로는 먼저 『서경』 순전(舜典)에 나오는 “삼가 오전을 아름답게 하라[愼徽五典].”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이 오전(五典)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주희(朱熹)의 해석에 따른 오상설(五常說)로서 맹자(孟子)의 오륜을 가리키며, 다른 설은 바로 “아버지는 친하고[父親], 어머니는 자애롭고[母慈], 자식은 효도하고[子孝], 형은 우애하고[兄友], 아우는 공순하다[弟恭].”라고 하는 것인데, 후자의 내용은 효(孝)·제(弟)·자(慈)라는 가족윤리의 근간이 된다.

공자(孔子)는 효에 대하여, 첫째, 효의 본유 관념으로서 공경하는 마음을 강조하였고, 둘째,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셋째, 돌아가신 후의 상장지례(喪葬之禮)도 중시하였다. 선진시대(先秦時代) 효 관념의 정립자라 할 수 있는 맹자(孟子)는 공자의 효 사상을 유가사상의 중심사상으로 굳게 다져 놓았다. 그는 효를 백행(百行)의 근본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순의 도리도 효제(孝悌)일 따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효를 제왕(帝王)의 도(道)로 확대하였다.

효 사상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秦)과 그 뒤 한 대(漢代)를 거치면서,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상적 변화 안에서 함께 변모를 겪게 되었다. 그것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이라는 삼강사상의 성립이다. 이때의 강(綱)이란 ‘모든 그물의 버리’를 뜻하는 것으로 임금[君]·부모[父]·지아비[夫]는 버리가 되고, 신하[臣]·자녀[子]·지어미[婦]는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그물코가 되어 일방적인 군림단계가 된다. 이때 충·효·열이라는 것은 권위에 바탕한 종속윤리로 낙착된다. 따라서, 강사상에 대해서 선진의 윤리사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열녀에는 열녀(列女)와 열녀(烈女)가 있다. 원래 중국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과 해진(解縉)의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에서 열녀는 ‘열녀(烈女)’가 아니고 ‘열녀(列女)’였다. 유향은 『열녀전』을 편찬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할 여인[열폐(孽嬖)]도 전(傳)에 포함시켰으나, 그 이후 열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여인을 제외한 여인 열전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고금열녀전』도 훌륭한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 효성스런 딸, 절의있는 아내 등 모범이 될 만한 모든 여성만 대상으로 했다. 이처럼 열녀(列女)는 열녀(烈女)를 포함해서 좀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문헌에 나타나는 용례는 반드시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열녀(列女)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열녀(烈女)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⁵⁾

열녀(烈女)는 위난을 당하여 목숨으로 정조(貞操)를 지켰거나, 또는 오랜 세월을 걸쳐 고난과 싸우며 수절(守節)한 부녀자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열녀와 열부(烈婦)를 통칭하는데, 『사원(辭源)』에서는 혼인 전에 약혼자가 죽었을 경우 그 뒤를 따라 죽는 여자 및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강포자(強暴者)에 항거하는 미혼녀를 ‘열녀’라고 하였고, 기혼녀로서 남편의 뒤를 따라 죽는 부인 및 목숨을 끊음으로써 강포자에 항거하는 부인을 열부라고 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 열녀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는 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귀천 상하를 막론하고 과부가 되면 마땅히 수절을 하여야 하고 위난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서 정착된 것은 조선시대의 일이다.

5)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 《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 『진단학보』 85, 1998.

제2절 忠 · 孝 · 烈 褒獎의 歷史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충신 · 효자 · 열녀에 대한 포장(褒獎)이 행해졌다. 유교적 산물인 충 · 효 · 열 삼강에 대한 관념은 유교가 수용되어 정착된 후대에 형성되었을 터이지만, 충신이나 효자에 대한 칭송이나 포장은 고대부터 있었다. 먼저 삼국은 통일전쟁과정에서 전공을 세운 자에게 관직(官職)을 내리거나 상물(賞物)을 하사하고 있으며, 장렬하게 전사한 충신들을 추증하고 있다.

효자에 대해 국가에서 포장한 최초의 사례는 신라 경덕왕 14년(755)의 일이다. 이 해 봄에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웅천주 판적향에 사는 향덕(向德)이란 사람이 가난하여 아버지를 봉양할 수가 없었으므로 자기 다리의 살을 베어 봉양하였다. 즉 할고(割股)의 효를 행한 것이다. 이 소문을 들은 경덕왕은 그에게 상물(賞物)을 내리고 문려(門閭)를 정표하도록 하였다.⁶⁾ 상물의 내용은 벼 3백 휘, 집 한 채, 구분전 약간이었으며, 정표방식은 비를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여 기념하도록 하는 효행비의 건립이었다.⁷⁾ 이 외에도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통일신라 때 할고의 효를 행한 청주에 살던 성각(聖覺)에게 벼 3백석을 하사하였으며,⁸⁾ 효녀 지은(知恩)에게는 벼 5백석과 집 한 채를 주고 부역을 면제하여 주는 동시에 곡식이 많아서 도적이 들까 염려하여 관리에게 명령하여 병사를 보내어 번갈아 지키게 하고, 그 마을을 표창하여 효양방(孝養坊)이라 하였다.⁹⁾

이와 같이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도 비록 고려 · 조선시대와 같이 제도화된 포장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충신과 효자에 대한 국가의 포장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열녀에 대한 포장사례는 찾을 수 없다. 『삼국사기』에도 설씨의 딸[薛氏女]이나 도미의 처[都彌妻]와 같은 열녀 기사가 수록되어 전해지고는 있다.¹⁰⁾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포장 내용은

6)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景德王 14年.

7) 『三國史記』 卷48, 列傳 8, 向德. 지금의 공주시 소학동에 향덕의 유적이 남아 있다.

8) 『三國史記』 卷48, 列傳 8, 聖覺.

9) 『三國史記』 卷48, 列傳 8, 孝女知恩.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도미처와 같은 열녀는 정절을 지킨 대가로 당시의 공권력에 의해 처절하게 보복 당하고 있다. 유학자인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에 의해 열녀기사가 『삼국사기』의 열전에 수록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후대의 유교적인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유교가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되면서,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에 대한 국가의 포장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포장사례는 990년(성종 9)에 성종이 6도에 사절을 파견하여 효자·순손·의부·절부를 조사하여 손순흥(孫順興)·차달(車達) 3형제·박광렴(朴光廉)·능선(能宣)의 딸 함부(咸富)·정강준(鄭康俊)의 딸 자이(字伊)·최씨(崔氏)의 딸·조영(趙英) 등의 문려에 정표하고 그들의 요역을 면제해 주었으며, 상직과 상물을 내려준 기사이다. 당시 성종은 효행을 권장하면서, ‘능히 자기 집에서 효자가 된다면, 반드시 국가의 충신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¹¹⁾ 성종은 997년(성종 16)에 동경에 행차하였을 때에도 의부·절부·효자·순손에게 정문(旌門)하고 사물(賜物)의 포상을 행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은 효자·순손·의부·절부에 대한 포장은 이후에도 수시로 행해졌으니, 현종조에 2회(현종 5·22, 賜物), 문종조에 2회(문종 즉위·3, 饋饗·賜物), 숙종조에 1회(숙종 즉위, 饋饗·賜物), 예종조에 3회(예종 1·3·8, 饋饗·賜物), 인종조에 2회(인종 즉위·2, 饋饗·賜物), 의종조에 1회(의종 3, 賜物), 고종조에 1회(고종 11, 饋饗)씩 각각 궤향(饋饗)하거나 사물(賜物)하였음을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³⁾ 이 외에도 1260년(원종 원년) 6월에는 효자·순손·의부·절부의 집 앞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있다.¹⁴⁾ 그런데 이와 같은 포장의 기사가 이후에는 공민왕조에 이르기까지 1세기에 걸쳐 전혀 보이

10) 『三國史記』卷48, 列傳 8, 薛氏女·都彌.

11) 『高麗史』卷3, 世家 3, 成宗 9年 秋 9月.

12) 『高麗史』卷3, 世家 3, 成宗 16年 秋 8月 乙未.

13) 이는 모두 『高麗史』의 세가에 산견되는 기사이다. 당해 연도를 밝혔으므로, 사료의 근거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생략한다.

14) 『高麗史』卷25, 世家 25, 元宗 元年 6月 丁酉朔.

지 않고 있다. 아마 이는 원의 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공민왕은 즉위한지 2개월이 지난 1352년(공민왕 1) 2월에 내린 교서에서 효자·순손·의부·절부는 관례에 따라 정표함으로써 풍속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¹⁵⁾ 1371년(공민왕 20)에 내린 교서에서도 의부·절부·효자·순손은 풍속과 크게 관계되므로 모두 정표를 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¹⁶⁾ 이 또한 원 지배기에 문란해진 풍속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한편, 1385년(우왕 11) 9월에는 명나라 태조의 시책사(諡冊使)로 온 주탁(周倬) 등이 우리나라의 사전(祀典) 대상인 사직(社稷)·자전(藉田)·풍운(風雲)에 충신·열사·효자·순손·의부·절부를 첨가하여 제사하라고 권하고 있어 흥미롭다.¹⁷⁾ 고려시대의 충신과 의사[열사]는 인종 이후 왕실이 다난하였기 때문에 대의와 절개를 위하여 희생된 선비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한다.¹⁸⁾

그러나 현재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에 충·효·열로 포장된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고려사』의 충의열전(忠義列傳)에는 6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홍관(洪灌)이 증직과 함께 시호가 내려졌으며, 정의(鄭顥)는 고종때 거란의 침입에 공이 있어, 수직(受職)·상물(賞物)의 포상을 받고 있다. 효우열전(孝友列傳)에는 16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고려사』 찬자도 고려 5백년간 효성과 우애로 사책에 기재되어 있거나 정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가 10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석주(釋珠)·위초(尉韶)·황수(黃守)·정유(鄭愈)·조희참(曹希參)·권거의(權居義)·신사천(辛斯藏)의 딸·윤구생(尹龜生) 등이 상물·정려·증직 등의 포상을 받고 있다.¹⁹⁾ 앞서 언급된 성종조의 포장자 7인은 효우열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1182년(명종 12)에 3년간 시묘한 효행으로 문려에 정표된 군기주부 장광부(張光富)²⁰⁾도 효우열전에는 빠

15) 『高麗史』卷38, 世家 38, 恭愍王 元年 2月 丙子.

16) 『高麗史』卷43, 世家 43, 恭愍王 20年 12月 己亥.

17) 『高麗史』卷135, 列傳 48, 辛禡 11年 9月.

18) 『高麗史』卷121, 列傳 34, 忠義.

19) 『高麗史』卷121, 列傳 34, 忠義·孝友.

20) 『高麗史』卷20, 世家20, 明宗 12年 2月 庚辰.

저 있다.

열녀열전(烈女列傳)에는 모두 12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문려에 정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말 우왕과 공양왕 때의 3인[정만(鄭滿)의 처 최씨, 이동교(李東郊)의 처 배씨, 권금(權金)의 처] 뿐이다.²¹⁾ 이전에도 열녀에 대한 정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가의 열녀에 대한 관심과 이를 권장하는 열녀정책은 여말 성리학의 수용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조선왕조의 정표정책(旌表政策)은 태조 원년 7월에 그 방침을 밝힘으로써 시작되어,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조까지 계속되었다.²²⁾

조선초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삼강윤리의 보급이 줄기차게 추구되었으니,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이행,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간행 및 보급,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인물조의 강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초기의 정표정책은 고려시대의 충신·효자·순손·의부·절부 등에 대한 정표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역대 제왕은 즉위하면 반드시 충신·효자·의부·절부에 대해 각 지방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여 그 대상자는 문려를 세워 정표하고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게 하였으며,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 행적에 따라 벼슬자리를 주기도 하였다.

세종대에는 효자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 백신(白身 : 벼슬이 없는 사람)이면 종9품으로 제수하고 원래 벼슬이 있는 자이면 일자(一資)를 올려주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실행(實行)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지 아니하거나 혹 실적(實績)이 없는 자를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천거한 향리(鄉里) 사람이나 관리를 엄하게 다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세조대에는 관찰사·수령의 보고 태만으로 효자·순손·절부에 대한 포상이 잘 행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효자와 절

21) 『高麗史』 卷121, 列傳 34, 烈女.

22) 조선시대의 褒獎에 대해서는 朴珠의 저서(『朝鮮時代의 旌表政策』, 1990, 일조각)와 일련의 논문(「18세기의 旌表政策」, 『국사관논총』 22, 1991 ; 「19세기의 旌表政策 - 순조·헌종·철종대를 중심으로 -」, 『국사관논총』 57, 1994 ; 「19세기 후반기의 旌表政策 - 고종·순종대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집』 52, 대구효성카톨릭대, 1997)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부에 대한 보고 태만이 있으면 관련된 관찰사를 추국하도록 하였다. 성종대에는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포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효우·절의자로서 복호가 허락된 자는 사망하더라도 그 처가 살아 있는 경우 그 처에게도 아울러 종신토록 복호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에서 주군(州郡)에 반포한 삼강행실을 잘 거행하지 않고 효자·절부 정표에 뜻을 쓰지 않는 수령에 대해서는 관찰사로 하여금 규찰하여 출척(黜陟)에 방거(憑據)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문(旌門)을 세우는 것은 절의를 장려하고 시청(視聽)을 용동(聳動)시켜 민서(民庶)의 긍식(矜式)을 삼자는 것이므로, 허문(虛門)을 지어 편액을 쓰고 그 아래에 돌을 세워 성명과 행실을 대강 서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종대에는 효자를 관직에 서용할 경우 각 관찰사에게 명하여 상경(上京)시켜 동서반에서 그의 인물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재능에 따라 서용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무릇 복호(復戶)는 전세와 공부 이외에 잡역만을 오로지 면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향약(鄉約) 등 사회적인 윤리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16세기에도 15세기에 강조되었던 삼강윤리가 꾸준히 강조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중종대에 수차례 인반(印頒)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아울러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의 편찬, 그리고 명종·선조대의 『삼강행실도』 보급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서도 알 수 있다. 중종은 연산군 시대에 파괴된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결과 연산조 때 무너진 정문들이 대다수 복구되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관찰사들에 의하여 효자·열부에 대한 많은 보고가 올라왔으며, 아울러 정표자의 허실문제가 자주 논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강상의 변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효자와 절부에 대한 포상도 자주 있게 되었고, 아울러 이들의 실적이 비록 특이하지 않더라도 포상이 쉽게 주어져 권면하고 장려하는데 힘썼다. 명종대에도 강상의 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표정책에 적극적이었다. 선조대에도 난을 겪은 후 풍속이 투박하여 강상의 변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선조는 난후 사절한 효자·충신·열녀를 정표하고 그 사적을 인쇄하고 반포하여 보는 자들을 진작시키고 의열을 격려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실적이 기록되어 있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는 각처의 문부(文簿)가 소루하였으며, 난후 발생한 효자·충신·열녀의 수가 매우 많으나 명실이 다르고 진위가 서로 섞이는 폐단이 있어 그 실상을 자세히 살피고 문견(聞見)하여 정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포상하는 일이 늦어져 그 행적이 파묻혀 없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7세기에 들어서는 예학의 발달과 함께 문벌의식의 과잉현상이 나타났다. 선조 중에 고관명신이나 명유대덕·충절·효열자 등을 가졌다는 사실은 자기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가문을 빛낸 현조를 밝히고 자 후손들은 정표를 청하는 상언을 하고 있다.

광해군 초기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효자·충신·열녀들의 실적을 모아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만드는 일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인조대에는 중종대와 마찬가지로 자주 많은 효자·충신·열녀들을 포상하였다. 그것은 반정으로 즉위한 국왕으로서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포상대상자에 있어서 진위가 섞여있는 경우 그 후손이 분주하게 노력함으로써 정표가 쉽게 이루어지는 폐단이 있었다. 숙종대에 오면 특히 후손들이 정표를 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구체적 행실의 기록이 없이 수 십명, 수 백명씩 포상되는 경우도 있어 포상이 이전보다 쉽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리하여 숙종대에 와서 정문·정려가 크게 증설되었다. 그리고 정표된 충신·열사의 대부분은 서원이나 사우에서도 제향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18·19세기에도 여전히 문벌이 중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17세기와 마찬가지로 선조의 현양을 위하여 후손들이 정표를 청하는 상언을 한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구체적 행실의 기록없이 포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 포상이 쉽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조대에는 탁이(卓異)한 절(節)이 있는 사대부와 소민(小民)을 포상함에 있어서 정표와 상물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빙리(氷鯉)·죽순(竹筍) 같은 효행의 허위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삼강행실도』 등의 유교윤리서를 보급할 것을 명하였다. 정조는 영조대보다 정표정책을 더 활발히 추진하였다.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정표의 절차와 효자증직에 대하여 자주 논의하였으며, 효열(孝烈)을 기한을 정하여 초계(抄啓)할 것과 무단히 기한이 넘어도 계문하지 않으면 정원에서 추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18세기에는 가문을 당했을 때에도 선(善)을 드러내고 그옥한 원한을 풀고자 효열정표에 힘썼다. 풍속이 크게 무너지기에 따라 효열정표에 더욱 힘썼을 뿐만 아니라 『삼강행실도』·『경민편』·『향약』 등 유교 윤리의 보급에도 힘썼다. 특히 1797년(정조 21)에는 『오륜행실도』를 편찬함으로써 유교 윤리서를 통한 풍속교화에도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세도정치기인 19세기 전반기에는 순조대에 상당히 많은 정표가 이루어진 데 비해, 헌종·철종대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충신으로 포상된 사례는 왜란과 호란때의 순절인, 광해군 10년 심하역(深河役) 순절인, 이괄의 난에 순절한 자, 신임사화인(辛壬士禍人), 무신난[이인좌의 난]에 사절한 자, 홍경래의 난에 순절한 자, 단종조의 충신, 숙종조 기사(己巳) 항소인(抗訴人), 을묘왜변 전공자 등이었고, 효자의 경우에도 임진왜란,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 변란에 발생한 효행사례들이 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기인 고종대에는 정표절차를 벗어난 정표가 자주 이루어졌다. 즉 본도를 거치지 않고 정기적인 해[式年]를 기다림이 없이 문득 임금의 행차 앞에 나타나 호소하여 해당 관청에 지시가 내려지게 함으로써 정문을 세우는 특전을 입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살아 있는 효자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는 법은 나라에서 장려하는 뜻을 보이는 것으로 당대에 불과한 것인데, 이 때에는 당사자가 죽은 뒤에도 후손에게 부역을 다시 지우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조선 중기의 충·효·열 행적에 대한 포장이 뒤늦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포장절차도 법전의 규정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제3절 忠·孝·烈 행적의 褒獎 過程

충·효·열의 행적을 한 사람은, 충신(忠臣)·충노(忠奴), 효자(孝子)·효녀(孝女)·효부(孝婦), 열녀(烈女)·열부(烈婦)·절부(節婦)라고 불리웠다. 조선시대에 국가에서는 수시로 충·효·열 덕목을 강조하였고, 이를 권장하기 위해 충·효·열 행적을 한 사람에게는 국가의 포장이 행해졌다. 조선초기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 장권조(獎勸條)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효도, 우애, 절의 등의 선행을 한 자는 (효자, 순손, 절부, 나라를 위하여 죽은 자의 자손, 목죽, 구환과 같은 등속이다.) 해마다 연말[歲杪]에 본조[예조]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錄啓] 장권(獎勸)한다. (상직을 주거나 혹은 상물을 주며,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을 세워주고 복호를 해 준다. 수신(守身)한 처에게도 또한 복호를 해 준다.)

이와 같은 『경국대전』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해 효력을 지닌 것이었다. 포장의 절차와 과정, 포장의 종류, 관련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1. 포장의 절차와 과정

1) 행적 발현(發顯)과 향중 공론(鄉中公論) 형성

충·효·열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의 행적[실적]을 발현해야 한다. 현재 살아 있는 인물이면, 100년이나 200년 전에 죽은 인물이면, 그 인물의 행

23) 충·효·열 행적의 포장과정에 대해서는 이해준·이준원·임선빈이 조사하여 발간한 『연기군 충·효·열 유적』(연기군·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29~42쪽 참조.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적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별로 사족이나 유생들 사이에 포장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아쉬움 등이 공론화되어야만 한다.

한편, 이렇게 후손이나 지역민의 필요에 의하여 인물의 행적이 상신되는 경우 외에 국가가 정기적으로 혹은 특정 시기에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삼강인물의 행적을 찾아내어 표창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충·효·열 인물의 행적 발현이 당대의 인물이거나 생존한 경우에는 소문이나 칭송이 근거가 되겠지만, 사후 수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묻혀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이 대개 후손들에 의하여 되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후손들의 사회적 명망이나 지도력,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려 포장의 청원 절차

인물의 행적이 뛰어나고 향중에서 공론이 형성되면 발론자가 중심이 되어 연명으로 정려 포장을 상신(청원)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문서가 천장(薦狀 : 추천서)이다. 이 천장은 대개 군내 유생들의 연명으로 성주(군수, 현감)에게 올려지는 것이 보통이고, 이를 수령은 상급기관인 감영(관찰사)에 이관하여 예조에 품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1차에 정려 포장이 결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개는 2~3차의 상신이 있고, 안될 경우에는 도내 유생들에 의한 2단계의 천장이 관찰사에게 올려지고 있다.

관찰사에게 상서하여 예조에 품의되어 왕의 윤허를 받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암행어사에게 상서하거나 왕에게 직접 상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관로를 통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긴급 청원같은 형태인데, 암행어사가 지방에 파견되었을 때 민원사항으로 올리는 방법과, 직접 왕의 행차 중에 ‘북이나 팽가리를 두드려[격쟁(擊鐙)]’ 억울한 사연을 아뢰는 방식이 그것이다.

3) 예조의 현지조사와 포장 결정

이상과 같은 추천과 청원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서인 예조에서는 삼강 행적에 대한 사실 여부를 현지 지방관에게 조사토록 하며, 실적이 확인되면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아 포장을 하게 된다. 가장 영예로운 것이 정려의 건립을 하명받는 것이다. 이때에 작성되는 문서가 예조 입안이며, 이 예조의 입안문서에 따라 포상의 내용도 결정된다. 대개의 경우 이 문서의 지시를 받아서 각 지방에서는 정려나 정문을 건립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결정을 통하여 정려가 건립되거나 정문이 건립되는데, 명정현판도 이때 작성된다. 명정 현판문의 형태는 먼저 ① 충신·효자·열녀의 구분, ② 포장을 받는 사람의 신분과 성명, ③ 명정년대의 순으로 기록된다. 예를 들면 효부 유언하처 부안임씨 정려의 경우,

- ① 孝婦
- ② 學生 杞溪俞彦夏 妻 扶安林氏之閭
- ③ 光緒 十三年 上之卽祚 二十四年 丁亥 潤四月 初三日 命旌

이라 하여 효부로 학생(신분) 기계유씨 유언하의 처 부안임씨가 1887년(고종 24) 윤 4월 초 3일에 명정을 받았음을 명기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정연대 또는 정려 건립 연대는 적혀있지 않고 창건 및 중건 연대가 적힌 경우도 있다.

4) 정려의 건립절차

정려의 건립비용은 예조의 입안에 관청에서 재목이나 기와, 목수나 장인들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후손들이 직접 재물을 모아서 건립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로 보면 가문의 사회적 위세와 정치력이 있는 경우 관

청에서 건립을 독려, 내지는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려건립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문칸에 명정 현판만을 게판하면서 정문으로 있다가, 후일 가문의 후손들이 물자를 모아서 별도의 정려를 건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삼강 포장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모두 정려 건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급복이나 증직은 받았으나 정려 건립까지는 이루지 못한 사례들도 많다. 그런데 조선왕조가 망하고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효열 행적이 뛰어났으나 정려건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들의 행적이, 전통적인 방식의 포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손들에 의해 정려가 건립된 경우도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시대의 예조에서 행하던 정려의 포장과 명정을 경학원(經學院) 등에서 행하였다.

2. 충·효·열 포장의 종류

유교적 기본 덕목인 충·효·열 삼강 인물에 대한 포장 정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충신·효자·열녀 정려이지만, 그 외에도 행적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포장이 이루어졌다. 『조선왕조실록』에 산견된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포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加資·蠲其徭役·蠲戶役·貢納免除·軍役減免·給豆米·給綿布·給復·給衣糧·錄用子孫·免軍役·免其子孫之鄉役·免身役·免役·免賤·復戶·復立旌門·賜物·賜物有差·賜米·賜米菽·賜米有差·賜祭·賞物·賞物復戶·賞米·賞職·賞布物·叙用·贖身給復·隨才叙用·收還旌閭·陞資錄用·量宜注授·旌閭·旌門·旌門復戶·旌門叙用·旌表門閭·題給米布·除職·贈諡收用·贈職·追贈·土官職叙用·褒贈·恤典 등

이들 포장의 종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크게 정문류(旌門類)·상직류(賞職類)·복호류(復戶類)·상물류(賞物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정문류(旌門類)

삼강의 행적이 뛰어난 경우 국가는 정려의 건립을 결정한 명정(命旌)을 내려주게 된다. 조선시대의 정려(旌閭)는 예조와 의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으로, 삼강의 윤리를 실천한 사람인 충신·효자·열녀(절부)에게만 주어지는 조치였다. 명정이 내려지면, 대개 별도의 정려각을 마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의 대문에 명정 현판을 게판[旌門]하기도 한다. 명예표창인 정려에는 실질적인 표창인 상물(賞物)·상직(賞職)·복호(復戶)도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상직류(賞職類)

충·효의 행적에 대한 대가로 국왕이 관직(官職)이나 관계(官階)를 하사하는 경우가 있다. 상직(賞職)은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 관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죽은 후에 관직이나 관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증직(贈職)이라고 한다. 이미 관직이나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보다 높은 관직이나 관계를 하사한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국가에 공로를 끼치고 죽은 관인 등에게 정 1품 이하의 관직을 증직하였다. 1407년(태종 7)을 전후하여서는 명유·절신·효행자를 비롯하여 과거급제 후에 관직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 등에게도 증직하는 보다 확대되고 체계화된 증직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토대가 되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면서 큰 변동없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증직의 사령장은 교지(敎旨)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사령장을 받은 자가 이것

을 베껴 써서 증직자의 묘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낸 뒤에 이들 묘소에 나아가 불사르는 분향의 의식을 행하였다. 또 오늘날에도 비록 그 명칭이 다르기는 하나 독립유공자, 전사한 군인과 경찰, 각종 순직공무원 등에게 계급을 올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복호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복호류(復戶類)

복호(復戶)는 조선시대 국가가 가가호호(家家戶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의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조치를 말한다. 요역은 주로 지방관청이나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토목과 영선, 특정 물품의 생산과 수송 등에 동원하는 노역을 말하는데, 복호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여 행적이 뛰어난 효자·열녀에게 복호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지만, 이밖에 ① 양계(兩界)의 금·은 채광호, ② 각종 재해를 당한 고을의 호, ③ 노병(老病) 시정군호, ④ 해청(海靑) 채포군호, ⑤ 제주·호남지역의 조운 부역자, ⑥ 자원하여 토지를 개간하여 사는 자, ⑦ 돼지·소·말 축산자, ⑧ 유민 가운데 환래한 자, ⑨ 승려 환속자 등등도 복호를 받고 있었음이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복호는 그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홀·특수인·군호·정역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혜기간에 따라 영구히 복호의 혜택을 받는 영년(永年) 복호와 한정된 시기만을 복호하는 한년(限年) 복호로 구분할 수 있다. 원래 복호는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수령들이 그 뜻을 모르고 전세(田稅)·공부(貢賦)까지 면제하는 사례가 많았고, 여러 궁가의 복호 남용이 많아 1629년(인조 7)에는 왕명으로 이를 엄히 할 것을 법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노비와 같은 천인이 천인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면천(免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복호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상물류(賞物類)

상물(賞物)은 왕이 의복이나 물건·음식 등을 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왕의 의복이 내려지는 경우는 왕의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되었다. 대개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하였지만, 자손에게도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상물은 앞에 든 복호나 증직, 혹은 정려의 명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상물(賞物)이라는 표현 외에 사물(賜物)이나 식물(食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3. 충·효·열 유적과 유물

1) 정려·정문·정려비

대개 정려 유적은 건물로 남아 있다. 이들 건물들은 정려문, 정려각, 정려비각, 정려비 등 다양하게 부르면서 모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흔히 ‘정문(旌門)을 받았다’고 할 때의 정문은 정려문(旌閭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나 후손의 집 대문에 명정문을 게판하는 형태가 바로 정려문(정문)이다.

명정이 내린 이후에 후손이나 지방관청에서 물자를 대어 별도의 정려각을 건립하거나,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마련하면 이를 마을 입구에 세우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정려문, 정려각, 정려비각이 된다. 대개 건축물로서 이들 유적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으나, 사실 수차례에 걸쳐 중수, 보수되어 고건축적 의미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고 원래의 명정 현판문이 남아 있을 경우 당대의 사적으로서 의미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 역시 후대에 다시 개판하여 원형을 손상한 경우가 더 많아 애석한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정려나 정문 이외에 마을을 효자나 열녀마을로 부르며 하면서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사실 조선전기에는 정려보다는 비석이 더 일반적

이었으며, 대개 ‘효가리(孝家里)’ ‘효자동(孝子洞)’ 등으로 자연석에 새기고 그러한 연유를 기록하였다.

2) 관련 고문서

정려 유적은 정려 건립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이 남아 있어야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 후손들이 그러한 문서들을 모두 보존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²⁴⁾ 우리가 정려 유적의 실상을 올바르게 살피기 위하여서는 정려 유적과 관련된 문서와 포장과정에 얽힌 역사를 찾아야 하는데, 정려 포장에 관련된 문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천장(薦狀) : 유교의 덕목인 삼강(三綱 ; 忠·孝·烈)을 장려하고, 향풍(鄉風)을 바로잡기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 천거하는 일종의 추천서이다. 이렇게 천거되어야 벼슬이 하사되거나 정려(旌閭) 포장을 받게 된다. 문서의 형태는 상서(上書), 의송(議送), 소지(所志), 등장(等狀) 등으로 다양하며, 흔히 지역 유생들의 연명으로 제출된다. 단계별로는 해당 지방관에게 올리는 향천(鄉薦), 도내 유생들이 연명으로 관찰사[감사]에게 올리는 도천(道薦),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올리는 형태가 있다. 만약 이 세차례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정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왕에게 직소하는 격쟁(擊錚)이나 상언(上言)의 경우도 있다.

조선후기 선비와 서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공문서 작성의 편람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모두(冒頭)에 사람상언(士林上言)으로 「효자정려」, 「충신정려」, 「열녀정려」, 「효자증직」, 「충신증직」, 「학행증직」이 실려 있고, 자손상언(子孫上言)으로 「자손이 하는 선조의 효행정려를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선조의 충신정려를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선대의

24) 필자가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연기지역의 충·효·열 유적 조사과정에서도 모두 33개소의 정려가 조사되었지만, 이 중 정려 포장과정의 문서를 보존한 경우는 한 두 사례에 불과하였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열녀정문을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효행증직을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충절증직을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학행증직을 위한 상언」 등이 실려 있다.²⁵⁾

② 예조입안(禮曹立案) : 예조가 관찰사로부터 삼강인물의 행적을 상신받아 처결하는 과정에서 정려를 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조입안이다. 대개의 경우 이 문서에는 정려를 결정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 추천장을 올린 인물, 승정원과 예조의 담당자(次知), 그리고 정려 건립에 관련된 관의 지원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²⁶⁾

③ 행장류(行狀類) : 관련 인물의 행적과 생애를 간략히 정리한 인물 전기로, 묘비문도 이에 해당한다. 충·효·열 행적의 관련 내용이 상세하고, 포장의 과정도 비교적 상세하여 이 자료가 보존된 경우에는 정려의 연혁과 사실 기술에 매우 유용하다.

④ 정려 상량문 : 정려를 건립하거나 중수하는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대개 정려기와 함께 걸려 있다. 내용은 건물의 위치, 건립의 주체 인물, 건립의 배경과 건립 과정, 건립의 목적과 운영방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려 상량문은 정려각이 세워져 있으면 족보의 지장록(誌狀錄)이나 관련된 인물의 문집 속에서 찾아지기도 한다. 대개 현판의 형태로 정려 내부에 게판된다. 한편 정려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명이나 물자와 재원을 마련한 인물들의 명단이 기록된 모연문(募緣文), 의연록(義捐錄), 용하기(用下記 : 지출부) 등도 정려각에 게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5) 『儒得必知』는 한말 갑오경장때까지 관청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이른바 吏胥體文章인 이두로 쓰여진 공문서식이다. 편자는 알 수 없고, 편찬연대는 『대전통편』이 나온 1785년(정조 9) 이후에 이조에서 공문서식 예규집으로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26) 정려 건립에 필요한 물자와 장인들을 관청에서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세부사항 등.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⑤ 완문(完文) 및 절목(節目) : 주로 관청에서 정려 관리나 후손들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 주는 문서이다. 대개 문중이나 후손들이 해당기관에 진정이나 청원을 하면, 이에 대해 중앙의 예조·병조·호조, 혹은 지방관청에서 완문을 발급해 준다. 이들 완문의 주된 내용은 관청이 이서·향임들의 불법적인 명령이나 세금징수, 신역·잡역·환자 등의 면역을 인정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다. 문서의 양식은 시행할 내용이 항목별로 적혀 있고, 문서의 말미에 지방관청의 실무자가 확인하여 서명·날인(수결)한 형태이다.

⑥ 공신녹권(功臣錄卷) : 공신을 책봉하고 이를 등재하여 공신수봉자(功臣受封者)에게 분급(分給)한 문권(文券)으로, 대개 충신과 관련이 있다. 외적의 침입에서 충절을 보인 인물이나 반란의 평정 등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내려진 녹권은 가문의 영예이자 개인적으로는 화려한 관력을 보장받는 길이기도 하였다. 공신녹권과 함께 정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정려 포장보다도 우위에 서 있던 것이 이 녹권의 발급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3) 비석 및 기타

이 밖에는 삼강의 행적이 널리 알려진 인물의 묘비석이나 행적비, 신도비 같은 비석자료가 있다. 이들 비석 자료는 상세한 행적과 포장의 과정, 관련 인사들의 관계가 정리된 경우가 많아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한편, 삼강의 행적과 관련된 유물들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호계마을의 자교암(慈敎岩)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교암은 마치 큰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모양의 바위로 봉산동 호계마을 이재구(李載九, 헌종 정유~고종 정해)와 관련된 유적이다. 이 바위는 이재구의 어머니인 안동김씨가 아들의 종아리를 쳐가면서 공부시킨 곳으로 알려지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이재구는 학문에 뜻을 두어 열심히 전력하였고, 효성이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극하여 8세때 어머니가 병고로 위독하게 되자 이 바위를 깨끗하게 하고 엄동설한에도 목욕재계하고 쾌유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바위에 ‘자교암(慈敎岩)’이라 새겨, 추모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제4절 忠 · 孝 · 烈 文獻資料 概觀

충 · 효 · 열 관련서적으로는 사서(史書), 윤리서(倫理書), 지리지(地理志)의 인물조, 예조에서 작성한 등록류(謄錄類) 등이 있다.²⁷⁾

1. 사서(史書)의 충 · 효 · 열 자료

우리나라의 현전 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이다. 1145년(인종 23)에 편찬된 『삼국사기』는 기전체의 역사서로 본기(本紀) 28권(고구려 10권, 백제 6권, 신라·통일신라 12권), 지(志) 9권, 표(表) 3권, 열전(列傳)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열전에서는 김유신(열전 10권중 3권 할당) 외에 68인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21인이나 되고 있다. 특히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온달(溫達), 밀우(密友)와 유유(由由), 백제의 성충(成忠)·흥수(興首)·계백(階伯), 신라의 박제상(朴堤上)·김반굴(金盤屈)·김유신(金庾信)·사다함(斯多含)·관창(官昌)·원술(元述) 등의 충의정신이 높이 찬양되거나 충절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효에 있어서는 향덕(向德), 성각(聖覺), 효녀 지은(知恩) 등의 이름이 빛나고 있으며, 열녀로는 신라 진평왕 때의 설씨녀(薛氏女), 백제 개루왕 때의 도미처(都彌妻) 등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삼국사기』의 기록은 충 ·

27) 각종 문집에도 충·효·열 관련 자료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효·열 가운데 충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의(忠義)가 강조되고 있다.

1281년(충렬왕 7)경에 편찬된 『삼국유사』는 전체 5권 2책으로 왕력(王曆)·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효선편(孝善篇)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불교적인 선행에 대한 미담 5항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효사적(孝事蹟)이 독립된 편목(編目)으로 다루어진 효시이다. 이 효선편의 내용은 ‘진정사의 효도와 선행[眞定師孝善雙美]’, ‘대성이 두 세상 부모에게 효도하다[大城孝二世父母]’, ‘향득사지가 다리살을 베어 아버지를 공양하다[向得舍知割股供親-향득사지는 『삼국사기』의 향덕과 동일 인임.]’, ‘순순이 아이를 묻다[孫順埋兒]’, ‘가난한 딸이 어머니를 봉양하다[貧女養母]’ 등으로 향득의 경우를 제외하면 효사(孝事)를 불교관념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한 것들이다.

고려시대의 역사서로는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전해지고 있다. 『고려사』는 1449년(세종 31)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2년 후인 1451년(문종 1)에 완성된 기전체(紀傳體) 사서로 총 139권이다. 기전체 사서이지만, 편찬자들이 고려왕조를 중국에 대한 제후의 국가로 인식하여 본기를 설정하지 않고 고려의 왕기(王紀)를 세가에서 다루고 있으며, 신돈의 후예로 간주한 우왕(禡王)과 창왕(昌王)의 경우에는 열전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세가 46권(우왕과 창왕의 열전 포함), 지 39권, 표 2권, 열전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려사』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열전에는 770인이 입전되고, 다시 238인이 붙여져, 1,008인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열전 제34권에는 양리(良吏)·충의(忠義)·효우(孝友)·열녀(烈女) 편이 설정되어 있다. 충의·효우·열녀의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충의(忠義) : 홍관(洪灌)·고보준(高甫俊)·정의(鄭顥)·문대(文大)·조효립(曹孝立)·정문감(鄭文鑑) [6]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 효우(孝友) : 문충(文忠) · 석주(釋珠) · 최루백(崔婁伯) · 위초(尉貂) · 서릉(徐稜) · 김천(金遷) · 황수(黃守) · 정유(鄭愈) · 조희참(曹希參) · 정신우녀(鄭臣祐女) · 손유(孫有) · 권거의(權居義) · 신사천녀(辛斯藏女) · 윤구생(尹龜生) · 반전(潘腆) · 군만(君萬) [16]
- 열녀(烈女) : 호수(胡壽)의 처 유씨(兪氏), 현문혁(玄文奕)의 처, 홍의(洪義)의 처, 안천검(安天儉)의 처, 강화(江華)의 처녀 3형제, 정만(鄭滿)의 처 최씨(崔氏), 이동교(李東郊)의 처 배씨(裴氏), 강호문(康好文)의 처 문씨(文氏), 김언경(金彦卿)의 처 김씨(金氏), 경덕의(景德宜)의 처 안씨(安氏), 이득인(李得仁)의 처 이씨(李氏), 권금(權金)의 처 [12]

위의 인물 가운데 충의편의 정의(鄭顓)와 효우편의 손유(孫有)는 청주 사람이며, 효우편의 윤구생(尹龜生)은 금주(錦州, 지금의 금산군) 사람이다.

한편, 『고려사』를 편찬한 자들은 조선초기의 유학자들이었으므로, 충의 · 효우와 함께 열녀편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여성들은 대체로 조선시대에 비해서 정절이 강요되지는 않았다.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전기까지도 효자(孝子) · 순손(順孫) · 의부(義夫) · 절부(節婦)라고 하여 절부에 상대되는 ‘의부(義夫)’의 존재가 있었음을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정절 못지 않게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이와 같은 쌍방의 윤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의 정착으로 인해 여성 일방에게 강요되는 관념으로 고착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충 · 효 · 열을 대단히 중시하여, 충 · 효 · 열 인물과 그 행적을 실록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경우에는 실록에 충 · 효 · 열 인물의 명단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으나, 중 · 후기에 이르면 포상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일일이 다 수록할 수가 없었으므로, 특이한 사례나 대표적인 인물만 수록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충신이나 효자보다 열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성리학의 시대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2. 윤리서의 충·효·열 자료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윤리서로서 충·효·열과 관련된 것으로는 먼저 『효행록(孝行錄)』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고려 충목왕 때 권보(權溥)와 그의 아들 준(準)이 효행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책으로, 고려말에 초판이 나왔으며, 1428년(세종 10)에 설순(僣循) 등이 개정하여 중간하였다. 초간본에는 이제현(李齊賢)의 서(序)가 있고, 후에 권근(權近)이 주해(註解)와 발문(跋文)을 달았다. 권보가 나이가 들자, 아들 준이 화공(畵工)에게 명하여 24효도(二十四孝圖)를 그리게 한 뒤 그것을 이제현에게 주면서 찬(贊)을 지어달라 부탁하여 아버지를 위안하였다. 이에 권보도 38효행을 골라 이제현에게 찬을 지어 받았는데, 전 24찬은 12구(句), 후 38찬은 8구로 되어 있다. 이 책은 효행설화에 대한 최초의 집대성으로 아이들에게 노래로 불러 외우도록 하여 효도를 고취하는 자료로 삼았다. 1428년(세종 10)에는 진주(晋州)에 사는 김화(金禾)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남에 변계량(卞季良)이 『효행록』의 반포를 건의하자, 세종은 설순(僣循)에게 재편집을 지시하여, 이전에 편찬한 24인에다 20여인을 더 넣고 고려와 삼국시대의 효행이 탁이한 자도 수집하여 한 책으로 개간케 하였다.

그 후 세종은 1431년(세종 13) 여름 집현전 부제학 설순에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편찬을 지시하였다. 집현전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古今의 서적을 열람하여 효자·충신·열녀 각 110명씩을 뽑아 앞에는 도형을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고 시(詩)와 찬(贊)을 붙혀 총 330장으로 『삼강행실도』를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14년 6월에 권채(權採)의 서문(序文)과 전문(箋文)을 붙이고, 세종 15년 2월 정초(鄭招)의 발문(跋文)을 실어 세종 16년 4월 인쇄 반포하고, 윤회(尹淮)가 지은 교서를 발표하였다. 그 후 세종 16년 11월에 『삼강행실도』를 중친 신하에게 하사하고 제도(諸道)에 반사(頒賜)하였다. 이 삼강행실도는 권보(權溥)의 『효행록(孝行錄)』에 우리나라의 옛 사실들을 첨가하여 국민교화서적(國民敎化書籍)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내용은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 · 「삼강행실충신도(三綱行實忠臣圖)」 ·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의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종대에 개찬된 『삼강행실도』에는 효자로 중국인 31인 · 한국인 4인, 충신으로 중국인 29인 · 한국인 6인, 열녀로 중국인 29인 · 한국인 6인이 실려 있다.

중종대에는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가 편찬되었다. 1511년(중종 6) 8월 국초 이래의 효자 열녀 중에서 『삼강행실도』에 실리지 않은 자도 찬집하여 그림을 그리고 시와 찬을 지어 간행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게 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그리하여 7년 10월에는 속편을 편찬할 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속편을 만드는 작업은 8년 7월 수재로 인해 잠시 중단되고,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다른 일에 동원되어 지연되기도 하였다. 1514년(중종 9)에 완성하여 6월 하순 남곤의 서문을 신고 10월 신용개의 전문을 실어 간행하였다. 이 『속삼강행실도』는 세종대 『삼강행실도』의 체제와 성종대의 언해방식을 그대로 준용하였다. 그러나 『속삼강행실도』에는 중국사례는 축소하고 조선인을 대폭 수록하였다. 중종조에 간행된 『속삼강행실도』에는 효자 36인, 충신 5인, 열녀 26인으로 총 67인의 사례를 수록하였는데, 중국인은 효자 3인, 충신 3인, 열녀 8인이고, 조선인은 효자 33인, 충신 2인, 열녀 18인이다. 이 후 명종 15년에 「충신도」의 심원척간(深源斥姦) 1항목이 첨입되었고,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열녀도」의 정씨수식(鄭氏守食) · 이씨수신(李氏守信) 2항목이 추가되었다.

1617년(광해군 9)에는 왕명에 의하여 홍문관 부제학 이성(李惺) 등이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편찬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 · 『속삼강행실도』의 속편으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정표(旌表)를 받은 충신 · 효자 · 열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상 · 중 · 하 3편으로 편찬되었다. 처음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인물은 총 1650여인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효자 · 충신 · 열녀를 모으고, 성대(盛大)의 전서(全書)가 되게 한다는 취지에서 『삼강행실도』 · 『속삼강행실도』의 사례를 앞머리에 넣고 『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인물을 추가하여 수록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은 1601년(선조 34) 예조에서 만든 임진년 이후 사절인(死節人)이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은 특히 임진왜란을 통하여 체득한 귀중한 자아의식 및 도의 정신의 토대 위에서 출발된 것으로 임진왜란 발발 이래의 효자·충신·열녀 등의 사실을 수록, 반포하여 민심을 격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소재나 내용이 동국, 즉 우리나라에 국한되면서 그 권질(卷帙)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계급과 성별의 차별없이 천인 계급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행실이 뛰어난 자는 모두 망라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물을 수록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인 권력자의 사사로움이 개재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표 2-1> 『(동국)삼강행실도』 (원·속·신속)의 충·효·열 분포

구 분	충신도			효자도			열녀도			계			총계
	(원)	속	신속	(원)	속	신속	(원)	속	신속	(원)	속	신속	
경 도			24			69			95			188	188
송도(개성)			1		1	4			8		1	13	14
경 기			7	1	1	39		2	52	1	3	98	102
충청도			11		5	74		1	78		6	163	169
경상도			17	2	16	209	3	10	177	5	26	403	434
전라도			9	1	3	111	2	6	149	3	9	269	281
황해도			5		2	37			35		2	77	79
강원도			5		2	43			59		2	107	109
함경도		1	2		1	34			38		2	74	76
평안도			5		2	79			33		2	117	119
종 실		2				3					2	3	5
미 상	6		4			3	1	1	5	7	1	12	20
계	6	3	90	4	33	705	6	20	729	16	56	1,524	1,596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1797년(정조 21)에는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의 두 책을 합하여 『오륜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원래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는 1518년(중종 3)에 조신(曹伸)이 왕명에 의하여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윤리를 진작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다. 내용은 장유와 붕우의 행실이 뛰어난 역대 명현의 행적을 가려 뽑아 형제도(兄弟圖)에는 종족도(宗族圖)를, 붕우도(朋友圖)에는 사생도(師生圖)를 첨가한 것이다. 형제도에 25인, 종족도에 7인, 붕우도에 11인, 사생도에 5인 등 모두 48인의 명현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명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오륜행실도』도 효자(33인)·충신(35인)·열녀(35인)·형제(24인)·종족(7인)·붕우(11인)·사생(師生, 5인) 등 모두 150인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 인물 대부분이 중국인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17인(효자 4인, 충신 7인, 열녀 6인)에 불과하다.

3. 지리지의 충·효·열 자료

지리지는 일찍이 『삼국사기』나 『고려사』와 같은 기전체 사서에 설정되어 왔는데, 『삼국사기』·『고려사』의 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는 아직 인물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종전의 지리지와는 달리 인물조를 설정하여 역사상 유명한 학자·고승·충신·무장·효자·열녀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충·효·열 인물 495인(충신 2인, 효자 334인, 열녀 159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도별로 정리해 보면 <표 2-2>와 같다.

이후 지리지에 인물조를 설정하는 것은 전통이 되어, 조선후기의 읍지에서도 대부분 인물조를 설정하여 충·효·열 인물을 다루고 있다. 먼저 1757년(영조 33)에서 1765년(영조 41) 사이에 각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읍지인 『여지도서』의 인물조에는 충신·효자·열녀가 4,280인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²⁸⁾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표 2-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충·효·열 분포

구 분	고을수	충	효	열	계	충·효·열 인물 등재 고을 (수)
한성부	1	2	16	7	25	(1)
개성부	1		1		1	(1)
경 기	37		14	11	25	(15)
충청도	54		40	20	60	충주목·청풍군·단양군·청주목·천안군·옥천군·문의현·직산현·목천현·회인현·진천현·보은현·영동현·황간현·청산현·공주목·한산군·정산현·은진현·회덕현·부여현·석성현·홍주목·서천군·면천군·온양군·대흥현·예산현 (28)
경상도	67		138	44	182	(49)
전라도	57		56	47	103	(38)
황해도	24		22	9	31	(13)
강원도	26		9	7	16	(11)
함경도	22		7	3	10	(8)
평안도	42		31	11	42	(20)
계	331	2	334	159	495	(184)

<표 2-3> 『여지도서』의 충·효·열 분포

구 분	고을수	충	효	열	계	비 고
경 조	1				0	보유편, 인물조 미기재
송 도	1	8	43	61	112	보유편
강도부	3	13	15	38	66	
수 원	1	3	16	10	29	보유편
경기도	34	47	154	171	372	보유편 6, 忠에 忠奴 1 포함
충청도	54	113	453	195	761	보유편 3
강원도	26	8	90	66	164	忠에 忠奴 2 포함
평안도	42	25	176	110	311	대부분 군현에 충·효·열 구분 불명확

28) 『여지도서』의 등재인물 가운데에는 종종 충·효·열의 항목 구분이 없거나, 충·효·열의 행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행적의 내용을 검토하여 충·효·열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구 분	고을수	충	효	열	계	비 고
황해도	23	1	83	74	158	충·효·열의 구분 없는 경우 많음
함경도	23	30	69	118	217	
경상도	71	124	550	360	1034	보유편 11, 충노·절의·의사 포함
전라도	56	69	657	330	1056	보유편 16
계	335	441	2306	1533	4280	

이 외에 각 군현에서 편찬된 사찬읍지에도 종종 인물조가 설정되어 충·효·열 인물이 취급되고 있으며, 조선 말기에 주로 편찬되는 관찬읍지에도 풍부한 충·효·열 인물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읍지의 충·효·열 기록은 읍지 편찬자의 기준설정과 관심도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읍지에 따른 편차가 심한 편이다.

읍지[군지]의 편찬은 일제강점기에도 이루어지는데, 종전의 군소군현이 통합되어 새로운 군이 형성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3 군현의 읍지를 종합하여 정리·보완하고 있다.

4. 예조의 충·효·열 관련 등록류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는 문서를 모아 등록으로 성책(成冊)하고 있었는데, 예조에서는 일찍부터 충·효·열과 관련 있는 등록을 간수하고 있었다.²⁹⁾ 이 가운데 『충효등록(忠孝謄錄)』, 『충효열등제등록(忠孝烈等第謄錄)』, 『효행등제등록(孝行等第謄錄)』, 『삼강록(三綱錄)』 등이 규장각 도서로 현존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충·효·열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생생한 1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충효등록』은 1638년(인조 16)부터 1741년(영조 17)까지 예조에서 충·효·열의 표창에 관련된 계목(啓目)을 모은 책이다. 필사본으로 원래 8책이었

29) 『明宗實錄』 卷24, 明宗 13年 11月 己丑條.

제 2 장 忠·孝·烈 褒獎과 文獻資料 概觀

으나, 제2책분(1666~1678)이 없어져 현재 7책이 남아 있다. 제1책은 1638년 3월부터 1665년 12월까지, 제3책은 1679년부터 1686년 11월까지, 제4책은 1689년 11월부터 1697년 8월까지, 제5책은 1698년 2월부터 1711년 12월까지, 제6책은 1712년 1월부터 1724년 4월까지, 제7책은 1725년 2월부터 1731년 11월까지, 제8책은 1732년 2월부터 1741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병자호란에서의 절의인(節義人)에 대한 표창, 신원(伸冤) 및 증시(贈諡)·개시(改諡) 등에 관한 기사, 효행인과 절녀 등에 관한 표창, 노인에 대한 봉직, 전망자(戰亡者)·순직자의 증직, 『관서충효록』·『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 등의 간행에 대한 전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표창의 대상과 내용은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정세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 있어서, 인조 때에는 병자호란 때의 절의인에 대한 표창이, 숙종 이후에는 효자·충신에 대한 증시(贈諡) 등이 주가 되며, 영조 때에는 종친효행(宗親孝行)·신원·효행 등이 주가 되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의 윤리관, 중앙정부의 통치태도, 지배층의 윤리덕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효행등제등록(孝行等第謄錄)』은 1655년(효종 6)부터 1788년(정조 12) 사이에 예조에서 효행등제단자(孝行等第單子)를 모아 엮은 책이다. 총 40차에 걸쳐 충·효·열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표창을 한 기록을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충효열등제등록(忠孝烈等第謄錄)』은 1789년(정조 13)부터 1854년(철종 5)까지 10차에 걸친 충·효·열로 표창된 명단이 수록된 예조의 등록이다. 내용은 효자·효녀·효부·열녀·절부·충신·충노·충비에 대한 정려·상직·증직·복호·면천·상물질 등으로서 각각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거소(居所)·관직·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거소와 부(夫)의 관직 및 성명·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일반 상인(常人)·천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포상 대상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실록기사가 전기와는 달리 충·효·열 포상자의 인물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등록을 실록의 기록과 비교하면서 검토하면 매우 유익하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삼강록(三綱錄)』은 1776년(정조 즉위년)부터 1783년 사이의 매 식년(式年-子·卯·午·酉)마다 각 도에서 충·효·열(烈)의 삼강에 뛰어난 사람을 가려 뽑은 책으로, 팔도에서 이를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다시 왕에게 아뢰어 증직(贈職)·급복(給復) 및 상전(賞典)을 내렸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적(事蹟)을 편록(編錄)한 것이다. 『삼강록』은 뒤에 『삼강록속』·『속수삼강록』 등의 이름으로 속간되기도 하였는데, 전자는 1857년(철종 8)부터 1868년(고종 5) 사이, 후자는 1904년(광무 8)부터 1909년(융희 3) 사이의 충·효·열 삼강을 엮은 책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지방 군읍에서도 그 고을의 삼강록을 자체적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예조의 등록 가운데 『충효열등제등록』, 『효열등제등록』 등은 본서의 제3장 제2절 연기군의 사례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제1절 忠南 市·郡의 忠·孝·烈 文獻資料

앞서 살펴 보았듯이 충·효·열 문헌자료에는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은 사서(史書), 『삼강행실도』·『속삼강행실도』·『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같은 윤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 등과 같은 지리지 및 고을의 각종 읍지, 『충효등록』·『충효열등제등록』·『효행등제등록』·『삼강록』 등의 등록류 등이 있다. 이 절에서는 충남의 각 시·군 별로 이들 문헌자료의 충·효·열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충남에는 15개의 시·군이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의 영역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것이다. 현재의 시·군은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영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다. 고을의 명칭과 영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충남 시·군의 충·효·열 문헌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시·군이 시대에 따라 어떠한 명칭과 영역을 지녀왔는지를 살펴보고,³⁰⁾ 문헌자료에서 당대의 고을명칭을 기준으로 충·효·열 기록을 찾아 정리하였다. 시·군별 문헌자료는 역사서, 윤리서, 읍지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실록 가운데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예조의 충·효·열 관련 각종 등록은 미처 정리하지 못하였다. 추후 현지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 자료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0) 시·군의 행정연혁을 정리하는데 활용한 문헌은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越智唯七著, 1917), 『지방행정구역연감』(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등이다.

1. 천안시

천안시는 1914년에 천안군·목천군·직산군이 통합되어 천안군이 되었고, 1963년에 천안시와 천원군(1991년에 천안군이 됨)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통합되어 현재의 시가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이전 천안시의 역사는 천안군과 목천군·직산군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천안은 백제 온조가 옛 마한지역을 통일하고 백제를 이룩할 때 환성(歡城)이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930년(태조 13) 삼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천안부(天安府)로 하였고, 995년(성종 14) 환주(歡州)로 고치면서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가, 1005년(목종 8) 폐하였다. 1018년(현종 9) 다시 천안이라 하고 지군사(知郡事)를 두었으며, 1310년(충선왕 2) 영주(寧州)로 고쳤다가 1362년(공민왕 11) 다시 천안부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 천안부를 영산군(寧山郡)으로 고쳤고, 1416년 다시 천안군으로 고쳐 조선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목천은 백제의 대목악군(大木岳郡), 신라의 대록군(大麓郡)이었던 것이 고려 성종 때에 목주(木州)로 개칭되면서 청주에 속했다가, 1172년(명종 2)에 이르러서야 감무가 파견되면서 독립된 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에 목천(木川)으로 고치면서 종전의 감무 대신 현감이 파견되기 시작했고, 1895년(고종 32)에 목천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914년에 천안군에 합병되었다.

직산은 본래 백제의 수도 위례성(慰禮城)이라는 설이 있으며, 뒤에 고구려가 취해서 사산현(蛇山縣)으로 고쳤고, 통일신라시대에도 그대로 사산현이라고 하여 백성군(白城郡 : 지금의 안성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940년(태조 23)에 직산현(稷山縣)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에 천안부의 속현이 되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393년(태조 2)에 이곳 사람 환관 김연(金淵)이 명나라에 들어가 사명(使命)을 완수하고 사신이 되어 오자, 이 고을을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으나, 그 뒤 1401년(태종 1) 강등시켜 감무를 두었고, 1413년에 현감으로 고쳤다. 1505년(연산군 11) 경기도에 예속시켰다가

중종 초에 충청도로 환원하였다. 1895년(고종 32) 승격하여 군(郡)이 되었다가 1914년 천안군으로 병합되었다.

따라서 천안시의 문헌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환성·환주·천안부·천안군·영주·영산군, 대목악군·대록군·목주·목천현·목천군, 사산현·직산현·직산군 등의 고을 명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천안시와 관련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천안시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31년(세종 13)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천안시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천안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11건(효자 6건, 열녀 5건), 직산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6건(절의 1건, 효녀 1건, 효자 3건, 열녀 1건), 목천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9건(효자 5건, 효우 1건, 열녀 2건)으로 모두 26건이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조선시대의 윤리서에는 천안시의 인물이 비교적 많이 등재되어 있는 편이다. 『(동국)속삼강행실도』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삼강도(三綱圖)에는 천안시와 관련된 인물이 모두 12인에 달한다. 그 내역은 『(동국)속삼강행실도』의 「효자도」에 직산현 인물 1건, 목천현 인물 1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효자도」에 천안군 인물 6건, 목천현 인물 2건, 「충신도」에 직산현 인물 1건, 「열녀도」에 천안군 인물 1건 등이다[<표3-2> 참조].

지리지에 천안시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이다. 천안군·직산현·목천현에 각각 효자 1인씩 등재되어 있는데, 목천현의 경우에는 ‘신증(新增)’ 기록이다. 그런데 이들 3인의 효행이 『고려사』, 『실록』 등의 사서(史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효행사실은 다음과 같다.

- 천안군의 효자 양호(梁好)는 고려조의 인물로 젊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대변을 가져다가 달고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표 3-1> 역대 『실록』에 기록된 천안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 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 거
1431	직산	食醫 崔子雲	효자(守墳·간병)	복호	『세종실록』 54, 13/10/기미
1432	천안	副司正 朴忱	효자(봉양·간병)	상직	『세종실록』 57, 14/9/무진
	직산	卞袍	효자(侍墓·봉양)	정문·상직	
1434	천안	驛丞 秦元達	효자	서용	『세종실록』 63, 16/2/신해
1434	직산	田秀	효자(간병·侍墓)	복호	『세종실록』 63, 16/3/기해
1519	목천	玉種	효우(斷指)	상물·복호	『중종실록』 36, 14/7/계묘
1535	천안	李順坪 妻 安氏	열녀(守節)	상물·복호	『중종실록』 79, 30/3/갑신
1540	천안	幼學 俞彦謙	효자(侍墓)	상직·정문·복호·상물	『중종실록』 92, 35/2/갑자
1543	천안	忠義衛 李順坪 妻 安氏	열녀(侍墓·守節)	정문·복호	『중종실록』 101, 38/12/임진
1559	천안	幼學 曹德粹	효자(봉양·侍墓)	정문·복호	『명종실록』 25, 14/4/임인
1669	직산	黃珀	절의	추증	『헌종실록』 16, 10/3/임자
1669	직산	鄭世廉 女	효녀	포장논의	『헌종개수실록』 24, 12/8/병술
1719	목천	士人 金天揆	효자	정려	『숙종실록』 64, 45/11/무인
1808	천안	業儒 崔運復 妻 金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11, 8/5/무술
	천안	士人 池應福 妻 尹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11, 8/7/무진
1812	목천	故士人 金壽弼	효자	정려	『순조실록』 15, 12/3/을유
	목천	故士人 南燮 妻 金氏	열녀	정려	
	목천	故正郎 趙銘	효자	증직	
1814	천안	故良人 白東齊 妻 崔姓	열녀	정려	『순조실록』 17, 14/9/임진
1819	목천	郡守 金道燮	효자	정문	『순조실록』 22, 19/9/정해
1822	목천	故通德郎 金義淵 妻 李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25, 22/3/병진
	직산	故良人 李士玉 妻 白姓	열녀	정려	
	목천	故通德郎 金義淵	효자	증직	
	천안	故同知 李大亨	효자	증직	
1832	천안	故士人 李弼亨	효자	증직	『순조실록』 32, 32/4/기축
	목천	故士人 柳疇錫	효자	증직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표 3-2>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천안시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續三綱行實圖	孝子圖	稷山	조선	崔叔威	叔威侍藥
	孝子圖	木川	조선	徐萬	徐萬得魚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 卷一	稷山	신라	素那	素那突賊
	孝子圖 卷一	天安	고려	梁好	梁好廬墓
	孝子圖 卷三	天安	조선	縣令俞彦謙	彦謙馴虎
	孝子圖 卷三	木川	조선	楊天龍	天龍赴火
	孝子圖 卷五	天安	조선	李安仁妻高氏	高氏活母
	孝子圖 卷五	天安	조선	郭義	郭義斷指
	孝子圖 卷五	天安	조선	幼學徐忠佐	忠佐斷指
	孝子圖 卷五	木川	조선	私婢儉進	儉進殺虎
	孝子圖 卷七	天安	조선	幼學徐忠弼	忠弼嘗糞
	烈女圖 卷二	天安	조선	忠義衛李舜稗妻安氏	安氏節行

쓴 것을 맛보았으며, 세상을 떠난 뒤에는 3년동안 시묘(侍墓)하였다. 아버지가 일찍이 막내아들 순(純)이 전장이 없음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호(好)가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자기의 몫을 아우에게 주었다. 이일이 임금에게 들려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 직산현의 호자 봉유지(奉由智)는 조선조의 인물로, 효행으로 정문을 내렸으며, 벼슬이 지군사(知郡事)에 이르렀다.
- 목천현의 호자 서만(徐萬)은 조선조의 인물로, 아버지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여 초하루·보름에는 반드시 주찬(酒饌)을 갖추어 바쳤다. 아버지가 겨울에 병이 들어 생선을 먹고자 하므로 만(萬)은 얼음을 두드리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니, 물고기 네 마리가 뛰어 나와서 갖다가 바쳤다. 아버지가 죽자 3년 동안 여묘하고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성종(成宗) 11년에 상으로 벼슬을 주었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천안군에 30인(충 2, 효 25, 열 3), 목천현에 16인(충 3, 효 10, 열 3), 직산현에 1인이 기록되어 있다[<표 3-3> 참조]. 직산현에 1인밖에 없는 것은 직산현지에 인물조(人物條)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효·열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문이다. 이는 『여지도서』의 편찬이 고을마다 통일된 기준을 갖고 제작된 것이 아니고, 각 고을에서 올라온 읍지를 성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을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천안군지」 인물조에는 충신 2인, 효자 22인, 효녀 3인, 열녀 2인, 절부 1인이 기록되어 있다. 「직산현지」에는 충신 열전(忠臣列傳, 附忠奴)·효자열전(孝子列傳, 附孝婦)·열부열전(烈婦列傳, 附貞婦)이 설정되어 있어서 행적이 비교적 자세하다. 수록되어 있는 인물은 충신 11인, 충노 1인, 효자 25인, 효부 4인, 열부 11인, 절부 1인이다. 목천현지에는 효자 9인, 열녀 5인, 충의(忠義) 8인이 기록되어 있다.

1863년에 간행된 「영성지(寧城誌)」는 천안군지의 별칭인데, 천안의 충·효·열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일찍이 천안에는 「선생안(先生案)」에 충신·효자·열녀 등을 추가한 「문헌록」이 있었다. 이 「문헌록」은 1577년(선조 10)에 군수였던 손여성(孫汝誠)이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627년(인조 5)에 정지경(鄭之經)에 의해서 8첩 병풍으로 보완되고, 1698년(숙종 24)에 이희조(李喜朝)에 의해 속지(續誌)가 편찬되었으며, 1734년(영조 10)에는 이윤신(李潤身)에 의해서 「문헌록」이 보완되고 책자로 등사되었다. 그 후 1813년(순조 13)에 군수로 부임한 이노겸(李魯謙)이 『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하여 군세(郡勢)에 관한 사항을 보충하고 「문헌록」과 합하여 처음으로 「영성군지(寧城郡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군지는 상편이 읍지이고 하편은 문헌록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852년(철종 3) 군수로 부임한 한여(韓瑬)가 사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사 이심순(李心純)을 비롯하여 12인의 유생들이 참여하여 「영성읍지(寧城邑誌)」를 상·하편으로 완성하였는데, 1863년(철종 14)에 군수였던 이연숙에 의해 「영성지」로 간행되었다.

이 「영성지」에는 충신 8인(고려 1, 본조 2, 신증 5), 효자 29인(고려 1, 본조 22<효녀 3 포함>, 신증 6), 열녀 9인(본조 3, 신증 6)이 수록되어 있고, 다시 포상을 받지 못한 효열[未蒙褒孝烈秩] 71인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영성지는 천안군의 충·효·열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표 3-3> 『여지도서』에 수록된 천안시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천안군	충신	柳義 ^臣	정려, 복호	임진왜란
천안군	충신	張翮		임진왜란
천안군	효자	郡守 梁好		三年侍墓
천안군	효자	正郎 俞彦謙		三年侍墓
천안군	효자	奉事 俞敬仁	복호	
천안군	효자	參奉 俞名立	孝薦 除職	
천안군	효자	幼學 俞後楊		嘗糞
천안군	효자	徐忠弼	정려	嘗糞
천안군	효자	徐忠佐	정려	斷指
천안군	효자	徐挺生	孝薦을 거절함	
천안군	효자	徐夢良		斷指, 嘗糞
천안군	효자	張上逸	封旌	三年侍墓
천안군	효자	郭義	정려	斷指
천안군	효자	李昞	정려, 증직	三年侍墓
천안군	효자	柳堰	정려	斷指
천안군	효자	徐漢章	정려	斷指
천안군	효자	高成郁	臨幸溫泉 때 特命除職	嘗糞
천안군	효자	玄尙後		三年侍墓
천안군	효자	柳淵		三年廬墓
천안군	효자	柳興雨		斷指
천안군	효자	常漢 鄭戒仁	정려	寺奴, 도적의 침입에 부모를 구함
천안군	효자	周善宗	租10斛	斷指
천안군	효자	金仁立	정려	斷指
천안군	효자	玄有先	정려	官奴, 斷指
천안군	효녀	高氏		도적으로 부터 모친보호
천안군	효녀	郭氏		
천안군	효녀	毛珍	복호	私婢, 斷指, 居喪三年
천안군	절부	安氏	정려	
천안군	열녀	張漢 妻 李氏	정려	병자호란 적을 피해 죽음
천안군	열녀	俞彦謙 妾 七非	정려	斷指, 喪禮
직산현	충신	沈郁		
목천현	충신	德信正鸞壽	충효정려	임진왜란, 斷指, 三年侍墓
목천현	충신	李汝淸	授職	임진왜란 창의
목천현	충신	金時敏		임진왜란 참전
목천현	효자	徐萬	정려	水鯉, 三年侍墓
목천현	효자	[신증]黃宗海	도동서원 배향	
목천현	효자	郭始徵		
목천현	효자	李頎俊	정려	斷指, 廬墓
목천현	효자	李伯倬 ^任	증직	병자호란에 노부모를 구하고자 함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목천현	효자	李福長	정려	斷指, 임진왜란에 창의
목천현	효자	李藩	정려	6세에 부친상을 당한후 종신토록 죄인이라 자처함.
목천현	효자	李順學	정려	斷指
목천현	효자	李貴雄	정려	斷指
목천현	효자	黃致雲	정려	斷指
목천현	열녀	鄭琛 妻 金氏	정려	병자호란
목천현	열녀	黃成鉉 妻 李氏	정려	殉節
목천현	열녀	李瑞龍 妻 朴氏	정려	殉節

목천현지인 「대록지(大麓誌)」 또한 목천의 충·효·열 연구에 중요하다. 「대록지」는 안정복이 1779년(정조 3)에 목천현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구지(舊誌-선생안)를 참고 삼아 편찬하였고, 다시 40여년이 지나 목천현 수령으로 부임한 조국인(趙國仁)이 1817년에 다시 편찬한 것이다. 「대록지」의 인물조에는 효자(효녀·효부 포함) 67인, 열녀 24인, 충의(忠義) 17인이 포함되어 있다.

『호서읍지』(1871)에는 천안읍지의 명칭이 「영성읍지(寧城邑誌, 寧城誌, 寧城郡誌)」로 되어 있다. 이 영성지의 인물조에는 충신 9인, 효자 28인, 효녀 4인, 열녀 9인이 기록되어 있어서, 『충청도읍지』에 비해 추가·보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산현지」에는 『충청도읍지』와 마찬가지로 충신열전(忠臣列傳, 附忠奴)·효자열전(孝子列傳, 附孝婦)·열부열전(烈婦列傳, 附貞婦)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록인물도 충신 11인, 충노 1인, 효자 25인, 효부 4인, 열부 11인, 절부 1인으로 『충청도읍지』와 동일하다. 「목천현지」는 효행 6인, 열녀 3인, 충의 2인으로 『충청도읍지』보다 오히려 소략하다.

『[호서]읍지』(1895)의 「천안군지」와 「목천현지」에는 충·효·열 기사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직산현지」의 경우에도 종전 읍지의 충신·효자·열녀열전을 전사(傳寫)하고 있어서, 전혀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천안의 읍지로는 1934년에 이병연(李秉延)이 편집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충청남도 천안군편이 있다. 여기에는 정려조가 설정되어 있어서, 13기의 정려가 소개되어 있고, 충신 12인, 절의 5인, 효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자 79인, 효녀 3인, 효부 13인, 정렬(貞烈) 41인, 여행(女行) 3인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조선환여승람』의 천안군편은 1914년에 천안군·목천군·직산군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천안군의 군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천안시와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한편, 1993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7집 천안시·천안군편에는 모두 30기의 정려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충과 관련된 것이 4기(1기는 충신 1인, 1기는 충신 2인, 2기는 충신·효자·열녀 각 1인씩, 1기는 충신 1인·효자 3인), 효와 관련된 것이 23기(12기는 효자 1인, 1기는 효자 2인, 1기는 효자 3인, 1기는 효자·효부 각 1인, 1기는 효부, 2기는 충신·효자·열녀 각 1인씩, 1기는 충신 1인·효자 3인, 1기는 효자 10인·열녀 2인, 1기는 효자 3인·열녀 1인, 1기는 효자·열녀 각 1인, 1기는 효자 2인·효열부 1인), 열과 관련된 것이 10기(4기는 열녀, 2기는 충신·효자·열녀 각 1인씩, 1기는 효자 10인·열녀 2인, 1기는 효자 3인·열녀 1인, 1기는 효자·열녀 각 1인, 1기는 효자 2인·효열부 1인), 미상 1기이다.

그런데 실록과 읍지를 통해서 확인된 천안시의 정려사례는 모두 61건이다. 이 가운데 현존하는 정려는 20기에 불과하고, 41건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사된 30기의 정려 가운데에는 문헌을 통한 정려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은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4> 문헌에서 확인된 천안시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현존여부	비 고
충신	柳義臣	천안군		○	○			○	임진왜란
충신	張翮	천안군			○	○		○	
충신	德信正鸞壽	목천현		○				×	임진왜란, 斷指, 三年侍墓
충신	黃世得	직산현					○	○	임진왜란
충효	金晋熙	목천현			○			×	
효자	幼學 俞彦謙	천안군	○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현존여부	비 고
효자	玄有先	천안군				○		×	
효자	徐忠弼	천안군		○	○			○	嘗糞
효자	幼學 曹德粹	천안군	○					×	
효자	徐忠佐	천안군		○	○			○	斷指
효자	張上逸	천안군		○	○			○	三年侍墓
효자	郭義	천안군		○	○			×	斷指
효자	李昞	천안군		○				×	三年侍墓
효자	柳堰	천안군		○	○			○	斷指
효자	徐漢章	천안군		○	○			○	斷指
효자	寺奴 常漢 鄭戒仁	천안군		○	○	○		×	도적의 침입에 부모를 구함
효자	金仁立	천안군		○	○			×	斷指
효자	玄有先	천안군		○	○			×	官奴 斷指
효자	徐萬	목천현		○	○			×	氷鯉, 三年侍墓
효자	李頎俊	목천현		○				×	斷指, 廬墓
효자	李福長	목천현		○				○	斷指, 임진왜란에 창의
효자	李藩福	목천현		○	○			○	6세에 부친상을 당한 후 종신토록 죄인이란 자치함.
효자	李順學	목천현		○	○			○	斷指(『충청도읍지』李順鶴)
효자	李貴雄	목천현		○	○			○	斷指
효자	黃致雲	목천현		○				×	斷指
효자	土人 金天揆	목천현	○		○			×	
효자	土人 金壽弼	목천현	○					○	
효자	河漢芻·漢伊 兄弟	목천현			○			×	
효자	卞袍	직산현	○					×	
효자	黃珣	직산현			○	○	○	○	
효자	奉田智	직산현			○	○	○	×	
효자	崔墩	직산현			○	○	○	×	
효자	崔克認	직산현			○	○	○	○	효종조
효자	崔柱旻	직산현			○	○	○	○	廬墓
효자	崔焜	직산현			○	○	○	×	廬墓
효자	金世準	직산현			○	○	○	×	斷指
효자	趙砬眞	직산현			○	○	○	×	廬墓
효자	崔義生	직산현			○	○	○	×	
효자	吳桂鶴	직산현			○	○	○	×	
효자	吳善男	직산현			○	○	○	×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현존여부	비 고
효자	金澹	직산현			○	○	○	×	
절부	安氏	천안군		○			○	×	
효부	校生 高信臣 妻 洪氏	직산현			○	○	○	×	
열녀	張漢 妻 李氏	천안군		○		○		○	병자호란 적을 피해 죽음
열녀	李順坪 妻 安氏	천안군	○					×	
열녀	業儒 崔運復 妻 金氏	천안군	○					×	
열녀	俞彦謙 妻 七非	천안군		○			○	○	斷指, 喪禮
열녀	士人 池應福 妻 尹氏	천안군	○					×	
열녀	良人 白東齊 妻 崔姓	천안군	○					×	
열녀	郭義 庶姪女 郭氏	천안군			○	○	○	×	
열녀	張上逸 妻 李氏	천안군					○	×	三年侍墓
열녀	鄭琛 妻 金氏	목천현		○		○	○	×	병자호란
열녀	黃成鉉 妻 李氏	목천현		○				×	殉節
열녀	李瑞龍 妻 朴氏	목천현		○			○	×	殉節 (영조 경오년 명정)
열녀	士人 南燮 妻 金氏	목천현	○					×	
열녀	柳成運 妻 趙氏	목천현					○	×	정조 병진년 명정
열녀	權禮謙 女 權氏	목천현				○	○	×	
열녀	金光烈 妻 成氏	목천현				○	○	×	
열부	李承男 妻 李氏	직산현			○	○	○	×	
열부	吳善男 妻 金氏	직산현			○	○	○	○	
열녀	良人 李上玉 妻 白姓	직산현	○					×	

2. 공주시

공주는 백제의 웅진이었었는데, 백제를 점령한 신라는 686년(신문왕 6) 웅천주(熊川州)를 설치하였다가, 757년(경덕왕 16)에는 웅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에는 940년(태조 23)에 공주로 개칭하였고, 983년(성종 2)에는 공주목이 되어 목사(牧使)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1018년(현종 9)에는 주로 강등되어 지주사(知州事)가 파견되다가, 1341년(충혜왕 2)에는 원나라 평장(平章)인 활활적(闊闊赤)의 처 경화옹주(敬和翁主)의 외향이라 하여 다시 공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정3품의 목사가 파견되는 공주목으로 영역도 광활하여 영조 때의 경우 26개면 207개리를 관할했으며, 오늘날의 대전시·연기군·부여군의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일부까지 포함하였다.

1895년에는 지방제도개혁에 따라 공주목이 군으로 개편되었으며, 공주부가 신설되어 인근 27개군을 관할하다가, 1896년에는 부제가 없어지고 충청도가 남·북도로 나뉘자, 공주군은 충청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1909년에는 탄동 현내 천내 산내 구죽 유등천 등 6개면이 회덕군으로, 양야리 명탄 등 2개면이 연기군으로 이관되면서, 공주군의 관할구역이 현재와 비슷하게 축소되었으며, 1973년에는 장기면 2개리와 반포면 3개리가 연기군에 이관되었고, 1993년에는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일부가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로 이관되었다. 한편 1986년에 공주읍이 공주시로 승격되어 공주시와 공주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는 시·군이 통합되어 오늘날의 공주시가 성립되었다.

공주의 옛 이름은 웅천(熊川)·웅진(熊津)·회도(懷道)·안절군(安節郡)·공산(公山)·금성(錦城)·웅주(熊州) 등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에서 찾아지는 공주의 충·효·열 자료 중에는 현재의 공주시가 아닌 대전시나 연기군·부여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주지역 충·효·열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주지역의 충·효·열 자료로 최초의 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효자 향덕이다. 향덕은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중엽의 인물로 우리역사에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효자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향덕(向德)은 웅천주(熊川州) 판적향(板積鄉) 사람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선(善)이오 자(字)는 반길(潘吉)인데, 천품이 온순하고 선량하여 향리에서 그의 품행을 높이 칭찬하였다. 어머니는 이름이 전하여지지 않는다. 향덕도 효성있고 공순하기로 당시에 유명하였다. 천보 14년 을미(755년, 신라 경덕왕 14년)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게다가 유행병까지 덮치었는데, 향덕의 부모가 주리고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또 등창이 나서 모두 죽기에 이르렀다. 향덕이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지만 봉양을 할 거리가 없는지라 이에 자기의 불기살을 베어 먹이였다. 또 어머니의 등창을 입으로 빨아서 모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두 무사하게 되었다. 그 고을 관리가 이 일을 주에 보고하고 주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이 지시를 내려 벼 3백휘(1휘는 열말)와 집 한채와 구분전 얼마를 주고 관리에게 명령하여 비를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여 그를 기념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 곳을 이름하여 효자의 마을[孝家里]이라고 한다.

이 『삼국사기』의 향덕 기사는 『삼국유사』의 효선편(孝善篇)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향덕을 향득사지(向得舍知)라고 하였으며, 그 내용도 다음과 같이 간략하다.

- 향득사지가 다리살을 베어 아버지를 공양[向得舍知割股供親] - 경덕왕대 웅천주에 향득사지란 자가 있어 흉년으로 그 아버지가 거의 굶어 죽게 되자 향득이 그 넓적다리를 베어 봉양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자세히 사실을 보고하여 아뢰니 경덕왕이 벼 5백석을 주었다.

『고려사』에서는 공주의 충·효·열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공주목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20년(세종 2)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공주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공주의 인물로 추정되는 유지결까지 포함하여 25건이 확인된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윤리서 가운데 공주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효자도 2건과 열녀도 2건이다[<표 3-6> 참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공주목에 효자 4인과 열녀 3인이 기록되어 있다. 효자로 정문(旌門)된 4인 가운데 향덕은 신라의 인물이고, 이복(李福)·이장생(李長生)·강성(姜成)은 모두 고려조 인물이다. 열녀는 정자구(鄭自求)의 처 고씨(高氏), 양한필(梁漢弼)의 처 고씨(高氏), 장증문(張曾文)의 처 김씨(金氏)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실록』에서도 확인된다. 단, 정자구의 처 고씨가 『승람』에서는 고려조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양한필의 처 고씨와 장증문의 처 김씨의 명정시기가 각각 금상(今上-중종) 18년, 23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록』의 기사와 비교해 볼 때, 착오가 있는 듯 하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표 3-5> 역대 『실록』에 기록된 공주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 거
1420	공주	縣監 鄭白丘 妻 高氏	열녀(수절)	정문·급복	『세종실록』 7, 2/1/경신
	공주	前判撫山縣事 林暮	효자	상직	
1428	공주	朴漢生 妻 鄭氏	열녀(수절)		『세종실록』 42, 10/10/병오
1431	공주	金參 妻 朴氏	절부(수절· 효부)	복호	『세종실록』 54, 13/10/기미
1519	공주	高麗 正言 李存吾	충절	정려	『중종실록』 33, 13/6/갑술 『중종실록』 35, 14/1/신유
1526	공주	梁漢弼 妻 高氏	열녀(절개)	정문·복호	『중종실록』 56, 21/1/병오
1529	공주	張曾文 妻 金氏	열녀(절개)	정문·복호	『중종실록』 65, 24/6/임오
1592	공주	僧 靈圭	충신(義烈)	증직	『선조실록』 26, 25/8/무자
1681	공주	梅德	열녀(수절· 효부)	면천(3대)	『숙종실록』 12, 7/11/신해
1755	공주	朴震龜	효자(호환복 수)	복호	『영조실록』 85, 31/9/임신
1788	공주	參判 申翊隆, 贈大司憲 申曼	충·효	정문 (忠孝之門)	『정조실록』 25, 12/4/병신
1796	(공주)	柳智傑	충절(순절)	정려	『정조실록』 45, 20/11/갑진
1807	공주	士人 閔彦洙	효자	증직	『순조실록』 10, 7/3/기미
	공주	閔彦洙 妻 朴氏	효부	급복	
1812	공주	故府使 柳晦源 妻 金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15, 12/3/을유
	공주	故士人 李翼善 妻 韓氏	열녀	정려	
	공주	故士人 尹搏	효자	증직	
1814	공주	贈參判 崔相奎 妻 文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17, 14/9/임진
1816	공주	贈佐郎 金應礪	효자	정문	『순조실록』 19, 16/6/병진
1817	공주	士人 愼維天	효자	정려	『순조실록』 20, 17/3/정사
	공주	贈正郎 崔益恒	효자(5부자)	정려	
	공주	崔益恒 子 生員 崔道觀		증직	
	공주	崔益恒 子 崔迪觀		증직	
	공주	崔益恒 子 崔遠觀		복호	
	공주	崔益恒 子 崔運觀		복호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 거
1822	공주	故土人 閔鎭運	효자	증직	『순조실록』 25, 22/3/병진
	공주	故府使 閔鎭綱	효자	정려	
1832	공주	故土人 李晶遠 妻 吳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32, 32/4/기축
	공주	生員 韓得衍 妻 朴氏	열녀	정려	

<표 3-6>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공주시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 綱行實圖	孝子圖	卷一	公州	신라	向德	向德刳髀
	孝子圖	卷八	公州	조선	定虜衛李蓋臣	蓋臣斷指
	烈女圖	卷二	公州	조선	梁漢弼妻高氏	高氏縊死
	烈女圖	卷二	公州	조선	張曾文妻金氏	金氏不汚

『여지도서』 공주목에는 충신 11인, 효자 15인, 절효녀 1인, 열녀 12인, 효부 2인, 열부 1인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승람』의 효자 4인과 열녀 3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여지도서』의 효열기록이 『승람』의 효열기록을 참조하고, 여기에 추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공주목읍지」 인물조에는 충신 11인, 효자 16인, (淸白 2인), 절효녀(節孝女) 1인, 열녀 13인, 효부 2인, 열부 2인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여지도서』의 내용에 수 명을 추가한 것이다.

1858년(철종 9)에 편찬되어 1859년(철종 10)에 간행된 『공산지(公山誌)』는 공주의 읍지이다. 『공산지』는 1757년(영조 33)에 편찬되었다고 짐작되는 구지(舊誌)와 1639년(인조 17)에 편찬되어 추가로 기록되고 있던 「읍선생안(邑先生案)」이 토대가 되었는데, 공주의 장보(章甫)인 임정회(林挺會) 이익향(李翼享) 오흠(吳欽) 노기웅(盧基雄) 등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 8인의 유생들이 참여하여 편찬되었으며, 이를 간행한 공주목사는 김응근(金應根)이다. 이 『공산지』에는 충훈(忠勳) 21인, 효자질구지(孝子秩舊誌) 14인, 신증효질(新增孝秩) 31인, 구지절효녀(舊誌節孝女) 2인, 신구열녀질(新舊烈女秩) 35인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충·효·열 인물이 대폭 추가·보완된 『공산지』는 공주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표 3-7> 『여지도서』에 수록된 공주시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공주목	충신	禹從吉	증직	임진왜란
공주목	충신	柳珩	증직	임진왜란 관리로 참전
공주목	충신	鄭天卿	증직	임진왜란 창의
공주목	충신	金澥	증직, 정려, 복호	임진왜란 관리로 참전
공주목	충신	僧 靈圭	충절비	임란 승병창의 금산전투 순절
공주목	충신	盧應暉		임란 조현과 함께 창의
공주목	충신	盧璫		임란 군량미 상납
공주목	충신	禹尙中	증직	임란에 왕을 호종
공주목	충신	申坡	증직	병자호란 참전
공주목	충신	禹鼎	증직	병자호란
공주목	충신	李廷煥	정문	병자호란
공주목	효자	[신라]向德		
공주목	효자	[고려]李福		
공주목	효자	[고려]李長生		
공주목	효자	姜成		
공주목	효자	金慶遠	정려, 복호	三綱行實 수록
공주목	효자	金用錫	贈秩	부모 병구환
공주목	효자	池鳳輝	請褒	부모 병구환
공주목	효자	李景高·景益	증직	
공주목	효자	禹聖瑞	증직	斷指
공주목	효자	崔礪	정려	부모 병구환
공주목	효자	林彦升		
공주목	효자	朴重澤	증직	화제에 신주와 모친 구출
공주목	효자	崔湜	給復	
공주목	효자	崔益恒	증직	
공주목	효자	柳善基	증직	
공주목	절효녀	盧尾生 妻 鄭召史	정려	斷指, 三年侍墓
공주목	열녀	[고려]縣監 鄭白求 妻 高氏		
공주목	열녀	梁漢弼 妻 高氏		
공주목	열녀	張曾丈 妻 金氏		
공주목	열녀	禹鼎 妻 金氏	공인 증직	병자호란에 殉節
공주목	열녀	李世命 女 李氏	정려	殉節
공주목	열녀	崔百福 妻 權氏	정려	殉節
공주목	열녀	李元彬 妻 尹氏	급복	殉節
공주목	열녀	尹懿 妻 金氏	정려	남편이 임인무욕으로 죽자 三年侍墓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공주목	열녀	柳就章 妻 李氏	정려	남편이 임인무욕으로 죽자 三年侍墓
공주목	열녀	柳善基 妻 李氏	정려	남편이 임인사화로 죽자 殉節
공주목	열녀	金弘淵 妻 盧氏	정려	아이를 키우고 殉節
공주목	열녀	李度仁 妻 金氏	給復戶	殉節
공주목	효부	朴熙宗 妻 洪氏	復戶	화재에 신주를 구해냄
공주목	효부	賤人 趙善同 妻 金召史	정려	守節, 시아버지 병구환
공주목	열부	崔性源 妻 姜氏	정려	호란에 殉節

의 충·효·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조선후기의 공주읍지 가운데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호서읍지』(1871)의 「공주지」에는 제5권에 충신 11인, 충훈(忠勳) 21인이 기록되어 있고, 제6권에 효자질구지(孝子秩舊誌) 15인, 신증효(新增孝) 31인, 구지절효녀(舊誌節孝女) 2인, 신구열녀질(新舊烈女秩) 35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공산지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공주군지로는 1922년에 편집하여 1923년에 간행한 『공산지(公山誌)』와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충청남도 공주군편이 있다. 일제 강점기 『공산지』의 간행은 일찍이 1859년에 간행된 『공산지』가 64년이 지나 연혁의 변천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현규(朴顯圭) 등이 지역의 장보들이 함께 의논하고 군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공산지』에는 충신 30인, 훈신(勳臣) 18인, 절의(節義) 9인, 효행에 효자 142인, 효녀 9인, 열행(烈行) 65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환여승람』의 공주군편에는 정려조가 설정되어 있어서, 15기의 정려가 소개되어 있고, 충신 31인, 절의 6인, 효자 64인, 효녀 2인, 효부 9인, 정렬(貞烈) 71인, 여행(女行) 3인이 기록되어 있다.

1988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2집 공주군편에는 공주의 충·효·열 정려 30기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충에 관한 것이 10기(6기는 충신 1인, 1기는 고간원, 1기는 충신 3인, 1기는 충신·효자 각 1인, 1기는 충신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1인·충신효자 1인), 효에 관한 것이 15기(9기는 효자 1인, 1기는 효자 2인, 1기는 효자 3인, 1기는 효부 1인, 1기는 충신·효자 각 1인, 1기는 충신 1인·충신효자 1인, 1기는 열녀 2인·효부 1인), 열에 관한 것이 8기(6기는 열녀 1인, 1기는 절부, 1기는 열녀 2인·효부 1인)이다.

이상의 문헌을 통해 확인된 공주에서 정려가 건립된 사례는 92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주시에 정려가 현존하는 것은 15건에 불과하다. 공주시를 벗어난 인근의 다른 고을에서 확인된 5건의 정려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문헌상 정려 건립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지 않는 것이 70여건에 달한다.

<표 3-8> 문헌에서 확인된 공주시의 정려

유형	인 물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공산지	현존여부	비 고
충신	李存善	○						※	태안군 남면 신양리 (忠靈祠內)·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충신	金澥		○	○	○		○	○	임진왜란 관리로 참전
충신	李廷煥		○	○	○		○		병자호란
충신	申砮						○		
충신	鄭之產						○	○	
충신	禹尙中				○		○		
충신	參判 申翊隆	○					○		申曼과 忠孝之門
충신	李愬						○		
충신	金時山						○	○	
충신	金忠秀						○		
충훈	朴光烈				○				
충훈	廬應暉				○		○		
충훈	朴士振				○		○		
충훈	柳智傑	○			○		○	○	정조 20년
훈신	劉碩暹						○		
충훈	朴廷濟				○				
효자	李張生				○		○		
효자	姜成			○	○		○		
효자	池鳳輝				○			※	천안군 광덕면 신흥리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유형	인 물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공산지	현존여부	비 고
효자	李景高・景益			○	○		○	※	연기군
효자	柳善基			○	○		○		
효자	贈人司憲 中曼	○					○		
효자	金慶遠		○	○	○		○	○	三綱行實 수록
효자	尹彬						○	○	
효자	鄭以載						○	○	
효자	崔碑		○	○	○				부모 병구환
효자	林尙穰				○		○		
효자	黃春櫛						○	○	
효자	成駿德				○		○		
효자	崔潑				○		○		
효자	閔桓				○		○		
효자	李玖相				○		○	○	
효자	林自儀・太先 兄弟				○		○	※	연기군
효자	金應礪				○		○		
효자	士人 愼維天	○					○		1817년(순조 17)
효자	閔枰						○		
효자	尹搏						○		
효자	李秘						○		
효자	劉景鎭						○		
효자	劉完柱						○		
효자	鄭東臣						○		
효자	朴柱殷						○		
효자	李基遠						○		
효자	李勉壽						○		
효자	金永聲						○	○	
효자	尹稷						○		
효자	贈正郎 崔益恒	○							1817년(순조 17)
효자	府使 閔鎭綱	○			○		○		1832년(순조 32)
효녀	盧尾生 妻 鄭召史		○				○	×	斷指, 三年侍墓
효녀	金挺五之家				○		○	×	
절효	盧尾生 妻 鄭召史			○	○			×	
열녀	李元彬 妻 尹氏			○	○		○	×	
열녀	李漢祥 妻 朴氏			○	○		○	×	
열녀	趙仁植 妻 林氏						○	×	
열녀	盧美 妻 鄭氏						○	×	
열녀	縣監 鄭自丘 妻 高氏	○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유형	인 물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공산지	현존여부	비 고
열녀	李世命 女 李氏		○	○	○		○	×	殉節
열녀	高希舜 妻 吳氏				○		○	×	
열녀	梁漢弼 妻 高氏	○						×	
열녀	張曾文 妻 金氏	○						×	
열녀	崔百福 妻 權氏		○	○	○		○	○	殉節
열녀	府使 柳晦源 妻 金氏	○						○	
열녀	士人 李翼善 妻 韓氏	○					○	×	
열녀	贈參判 崔相奎 妻 文氏	○						×	
열녀	參判 尹愨 妻 金氏		○	○				○	임인무옥에 남편 죽자 三年侍墓
열녀	柳就章 妻 李氏		○	○	○		○	×	임인무옥에 남편 죽자 三年侍墓
열녀	柳善基 妻 李氏		○	○	○		○	×	남편이 임인사화로 죽자 殉節
열녀	金弘淵 妻 盧氏		○	○	○		○	×	아이를 키우고 殉節
열녀	賤人 趙善同 妻 金召史		○	○				×	守節, 시아버지 병구완
열녀	崔性源 妻 姜氏		○	○			○	×	호란에 殉節
열녀	士人 李晶遠 妻 吳氏	○			○			×	1832년(순조 32)
열녀	生員 韓得衍 妻 朴氏	○			○		○	×	1832년(순조 32)
열녀	進士 韓宗煥 妻 禹氏			○	○		○	×	
열녀	李奎亮 妻 南氏				○		○	×	
효부	吳夢說 妻 成氏				○		○	○	
열녀	申翊隆 妻 韓氏				○		○	×	
열녀	申旻 妻 洪氏				○		○	×	
열녀	進士 鄭祐榮 妻 尹氏				○		○	×	
열녀	金龍甲 妻 金氏				○		○	×	
열녀	柳海源 妻 金氏				○		○	×	
열녀	崔錫晉 妻 慶氏				○		○	※	연기군에서 수십년전 허물어짐
열녀	崔擎日 妻 李氏				○		○	×	
열녀	林尙謙 妻 李氏				○		○	×	
열녀	李宗石 妻 鄭氏				○		○	×	
열녀	李聖遇 妻 李氏				○		○	×	
열녀	金源發 妻 李氏				○		○	○	
열효	趙善同 妻 金召史				○		○	×	
열녀	崔喃 妻 崔氏						○	×	
열녀	金忠秀 妻 羅氏						○	×	
열녀	陳喆圭 妻 閔氏						○	×	
열녀	金城燦 妻 宋氏						○	×	
열녀	林亨淳 妻 陳氏						○	×	

3. 보령시

보령시는 1914년에 보령군·남포군·오천군이 통합되어 보령군이 되었고, 1986년에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되면서 대천시와 보령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통합되어 보령시가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이전 보령시의 역사는 보령군·남포군·오천군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보령은 삼한시대의 만로국(萬盧國)이었고, 백제때는 신촌현(新村縣) 또는 사촌(沙村)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666년(문무왕 6)에 웅진도독부가 설치되면서 결성군(潔城郡) 신읍현(新邑縣)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는 941년(태조 24)에 보령이라 하였고, 1018년(현종 9)에 홍주라 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보령에 현감을 두었고, 1662년(현종 3)에는 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1665년(현종 6)에는 다시 현으로 강등시켰다. 그 후 1895년의 지방관할 개편에 따라 보령군이 되었다.

남포는 1018년(현종 9)에 가림(嘉林)에 속하였고, 뒤에 감무를 두었으며, 1398년(태조 7)에 병마사를 두었고, 1467년(세조 13)에는 진(鎭)을 파하고 현감을 두었다.

오천군은 1901년 충청수영을 중심으로 신설된 고을이다. 이 지역에는 1466년(세조 12)에 충청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되었는데, 당시의 지명은 회이포(回伊浦 : 현재의 보령군 금신면 지역)였다. 당시 이곳에 주둔했던 수군병력은 3000여명에 이르렀으며, 한말까지 충청 서해안의 수군과 조운을 관장하는 웅부로 존재하다가 1895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 후 이 지역에 오천군(鰲川郡)이 설치되었다가 1914년 보령군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보령시와 관련있는 지명은 만로국(萬盧國)·신촌현(新村縣)·사촌(沙村)·신읍현(新邑縣)·보령현·보령도호부·보령군·가림(嘉林)·남포·회이포(回伊浦)·오천군(鰲川郡)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보령시와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가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령시의 충·효·열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31년(세종 13)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보령시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보령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3건(효자 2건, 열녀 1건), 남포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4건(효자 4건)으로 모두 7건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표 3-9> 역대 『실록』에 기록된 보령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31	보령	卍勿伊	열부(守節, 三年喪)	복호	『세종실록』 54, 13/10/기미
1433	남포	全由義	효자(侍墓)	복호·서용	『세종실록』 60, 15/6/임오
1808	보령	金夢說	효자	급복	『순조실록』 11, 8/6/을사
	남포	通德郎 李巾達	효자	정려	『순조실록』 11, 8/8/기유
1814	남포	通德郎 李基商	효자	증직	『순조실록』 17, 14/9/임진
1822	남포	通德郎 李基周	효자	정려	『순조실록』 25, 22/3/병진
1831	보령	士人 李朝源 妻 沈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32, 31/7/갑자

조선시대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숙·동국신속 포함)에는 보령시의 인물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지리지에 보령시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조선후기의 읍지부터이다. 조선초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충·효·열 인물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보령현에 8인(효 5, 열 3), 남포현에 8인(효 7, 열 1)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보령현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4건, 증직이 2건이며, 남포현은 8인 모두가 정려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표 3-10> 참조].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보령현지」 인물조에는 효자 7인, 열녀 4인이 기록되어 있고, 「남포현지」에는 효자 7인, 열녀 1인이 수록되어 있다.

『호서읍지』(1871)와 『[호서]읍지』(1895)에도 「보령현읍지」에 효자 7인, 열녀 4인, 「남포현지」에 효자 7인, 열녀 1인이 수록되어 있어, 『충청도읍지』의 인물조를 그대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표 3-10> 『여지도서』에 수록된 보령시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보령현	효자	徐漢慶	정려	斷指
보령현	효자	申光濟	증직	斷指
보령현	효자	李之稔	증직	
보령현	효자	李濟連	증직	
보령현	효자	金會慶		
보령현	열녀	具益壽 妻 金氏	정려	殉節
보령현	열녀	申濬 妻 鄭氏	정려	
보령현	열녀	金夢虎 妻 李氏	정려	殉節
남포현	효자	黃廷直	정려	
남포현	효자	黃有業	정려	
남포현	효자	朴承健	정려	
남포현	효자	朴承休	정려	
남포현	효자	李馨元	정려	
남포현	효자	李善元	정려	
남포현	효자	朴世冑	정려	지극한 효성으로 병구환
남포현	열녀	任聖舜 妻 吳氏	정려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보령시의 정려사례는 17건이다.

<표 3-11> 문헌에서 확인된 보령시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비 고
효자	徐漢慶	보령현		○	○	○	○	斷指
효자	士人 金演	보령현			○	○	○	
효자	通德郎 李中達	남포현	○					
효자	通德郎 李基周	남포현	○					
효자	黃廷直	남포현		○	○			
효자	黃有業	남포현		○	○			
효자	朴承健	남포현		○	○	○	○	
효자	朴承休	남포현		○	○	○	○	
효자	李馨元	남포현		○	○			
효자	李善元	남포현		○	○			
효자	朴世冑	남포현		○	○	○	○	지극한 효성으로 병구환
열녀	具益壽 妻 金氏	보령현		○	○	○	○	殉節
열녀	具孝閔 妻 李氏	보령현			○	○	○	
열녀	申濬 妻 鄭氏	보령현		○	○	○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비 고
열녀	金夢虎 妻 李氏	보령현		○	○	○	○	殉節
열녀	士人 李朝源 妻 沈氏	보령현	○					
열녀	任聖舜 妻 吳氏	남포현		○	○	○	○	

4. 아산시

아산시는 1914년에 온양군·아산군·신창군이 통합되어 아산군이 되었고, 1986년에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되면서 온양시와 아산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통합되어 아산시가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이전 아산시의 역사는 아산군·온양군·신창군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아산은 백제 때의 지명 아술(牙述)에서 변화된 이름이며, 신라의 영역이 된 뒤 경덕왕 때 음봉현(陰峯縣) 또는 음잠현(陰岑縣)으로 개칭되어 탕정군(湯井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음봉현은 고려초에 인주(仁州)로 고치고, 1018년(현종 9)에는 천안부에 소속시켰으며, 뒤에 아주(牙州)로 고쳐 감무(監務)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아주를 아산(牙山)으로 고치고 현감을 임명하였으며, 1458년(세조 4)에 아산현을 온양·평택·신창에 나누어 소속시켰다가, 1464년에 다시 아산현으로 복구시켰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아산현이 경기도에 이속되었다가, 중종초에 충청도에 소속되었다. 1895년 홍주부 소속 아산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 충청남도 온양군이 되었다.

온양은 백제의 탕정군(湯井郡)인데, 삼국통일 후 671년(문무왕 11) 탕정주(湯井州)로 승격되어 총관이 임명되었다가, 681년(신문왕 1)에는 다시 탕정군으로 격하시켜 웅주(熊州)에 예속시켰다. 고려시대에는 940년에 탕정군을 온수군(溫水郡)으로 개칭하였고, 1018년(현종 9)에 천안부에 예속시켰으며, 1082년(문종 36) 문종이 이곳으로 행차하였고, 1172년(명종 2)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414년(태종 14)에 신창과 병합하여 온창이라고 개칭하였다가, 1416년에 다시 나누어서 온수라 하고 현감을 두었으며, 1442년(세종 24)에는 세종의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온천 행행 후 온수현을 온양(溫陽)으로 고치고 군으로 승격시켰다. 1895년 홍주부 온양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 충청남도 온양군이 되었다.

신창은 백제 때 굴직현(屈直縣)이라 하였고, 신라의 영역이 되면서 757년(경덕왕 16)에 기량현(祈梁縣, 또는 祁梁縣)으로 고쳐 탕정군의 영현이 되었다. 기량현은 고려초 940년(태조 23)에 신창현(新昌縣)으로 고치고, 탕정군도 온수군(溫水郡)으로 고쳐 1018년(현종 9)에 천안부에 소속시켰다. 1391년(공양왕 3)에 이 현 서쪽 장포(獐浦)에 성을 쌓고서 당성(塘城)이라 이름하고, 부근 주현(州縣)의 조세를 이곳에서 수납하여 해상으로 서울에 수송하였다. 이에 따라 이곳에 만호 겸 감무를 두었던 것을 1392년(태조 1)에 만호는 없애고, 1414년(태종 14)에 온수와 병합하여 온창이라 하였다가, 1416년에 다시 온수현과 신창현으로 나누고 각기 현감을 두었다. 1895년 홍주부 소속 신창군이 되었다가, 1896년 충청남도 신창군이 되었다.

따라서 아산시와 관련있는 지명으로는 아술(牙述)·음봉현(陰峯縣)·음잠현(陰岑縣)·인주(仁州)·아주(牙州)·아산현(牙山縣)·아산군, 온양군·탕정군(湯井郡)·탕정주(湯井州)·온수군(溫水郡)·온창·온수현·온양군(溫陽郡), 굴직현(屈直縣)·기량현(祈梁縣, 祁梁縣)·신창현(新昌縣)·신창군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아산시와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아산시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13년(태종 13)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아산시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아산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4건(충신 1건, 효자 1건, 효녀 1건, 열녀 1건), 온양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6건(충신 1건, 효자 2건, 열녀 1건, 열부 1건, 효부 1건), 신창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1건(효자 1건), 아산시 지역으로 추정되는 포장사례 4건(충신 2건, 효자 1건, 열녀 1건)으로 모두 15건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표 3-12> 역대 『실록』에 기록된 아산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13	온수	戶曹義郎 李克壽 妻 吳氏	열부(守節)	정려	『태종실록』 25, 13/2/병진
1428	온수	任山壽	효자(侍墓)	포상논의	『세종실록』 42, 10/10/병오
1431	온수	姜訥의 妻	열녀(守節)	복호	『세종실록』 54, 13/10/기미
1559	아산	正兵 尹世文 女 玉只	효녀	복호	『명종실록』 25, 14/4/임인
1666	(온양)	姜鳳壽	효자	정문	『현종개수실록』 15, 7/4/병자
1681	(아산)	沈諧 妻 鄭氏	열녀	정려	『숙종실록』 11, 7/6/신해
1704	(아산)	李堯	충신	정려	『숙종실록』 39, 30/7/계해
1731	아산	李鳳祥	충신		『영조실록』 29, 7/2/임인
1804	(아산)	李弘茂	충절	추증	『순조실록』 6, 4/4/계유
1807	신창	士人 李廷禧	효자	급복	『순조실록』 10, 7/11/무신
1814	아산	士人 朴履和	효자	증직	『순조실록』 17, 14/9/임진
	온양	士人 姜玳	충신(역적토벌)	증직	『순조실록』 17, 14/9/임진
1822	온양	李培夏 妻 南氏	효부	정려	『순조실록』 25, 22/3/병진
1832	아산	學生 金昌漢 妻 姜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32, 32/4/기축
	온양	士人 金命性	효자	증직	『순조실록』 32, 32/4/기축

조선시대의 윤리서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삼강도에도 아산시의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아산현 충·효·열 인물은 충신 1인, 열녀 1인이고, 온양군 인물은 효자 3인으로 총 5인이다.

<표 3-13>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아산시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 卷一	牙山	조선	統制使 李舜臣	舜臣力戰
	孝子圖 卷一	溫陽	조선	提學 孟希道	希道負上
	孝子圖 卷一	溫陽	조선	左議政 孟思誠	思誠孝感
	孝子圖 卷一	溫陽	조선	參奉 姜麟壽	麟壽斷指
	烈女圖 卷二	牙山	조선	恭愍翁主	翁主節行

지리지에 아산시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승람』 온양군에 여말선초의 인물인 효자 맹희도(孟希道)가 정려를 받았다는 기록이 처음이다. 그러나 맹희도의 효행행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인근 고을인 신창현의 인물조에 자세하다고 적혀 있는데, 신창현 인물조에도 맹희도와 그의 아들 맹사성의 행적이 나와 있으나, 효행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아산현에 19인(충신 5, 효자 8, 열녀 6), 신창현에 14인(충신 3, 효자 5, 효부 2, 열녀 4), 온양군에 27인(효자 20, 효부 2, 효녀 2, 열녀 3)이 기록되어 있다. 아산현의 경우 충신·효자·열녀조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인물조에 포함되어 있다. 아산현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11건, 증직이 7건이며, 신창현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12건, 증직이 2건인데, 증직 2건은 정려도 받은 인물이고, 온양군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11건, 증직 5건(1건은 정려도 받은 경우), 복호가 3건이다.

<표 3-14> 『여지도서』에 수록된 아산시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아산현	충신	李舜臣	정려, 현충사(숙종정해), 증직	임진왜란
아산현	충신	李莞	증직, 정려, 현충사	임진왜란
아산현	충신	李鳳祥	증직, 시호, 정려, 사우	무신란 순절
아산현	충신	李弘茂	정려	이봉상과 함께 殉節
아산현	충신	朴大恒	증직, 정려(숙종)	병자호란 참전
아산현	효자	金鉉	정려(숙종)	정축란에 아버지 보호하고 죽음
아산현	효자	金孝一	증직(현종)	斷指, 모상에 상심하다 죽음
아산현	효자	尹就殷	參奉 除授	至孝함을 어사가 왕에게 아뢰
아산현	효자	洪棗	증직(현종)	至孝로 벼슬 제수(거절)
아산현	효자	權愈	정려, 증직	
아산현	효자	權大平	증직(현종)	斷指
아산현	효자	權祥龍·祥虎	증직(숙종 46년)	
아산현	효자	朴雷公	정려(숙종 갑오)	
아산현	열녀	監察 沈諧 妻 鄭氏	정려(인조)	정유왜란에 죽음
아산현	열녀	判決事 洪宇紀 妻 閔氏	정려(인조)	정축란에 殉節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아산현	열녀	金玆福 妻 莫介	정려	정축란
아산현	열녀	李枝確 妻 林召史	정려(인조)	정축란에 殉節
아산현	열녀	李振緒 妻 佛寬	정려(숙종 을유)	三年侍墓, 守節
아산현	열녀	官婢 李仁訥 妻 忽介	정려(금상 을유)	머리를 자르고 守節
신창현	충신	邊希一	증직(효종), 정문(숙종)	병자호란
신창현	충신	處上 閔祺壽		
신창현	충신	義上 尹承元		병자호란에 근왕
신창현	효자	金益生	정려(태종)	
신창현	효자	黃義吉	정문	병자호란에 어머니와 함께 죽음.
신창현	효자	金屋發	정문	三年侍墓
신창현	효자	吳命傑	정문	斷指
신창현	효자	河有成	정문, 증직	斷指
신창현	효부	孟喜之 妻 趙氏	정문(현종)	
신창현	효부	宣傳官 吳平彬 妻 鄭氏	정려(병진)	嘗糞, 斷指
신창현	열녀	黃禹延 妻 朴氏	정문(인조)	병자호란에 殉節
신창현	열녀	店人 妻 良女 奉春	정문(인조)	병자호란에 殉節
신창현	열녀	金召史	정려(기유)	殉節
신창현	열녀	私婢 順陽	정려	殉節
온양군	효자	[고려] 孟希道	삼강행실	居喪
온양군	효자	孟思誠	삼강행실, 해동명신록	居喪廬墓
온양군	효자	姜麟壽	정려(선조)	廬墓 3년
온양군	효자	姜鳳壽	정려	
온양군	효자	李○		
온양군	효자	○守精	정려	
온양군	효자	參奉 趙相禹	정려(현종)	
온양군	효자	趙爾後		
온양군	효자	趙爾翻	증직(현종), 정려(영조)	
온양군	효자	尹大亨		
온양군	효자	尹根	증직	
온양군	효자	尹倪	증직	
온양군	효자	高義及	급복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온양군	효자	私奴 鄭信	정려	
온양군	효자	相男	정려	
온양군	효자	僕溶	증직	
온양군	효자	李東		
온양군	효자	尹焜		
온양군	효자	林右彦	복호	
온양군	효자	柳世權	증직(숙종)	
온양군	효부	孟喜 妻 楊州趙氏		
온양군	효부	林右彦 妻 李氏	褒嘉	
온양군	효녀	王氏	정려	
온양군	효녀	丁氏	정려	
온양군	열녀	李氏	정려	
온양군	열녀	愛忉	정려	
온양군	열녀	李元彬 妻 尹氏	복호(영조)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온양군지」 충·효·열 인물조에는 효자 20인, 효부 2인, 효녀 2인, 열녀 3인이 기록되어 있고, 「신창현지」에는 충신 2인, 효자 5인, 효부 2인, 열녀 4인이 기록되어 있다. 『충청도읍지』에는 1819년에 간행된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아주현에는 충신 4인, 효자 13인, 열녀 12인이 있다. 「신정아주지」의 충·효·열 인물조는 인물의 행적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호서읍지』(1871)에는 「온양군읍지」와 아산현읍지인 「아주지(牙州誌)」와 「신창현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충·효·열 인물조는 모두 『충청도읍지』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호서]읍지』(1895)에는 「신창현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온양군읍지」와 「신정아주지」의 충·효·열 인물의 수는 『충청도읍지』와 동일하다.

1991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5집 온양시·아산군편에는 모두 23기의 정려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충과 관련된 것이 3기(1기는 충신 1인, 1기는 충신 4인과 효자 1인, 1기는 열녀·충비 각 1인), 효와 관련된 것이 16기(10기는 효자 1인, 1기는 효자 3인과 효부 1인, 3기는 효부, 1기는 충신 4인과 효자 1인, 1기는 효열부), 열과 관련된 것이 7기(5기는 열녀 1인, 1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기는 열녀·충비 각 1인, 1기는 효열부)이다.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아산시의 정려사례는 모두 42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산시에 현존하는 정려는 12건에 불과하다.

<표 3-15> 문헌에서 확인된 아산시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호서] 읍지	현존 여부	비 고
충신	邊希一	신창현		○	○	○		×	병자호란
충신	李弘茂	아산현		○	○	○	○	○	이봉상과 함께 殉節
충신	李鳳祥	아산현	○	○	○	○	○	○	무신란 殉節
충신	李莞	아산현	○	○	○	○	○	○	임진왜란
충신	李舜臣	아산현		○	○	○	○	○	임진왜란
충신	朴大恒	아산현		○				×	병자호란 참전
효자	金益生	신창현		○	○	○		○	
효자	吳命傑	신창현		○	○	○		×	斷指
효자	黃義古	신창현		○	○	○		×	병자호란에 어머니와 함께 죽음.
효자	河有成	신창현		○	○	○		×	斷指
효자	金垺發	신창현		○	○	○		×	三年侍墓
효자	金鉉	아산현		○	○	○	○	○	정축란 적들로부터 아버지 보호하고 죽음
효자	朴雷公	아산현		○				×	
효자	權愈	아산현		○	○	○	○	×	
효자	李時郁	아산현			○	○	○	×	
효자	○守精	온양군		○	○	○	○	×	
효자	趙爾翻	온양군		○	○	○	○	×	
효자	相男	온양군		○	○	○	○	×	
효자	參奉 姜麟壽	온양군		○	○	○	○	○	
효자	正言 姜鳳壽	온양군	○	○	○	○	○	○	
효자	私奴 鄭信	온양군		○	○	○	○	×	
효자	參奉 趙相禹	온양군		○	○	○	○	×	
효녀	丁氏	온양군		○	○	○	○	×	
효녀	王氏	온양군		○	○	○	○	×	
효부	李培夏 妻 南氏	온양군	○					○	
효부	孟喜 妻 趙氏	신창현		○	○	○		○	
효부	宣傳官 吳平彬 妻 鄭氏	신창현		○	○	○		×	嘗糞, 斷指
열녀	金召史	신창현		○	○	○		×	殉節
열녀	私婢 順陽	신창현		○	○	○		×	殉節
열녀	黃禹延 妻 朴氏	신창현		○	○	○		×	병자호란에 殉節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호서] 읍지	현존 여부	비 고
열녀	店人 妻 良女 奉春	신창현		○	○	○		×	병자호란에 殉節
열녀	監察 沈諧 妻 鄭氏	아산현	○	○	○	○	○	○	정유왜란에 殉節
열녀	金弘福 妻 莫介	아산현		○				×	정축란
열녀	判決事 洪宇紀 妻 閔氏	아산현		○	○	○	○	○	정축란에 殉節
열녀	官婢 李仁訥 妻 忽介	아산현		○	○	○	○	×	머리를 자르고 守節
열녀	李振緒 妻 佛寬	아산현		○	○	○	○	×	3년시묘, 守節
열녀	李枝確 妻 林召史	아산현		○	○	○	○	×	정축란에 殉節
열녀	學生 金昌漢 妻 姜氏	아산현	○					×	
열녀	金石福 妻 莫介	아산현			○	○	○	×	
열녀	戶曹義郎 李克壽 妻 吳氏	온수현	○					×	
열녀	李氏	온양군		○	○	○	○	×	
열녀	愛忉	온양군		○	○	○	○	×	

5. 서산시

현재의 서산시는 1995년의 행정구역 통합에 의해, 1989년에 서산군의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된 서산시와 서산군이 다시 합쳐진 것이다. 서산군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개편에 의해 서산군·태안군·해미군이 합쳐지면서 서산군으로 되었었는데, 1989년에 태안군이 분리(分離)·복군(復郡)되고,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되면서 서산군과 서산시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태안군을 제외한 서산시·군만이 서산시로 통합된 것이다.

서산지역에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치리국국(致利鞠國)이 있었으며, 백제 때에는 지육현(之六縣), 신라 때에는 지육현(地育縣)이 있었다. 서산시내 지역은 백제때 기군(基郡)이었고, 신라 때에는 부성군(富城郡)이었다. 1144년(인종 22) 부성군은 현으로 강등되었고, 1182년(명종 12) 호장(戶長)이 역모를 꾀하다 발각됨으로써 군을 폐하고 운주에 이속시켰다. 1284년(충렬왕 10) 읍인(邑人) 정인경(鄭仁卿)이 왜구침입 때 큰 공을 세워 서산군으로 승격, 지군사를 두었으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며, 1308년(충렬왕 34) 다시 서주목(瑞州牧)으로 승격하였고, 1310년(충선왕 2) 서령부(瑞寧府)가 되었으나 뒤에 지서주사(知瑞州事)로 강등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서산이 군으로 복구되었으나, 1695년(숙종 21)에는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뒤에 복구되었다.

해미지역에는 고려 태조 때 고구현(高丘縣)을 설치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9)에 운주에 속하였다가 1407년(태종 7) 정해현(貞海縣)과 여미현(餘美縣)이 합쳐져 해미라 불리웠다. 정해현은 고려 태조 때 몽웅현(夢熊縣)의 아전 한씨(韓氏)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大匡)의 작호를 내리고 홍주(洪州)의 속현이었던 고구현(高丘縣)을 분할하여 정해현으로 만들어서 그의 본관(本貫)으로 삼았다. 1018년(현종 9) 운주(運州)에 붙혔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여미현은 본래 백제의 여촌현이었는데, 통일신라 때인 757년(경덕왕 16) 여읍(餘邑)으로 고쳐 혜성군(槿城郡)의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초기에 다시 여미라 고쳤으며, 1018년 운주에 붙혔고, 1106년(예종 1)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07년(태종 7) 정해·여미 두 현을 합하여 해미로 고치고 정해를 그 치소로 삼았고, 1413년 현감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해미가 군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 서산군에 병합되었다. 한편 1957년에는 정미·대호지 2개면을 당진군으로 편입하였고, 1973년에는 당진군 정미면 여미리를 서산군 운산면에 편입하였으며, 1983년에는 고북면 대사리를 홍성군 갈산면에 편입하여 영역조정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서산시와 관련이 있는 지명은 지육현(知六縣, 地育縣)·기군(基郡)·부성군(富城郡)·부성현(富城縣)·서산군(瑞山郡)·서주목(瑞州牧)·서령부(瑞寧府)·서주(瑞州)·고구현(高丘縣)·정해현(貞海縣)·여촌현(餘村縣)·여읍현(餘邑縣)·해미현(海美縣)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서산시와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서산시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20년(세종 2)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서산시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서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4건(충신 1건, 효자 2건, 열녀 1건), 해미현의 충·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효·열 포장사례 5건(효자 4건, 열녀 1건)으로 모두 9건이다.³¹⁾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6> 역대 『실록』에 기록된 서산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20	해미	別將 林雨	효자	서용	『세종실록』 7, 2/1/경신
	해미	海美船軍 林上左	효자(侍墓)	정려, 급복	『세종실록』 7, 2/1/경신
	해미	幼學 鄭安義	효자	서용	『세종실록』 7, 2/1/경신
	서산	私奴 莫金 妻 召史	열녀(侍墓)	정려, 급복	『세종실록』 7, 2/1/경신
1710	해미	私婢 信香 子 五男	효자(負母)	정려	『숙종실록』 48, 36/10/신사
1744	서산추정	參奉 金可近	효자	정려	『영조실록』 60, 20/9/병신
1803	서산추정	連山縣監 金弘翼	충신(內子戰死)	후손녹용	『순조실록』 5, 3/9/을미
1807	해미	上人 金昇柱 妻 鄭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10, 7/11/무신
1832	서산	士人 崔萬澄	효자	증직	『순조실록』 32, 31/7/갑자

조선시대의 윤리서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서산시와 관련된 인물로 「충신도」에 정신보와 유숙 2인이 수록되어 있다.

<표 3-17>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서산시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	忠臣圖	汾一	瑞山	고려	鄭臣保	臣保渡海
綱行實圖	忠臣圖	汾一	瑞山	고려	柳淑	柳淑却馬

서산시의 지리지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충청도의 현존 읍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찬읍지(私撰邑誌)인 『호산록(湖山錄)』이 전해진다. 이 읍지는 1582년(선조 15) 서산에 부임한 고경명(高敬命) 군수의 제의에 의해 서산 사족

31) 이 가운데 서산군의 효자 김가근과 연산현감 김홍익은 『실록』에 인물의 거주지역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지에서 정려가 확인되었으므로 포함하였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한경춘(韓慶春)·현여현(韓汝賢) 부자가 1619년(광해군 11)에 편찬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금인물조(古今人物條)가 설정되어 인물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충·효·열의 구분은 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로부터 포상받은 경우도 보이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서산시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조선 후기의 관찬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해미현 인물조에서 충신으로 추정되는 2인이 있을 뿐인데, 이들의 경우에도 충신 포장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서산군 인물조에는 충·효·열의 구분 없이 총 19인이 실려 있는데, 열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수록된 인물들은 모두 충과 효를 함께 실천한 경우이며, 국가로부터 포장받은 사적은 보이지 않는다. 「해미현지」에도 충·효·열 구분이 없이 인물조에 2인이 수록되어 있는데, 행적으로 보아 충신으로 생각된다.

『호서읍지』(1871)에는 「서산군지」와 「해미현지」가 있으며, 각각의 충·효·열 인물조는 모두 『충청도읍지』를 전사한 것으로, 이는 『[호서]읍지』(189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27년에 간행된 『서산군지(瑞山郡誌)』는 군수 이민녕(李敏寧)의 주도하에 1619년에 편찬된 사찬읍지 『호산록(湖山錄)』과 1901년에 편찬된 구군지(舊郡誌)를 바탕으로 발간된 것이다. 군지는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발간되었으므로, 태안군이 포함된 상태이다. 군지의 인물조에는 절신(節臣) 4인, 효행 72인, 정열 22인, 충비충노(忠婢忠奴) 3인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96년 발간된 『瑞山圈域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에는 모두 13기의 정려가 조사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정려는 1910년 이전에 건립되어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정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충과 관련된 것이 2기(1기는 충신 1인, 1기는 충·효·열 1인씩), 효와 관련된 것이 11기(9기는 효자 1인, 1기는 충·효·열 1인씩, 1기는 효자 2인), 열과 관련된 것이 2기(1기는 열녀 1인, 1기는 충·효·열 1인씩)이다.³²⁾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서산시의 정려사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16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정려가 현존하는 경우는 6건이다.

<표 3-18> 문헌에서 확인된 서산시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서산군지	현존여부	비 고
효자	參奉 金可近	서산군	○					○	○	영조 갑오년
효자	私婢 信香 子 五男	해미현	○						×	負母
효자	海美船軍 林上左	해미현	○						×	侍墓
효자	柳洽	서산						○	×	
효자	鞠賢男	서산						○	○	숙종 을해년
효자	崔達悌	서산						○	×	
효자	任協	서산						○	×	고종 계미년
효자	金鶴芳							○	○	순조 무자년
효자	李容學							○	×	고종 신사년
효자	李重國							○	×	고종 을유년
효자	李龜鎬							○	×	고종 정해년
효자	林榮柱							○	○	고종 기축년
효자	崔孝敏							○	○	순조 신묘년
효자	崔鎬周							○	○	광무 6년
열녀	土人 金昇柱 妻 鄭氏	해미현	○						×	
열녀	私奴 莫金 妻 召史	서산군	○						×	侍墓

*『서산군지』가 발간된 1927년에 서산군의 행정권역은 조선시대의 서산군, 해미현, 태안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 세 지역의 인물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인물의 거주지나 간행시의 참고자료를 통해 태안군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태안군에 포함시켰다.

6. 논산시

논산시는 1996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면서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한 것이다. 논산군은 1914년에 은진군·연산군의 전부와 노성군의 소사면을 제외한 전부, 석성군·공주군·진잠군(鎭岑郡) 등의 일부지역이 병합되어

32) 유적관련 책자로 1998년에 발간된 『문화유적분포지도-서산시-』에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건립되어 정려각이 현존하고 있는 정려 14기가 조사되었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설치되었다.

은진은 덕은(德恩)과 시진(市津)의 양현이 합쳐서 생긴 것이다. 덕은군은 본래 백제의 덕근군(德近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덕은(德殷)으로 고쳤고, 고려초에 다시 덕은(德恩)으로 고쳤다. 시진현은 본래 백제의 가지내(加知奈, 또는 加乙乃·薪浦)인데 신라 경덕왕이 시진(市津)으로 고쳐 덕은군의 영현으로 하였다. 1018년(현종 9)에 덕은과 시진을 모두 공주에 소속시켰다가, 1397년(태조 6)에 다시 현을 두었다. 1406년(태종 6)에 양현을 합하여 덕은에 감무를 두었으며, 1419년(세종 1)에 은진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1646년(인조 24)에는 이성(尼城)·연산(連山)과 합하여 하나의 현이 되었다가, 1656년(효종 7)에 다시 나뉘어졌다. 1895년(고종 32)에 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는 논산군에 병합되었다.

연산은 본래 백제의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에 황산군(黃山郡)으로 고쳤다. 940년(태조 23)에 연산으로 고쳐 현이 되었고, 1018년(현종 9)에 공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후에 감무를 두고, 1413년(태종 13)에는 현감을 두었다. 1636년(인조 14)에는 이성(尼城)·은진(恩津)과 합해서 은산현(恩山縣)이 되었다가, 1656년(효종 7)에 다시 분리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군으로 승격되어 공주부의 관할이 되었다가, 1914년에 논산군에 합하였다.

노성은 본래 백제의 열야산현(熱也山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이산현(尼山縣)으로 고쳐 웅주(熊州:지금의 공주)의 속현으로 삼았다. 1018년(현종 9)에 공주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고, 1414년(태종 14)에 석성(石城)과 합쳐 이성(尼城)이라 불리었다. 1416년에 다시 나누어서 현감을 두었고, 1646년(인조 24)에 연산(連山)·은진(恩津)과 합하여 은산현(恩山縣)이라 하였으며, 1656년(효종 7)에 각각 복구되었다. 1776년(영조 52)에 다시 이성으로 부르다가 정조초에 노성(魯城)이라 고쳤다. 1895년(고종 32)에 군으로 승격되어 공주부(公州府)에 속하였다가, 1914년 군을 폐하고 소사면은 부여군에, 그 나머지는 논산군에 병합하였다.

이 외에도 1963년에는 전라북도의 익산군 황화면을 편입하여 구자곡면의 일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부 리(里)와 합하여 연무읍으로 승격시켰고, 1989년에는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를 논산군 두마면에 편입하였으며, 1993년에는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일부를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로 편입하는 행정영역 조정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논산시와 관련된 지명은 덕근군(德近郡)·덕은군(德殷郡, 德恩郡)·가지내(加知奈, 또는 加乙乃·薪浦)·시진현(市津縣)·은진현(恩津縣)·은진군(恩津郡)·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황산군(黃山郡)·연산현(連山縣)·은산현(恩山縣)·연산군(連山郡)·열야산현(熱也山縣)·이산현(尼山縣)·이성(尼城)·노성현(魯城縣)·노성군(魯城郡)·논산군(論山郡)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논산시와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논산시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399년(정종 1)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논산시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노성현이 니산현으로 강등되었던 시기의 충·효·열 포장사례 효자 1건, 연산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5건(효자 1건, 열녀 4건), 은진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7건(효자 5건, 열녀 2건), 논산시 지역으로 추정되는 포장사례 2건(충 1건, 열녀 1건)으로 모두 15건이다. 이 가운데 이산현의 수군(水軍) 박장손(朴長孫)은 효자인 동시에 왕의 국상 때에도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하여 ‘충효’의 대우를 받았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3-19>와 같다.

<표 3-19> 역대 『실록』에 기록된 논산시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399	연산	許氏	열녀(守節)	정려, 상물	『정종실록』 2, 1/12/정유
1420	연산	及第 金問 妻 許氏	열녀(守節)	정려, 급복	『세종실록』 7, 2/1/경신
1425	은진	船軍 文成奇 妻 李德	열녀(守節)	정려, 복호	『세종실록』 28, 7/4/을축
1434	은진	李英의 子 李淡	효자(侍墓)	복호	『세종실록』 36, 16/3/기해
	은진	田錄 夫婦	효자	복호	『세종실록』 36, 16/3/기해
	은진	李亨之	효자(嘗糞侍墓)	서용	『세종실록』 36, 16/3/기해
	은진	崔寶의 子 崔尙河	효자(侍墓)	서용	『세종실록』 36, 16/3/기해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70	은진	檢中樞 姜毅의 子 姜應貞	효자(嘗冀侍墓)	정문, 복호	『성종실록』 3, 1/2/병진
	은진	學生 金繼田 妻 閔氏	열녀(侍墓)	정문, 복호	『성종실록』 3, 1/2/병진
1549	이산	水軍 朴長孫	충·효(侍墓)	정문, 복호	『명종실록』 9, 4/6/정묘
1803	(연산)	張士貞과 妻	충·열	정려개수	『순조실록』 5, 3/9/을미
1807	연산	士人 李養直	효자	증직	『순조실록』 10, 7/11/무신
1812	연산	士人 白尙準 妻 宋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15, 12/3/을유

조선시대의 윤리서에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논산시의 인물이 모두 7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효자도에 연산현 1인, 은진현 1인이고, 열녀도에 연산현 2인, 은진현 3인 등이다.

<표 3-20>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논산시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卷五	恩津	조선	監察孫汝諧	汝諧孝友
	孝子圖	卷五	連山	조선	李公謙	公謙斷指
	烈女圖	卷一	恩津	고려	文成己 妻 李氏	李氏圖形
	烈女圖	卷一	恩津	고려	金繼佃 妻 閔氏	閔氏祭墓
	烈女圖	卷一	連山	조선	士人金聞 妻 許氏	許氏守節
	烈女圖	卷二	連山	조선	孝子李公謙妻閔氏	閔氏斷指
	烈女圖	卷三	恩津	조선	官婢芷芝	芷芝懷刃

지리지에 논산시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부터이다. 은진현의 효자 강응정(姜應貞) 1인과, 열녀 문성기(文成己) 처 이씨(李氏), 김계전(金繼佃) 처 민씨(閔氏) 2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열녀 이씨는 고려조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실록』에 명정연대와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연산현에 10인(효 2, 열 8), 은진현에 14인(충 2, 효 7, 열 5), 니산현에 15인(절의 2, 효 10, 열 3)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이 기록되어 있다. 니산현의 경우 충신조 대신 절의조가 설정되어 있다. 연산현은 10인 모두가 정려를 받았고, 은진현은 정려 12건, 증직 1건, 복호 1건, 사우건립 2건인데, 증직 1건은 정려도 받은 인물이다. 니산현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10건, 증직 1건, 복호 1건이다.

<표 3-21> 『여지도서』에 수록된 논산시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연산현	효자	[신증]李公謙	정려	임진왜란 부친 대신 적에게 피살
연산현	효자	李仁淑	정려	斷指, 병자호란에 종군 전사
연산현	열녀	金問 妻 許氏	정려	자식을 기르며 수절, 삼강행실 수록
연산현	열녀	[신증]李公謙 妻 閔氏	정려	임진왜란 남편과 적에게 피살됨
연산현	열녀	李弘占 妻	정려	남편이 병자호란에 殉節
연산현	열녀	張士貞 妻 私婢 末終	정려	남편이 전사하자 殉節
연산현	열녀	私奴 白男 妻 玉尙	정려	정절을 지키려다 피살
연산현	열녀	私奴 開金 妻 四月	정려	정절을 지키려다 피살
연산현	열녀	私奴 連金 妻 寒梅	정려, 贖其二女	남편 사후 殉節
연산현	열녀	徐氏	정려	재가를 거부하고 殉節
니산현	효자	朴長孫	정문	
니산현	효자	朴尙文	정려	
니산현	효자	金重呂	정려	
니산현	효자	朴來遠	정려	
니산현	효자	都處中	정려	
니산현	효자	金禹鉉	증직	병구환, 상례
니산현	효자	金弼	정려	
니산현	효자	申益賢	정려	
니산현	효녀	楊氏		
니산현	열녀	朴東民 妻 李氏	정려	
니산현	열녀	尹宣舉 妻 李氏	정려	
니산현	열녀	生員 李永仁 妻 柳氏	복호	
니산현	절의	南武星		병자란 백의종사
니산현	절의	李垓		임진왜란 의병장 전사
은진현	효자	姜應貞	정려	嘗糞, 侍墓
은진현	효자	金延望	정려, 증직	斷指, 喪禮
은진현	효자	李惟澤	정려	喪禮
은진현	효자	李廷輔	정려	斷指, 화재
은진현	효자	李晦	정려	居喪 3년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은진현	효녀	李氏	정려	斷指, 母喪 후 죽음.
은진현	효자	李氏	복호	시어머니 병구완.
은진현	충신	楊應春	사우	
은진현	충신	金秀南	사우	
은진현	열녀	[고려]文成己 妻 李氏	정려	왜란에 남편이 죽자 조석으로 제사를 올림
은진현	열녀	金繼佃 妻 閔氏	정려	평생 제사의례
은진현	열녀	牛員 陳珽 妻 鞠氏	정려	정유왜란에 왜적을 피해 죽음
은진현	열녀	李天紀 妻 李氏	정려	
은진현	열녀	俞得祿 妻 金氏	정려	
은진현	열녀	李相甫 妻 盧氏	정려	殉節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연산현지」에는 효자 2인, 열녀 8인이 기록되어 있고, 「노성현지」에는 절의인 2인, 효자 10인, 효녀 1인, 열녀 4인이 있다. 은진현지는 『충청도읍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호서읍지』(1871)에는 「노성현지」, 「은진현지」, 「연산현지」가 있다. 그런데 노성과 연산의 충·효·열 인물조는 『충청도읍지』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은진현지」에는 충신 2인, 효자 6인, 효녀 2인, 열녀 6인이 기록되어 있다. 『[호서]읍지』(1895)에도 연산·노성·은진현지가 모두 있는데, 「노성현지」에서 효자 김화옥(金華鈺)이 빠져서 효자가 9인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서읍지』와 내용이 같다.

1990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4집 논산군편에는 모두 26기의 정려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충과 관련된 것이 3기(1기는 충신 1인, 2기는 충신 2인씩), 효와 관련된 것이 15기(8기는 효자 각 1인씩, 2기는 효자 2인씩, 1기는 효자 3인, 2기는 효자와 열녀 각 1인, 1기는 효부 2인과 열녀 1인, 1기는 孝烈婦), 열과 관련된 것이 12기(7기는 열녀 1인, 1기는 절부, 1기는 효부 2인과 열녀 1인, 2기는 효자와 열녀 각 1인, 1기는 孝烈婦)이다.

이상 문헌에서 확인된 논산시의 정려사례는 모두 34건이다. 이 가운데 정려가 현존하는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표 3-22> 문헌에서 확인된 논산시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 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호서] 읍지	근대 도지	현존 여부	비 고
효자	水軍 朴長孫	니산현	○	○	○	○	○	○	×	충·효(侍墓)
효자	金栻	니산현		○	○	○	○	○	×	
효자	中益賢	니산현		○	○	○	○	○	×	
효자	都處中	니산현		○	○	○	○	○	○	
효자	朴尙文	니산현		○	○	○	○	○	○	
효자	金重昌	니산현		○	○	○	○	○	○	
효자	朴來遠	니산현		○	○	○	○	○	×	
효자	李仁淑	연산현		○	○	○	○	○	×	斷指, 병자호란에 종 군 전사
효자	[신증]李公謙	연산현		○	○	○	○	○	○	임진왜란 부친 대신 적에게 피살
효자	李惟澤	은진현		○		○	○	○	×	喪禮
효자	金廷望	은진현		○		○	○	○	○	斷指, 喪禮
효자	檢中樞 姜穀 子 姜應貞	은진현	○	○		○	○	○	○	羹嘗, 侍墓
효자	李晦	은진현		○		○	○	○	×	居喪 3년
효자	李廷輔	은진현		○		○	○	○	×	斷指, 화재
효자	孫汝諧	은진현				○	○		×	
효녀	李氏	은진현		○		○	○	○	×	斷指, 母喪 후 죽음,
열녀	朴東民 妻 李氏	니산현		○	○	○	○	○	×	
열녀	尹舜舉 妻 李氏	니산현		○	○	○	○	○	○	
열녀	陽樞 妻 李氏	니산현			○	○	○	○	○	영조 임진년
열녀	張士貞 妻 私婢 末終	연산현	○	○	○	○	○	○	×	남편이 전사하자 殉節
열녀	私奴 連金 妻 寒梅	연산현		○	○	○	○	○	×	殉節
열녀	及第 金問 妻 許氏	연산현	○	○	○	○	○	○	○	자식을 기르며 守節, 삼강행실 수록
열녀	[신증]李公謙 妻 閔氏	연산현		○	○	○	○	○	○	임진왜란 남편과 적 에게 피살
열녀	李弘默 妻 金姓	연산현		○	○	○	○	○	○	병자호란에 남편전 사후 殉節
열녀	士人 白尙準 妻 宋氏	연산현	○						○	
열녀	私奴 白男 妻 玉尙	연산현		○	○	○	○	○	×	정절을 지키려다 피살
열녀	私奴 開金 妻 四月	연산현		○	○	○	○	○	×	정절을 지키려다 피살
열녀	士人 金球 妻 徐氏	연산현		○	○	○	○	○	×	재가를 거부하고 殉節
열녀	俞得祿 妻 金氏	은진현		○		○	○	○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근대도지	현존여부	비 고
열녀	李相甫 妻 盧氏	은진현		○		○	○		×	殉節
열녀	學生 金繼田 妻 閔氏	은진현	○	○		○	○	○	×	守節(평생제사)
열녀	李天紀 妻 李氏	은진현		○		○	○	○	×	
열녀	生員 陳珽 妻 鞠氏	은진현		○		○	○	○	×	정유왜란에 왜적을 피해 죽음
열녀	[고려]文成己 妻 李氏	은진현	○	○		○	○	○	×	왜란에 남편이 죽자 조석으로 제사

7. 금산군

금산군은 1914년에 진산군과 금산군이 통합되어 금산군이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충청남도에 편입된 고을이다.

금산은 백제시대에 진내군(進乃郡, 또는 進乃乙郡)이라 하였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경덕왕 때에는 진례군(進禮郡)이라고 고쳤다. 고려시대에는 진례현으로 강등시켜 현령을 두었었는데, 1305년(충렬왕 31)에 이 고을 출신 김신(金旻)이 원나라에 벼슬하여 요양행성참정(遼陽行省參政)이 되어 나라에 공이 있었으므로 지금주사(知錦州事)로 승격시키고, 부리현 등 5현을 이속시켰다. 이때 지금의 진산인 진동현을 옥계부(玉溪府)로 고쳤다가 그 뒤 충렬왕 때 금주군에 소속시켰다. 1393년(태조 2) 만인산[胎峰]에 태조의 태를 묻은 뒤 고산현(高山縣)이던 진산을 금주군으로 승격시켰고, 1413년(태종 13)에 진산군으로 개칭하였다. 1914년 부군제 폐합 당시 진산군을 금산군으로 편입하였다.

진산은 본래 백제의 진동현(珍洞縣, 또는 珍洞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 웅주도독부(熊州都督府) 관내 황산군(黃山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한때 후백제에 속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전주도 관내 진례현(進禮縣)의 속현이었으나, 1390년(공양왕 2) 고산현(高山縣)으로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3년(태조 2) 왕의 태(胎)가 관내 만인산(萬仞山)에 묻히면서 진주(珍州)로 승격되었고, 지사관

제 3 장 忠南의 忠 · 孝 · 烈 文獻資料 分析

(知事官)을 두었다. 1413년(태종 13) 진산군으로 고쳤고, 1466년(세조 12) 지군사를 군수로 바꾸었다. 1895년(고종 32) 공주부에 속하였다가 이듬해에 전라북도(知事官)에 속하였으며, 1914년 금산군에 병합되었다.

따라서 금산군과 관련있는 지명은 진내군(進乃郡, 또는 進乃乙郡) · 진례군(進禮郡) · 진례현(進禮縣) · 금주군(錦州郡) · 부리현 · 진동현 · 옥계부(玉溪府) · 고산현(高山縣) · 진산군 · 금산군 등이다.

『삼국사기』 · 『삼국유사』에서는 금산군과 관련된 충 · 효 · 열 인물을 찾아 볼수 없다. 그러나 『고려사』의 효우열전(孝友列傳)에서는 윤구생이 금주(錦州)에 거주하면서 효행을 실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구생의 효행사실은 다음과 같다.

윤구생(尹龜生)은 찬성사 윤택(尹澤)의 아들이다. 여러 벼슬을 거쳐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로 있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금주(錦州)에 거주하면서 사당을 세우고 매 초하루 보름과 사중(四仲) 및 속절(俗節)에는 3대 조상을 제사하고 동지(冬至)에는 시조(始祖)를, 입춘(立春)에는 선조(先祖)를 제사하되 전적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의 무덤에는 묘석을 세우고 그 기일(忌日)을 세겨 두었으며 아버지 묘에는 묘비를 세웠다. 또 그 묘 남쪽에는 재실(齋室)을 건축하고 석비에 고조 · 증조 이하의 기일을 세겨 후세까지 잊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가묘설치의 명이 있기 전부터 가묘를 설치하여 조상을 받든 윤구생에 대해서 공양왕은 문려에 정표하고, 효자비를 세웠으며, 그의 집을 금복하는 포장을 행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금산군의 충 · 효 · 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20년(세종 2)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금산군의 충 · 효 · 열 인물을 찾아보면 금산현의 충 · 효 · 열 포장사례 8건(효자 4건, 열녀 4건) 진산현의 충 · 효 · 열 포장사례 1건(열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표 3-23> 역대 『실록』에 기록된 금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장내용	근거
1420	금산	前散員 李益 妻 召史	열녀(수절)	정문, 복호	『세종실록』 7, 2/1/경신
	금산	副正 林英順 妻 韓氏	열녀(수절)	정문, 복호	『세종실록』 7, 2/1/경신
1455	금산	幼學 李孝誠 妻 吉氏	효부	복호	『단종실록』 13, 3/2/을사
1471	금산	梁적 妻 三德 (賜逆)	열녀(撲虎, 수절)	정문, 복호	『성종실록』 10, 2/6/갑자
1476	금산	禦侮將軍 李元坤	효자(시묘)	서용	『성종실록』 72, 7/10/정축
					『성종실록』 161, 14/12/정묘
1544	금산	訓導 金稱	효자(상분, 시묘)	가자	『중종실록』 102, 39/4/을유
1710	진산	士人 李國亮 妻 裴氏	열녀(撲虎)	정려	『숙종실록』 49, 36/10/신사
1816	금산	百姓 明觀德	효자	복호	『순조실록』 19, 16/6/병진
1822	금산	士人 朴希默 妻 金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25, 22/3/병진

조선시대의 윤리서에는 금산군의 인물이 모두 7명이 등재되어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에 4명, 열녀도에 3명으로, 모두 금산군의 인물이다.

<표 3-24>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금산군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卷一	錦山	고려	判事尹龜生	龜生刻石
	孝子圖 卷三	錦山	조선	參政金仇	金仇感天
	孝子圖 卷三	錦山	조선	訓導金稱	金稱廬墓
	孝子圖 卷六	錦山	조선	僉知朴天宙	天宙斷指
	烈女圖 卷一	錦山	조선	梁역 妻 三德 (賜逆)	三德擊虎
	烈女圖 卷四	錦山	조선	全景瑄妻金氏	金氏縊死
	烈女圖 卷六	錦山	조선	王彦弘妻良女仇叱介	仇叱介投淵

지리지에 금산군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부터이다. 금산군과 진산군에 각각 1인씩 2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금산군의 열녀 양적 처 삼덕(三德)과 진산군의 효자 김천석(金天錫)이 있다. 진산군의 경우 효자조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물조에 효행 및 명정 사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열녀 삼덕은 『실록』에 열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효자 김천석은 『실록』에서 보이지 않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효행이 있어 정문을 세웠다. 벼슬은 관찰사를 지냈다’고 하여 매우 간략하게 적고 있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금산군에 13인(효 10, 열 3), 진산군에 6인(효 3, 열 3)이 기록되어 있다. 금산군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10건, 증직 1건, 급복 3건, 서원배향 1건으로 증직 1건은 정려를 받은 인물이다. 진산군은 인물조 내에 효·열인이 포함된 것으로 정려가 내려진 것이 1건, 관찰사가 쌀을 지급한 것[巡營給米]이 2건이다.

<표 3-25> 『여지도서』에 수록된 금산군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금산	효자	韓敼		嘗糞, 侍墓
금산	효자	金侁	성곡서원 배향 (今無)	
금산	효자	尹龜生	정려	
금산	효자	李惟澤	정려, 급복, 立祠	
금산	효자	金稱	정려	廬墓
금산	효자	庶人 宋永立	정려	虎患
금산	효자	朴天宙	정려, 증직	斷指
금산	효자	薛邦英	정려	斷指
금산	효자	全在禮	정려	三年廬墓
금산	효자	全自望	급복	斷指
금산	효자	金善億	급복	
금산	열녀	良女 三德	정려	
금산	열녀	生員 金夏圭 子婦 金氏	정려	
금산	열녀	士人 李柱漢 妻 河氏	정려	
진산	효자	金天錫	정려, 삼강행실	
진산	효자	朴泰元	巡營給米	斷指, 봉양
진산	효부	徐召史	巡營給米	시모봉양
진산	효녀	李召史		
진산	열녀	裴召史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현재 국내에 전하는 전라도 읍지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의 통지(統誌)인 『호남읍지』(1872년경)에는 「금산군읍지」와 「진산군읍지」가 수록되어 있다. 「금산군읍지」의 인물조에는 효자 11인, 열녀 3인이 있고, 「진산군읍지」는 충·효·열 구분 없이 인물조만 있는데, 내용상 효자 2인, 효부 1인, 열녀 2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남읍지』(1895년경)는 갑오개혁 직후에 편찬되어 당시의 지방 재정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인 읍지이다. 여기에는 「금산군지」와 「진산군여지승람(珍山郡輿地勝覽)」이 수록되어 있는데, 「금산군지」에는 인물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진산군지」의 인물조는 충·효·열의 구분이 없으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효자 2인, 열녀 2인이다.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금산의 읍지로는 1934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전라도 금산군편이 있다. 여기에는 정려조가 설정되어 있어서 9기의 정려가 소개되어 있고, 정려조와 별도로 충신 8인, 절의 15인, 효자 42인, 효부 10인, 효녀 1인, 정열(貞烈) 17인, 여행(女行) 13인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려조와 중복되는 인물도 있다. 이 『조선환여승람』의 금산군편은 1914년에 진산군과 통합되어 이루어진 금산군의 군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금산군과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금산군의 정려사례는 모두 21건이다.

<표 3-26> 문헌에서 확인된 금산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호남 읍지	환여 승람	비 고
효자	韓 皦	금산군			○	○	
효자	李惟澤	금산군		○	○	○	
효자	金 稱	금산군		○	○	○	廬墓
효자	庶人 宋永立	금산군		○	○	○	虎患
효자	朴天宙	금산군		○	○	○	斷指
효자	尹龜生	금산군		○	○	○	
효자	全在禮	금산군		○	○	○	三年廬墓
효자	薛邦英	금산군		○	○	○	斷指
효자	金天錫	진산군		○	○	○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호남읍지	환여승람	비 고
호자	吳國獻					○	
호자	朴仁壽					○	
호자	金學述					○	
호부	姜羅永 妻 韓氏					○	
열녀	良女 三德	금산군		○	○	○	
열녀	生員 金夏圭 子婦 金氏	금산군		○	○	○	
열녀	前散員 李益 妻 召史	금산군	○				守節
열녀	副正 林英順 妻 韓氏	금산군	○				守節
열녀	梁祿 妻 三德 (陽逆)	금산군	○		○		撲虎, 守節
열녀	士人 朴希默 妻 金氏	금산군	○				
열녀	士人 李柱漢 妻 河氏	금산군		○	○	○	
열녀	士人 李國亮 妻 裴氏	진산군	○				撲虎

8. 연기군

연기군은 1914년에 연기군과 전의군이 통합된 고을로, 1973년 7월에 공주군 장기면의 나성리·송원리가 연기군 남면에, 공주군 반포면의 도암리·성덕리·영곡리가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연기군 동면 갈산리가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가 연기군 전동면에 각각 편입되었다.

연기는 백제초부터 백제 강역에 속하여 376년(근구수왕 2)에 적현성(赤峴城)이었고 그 뒤에 두잉지현(豆仍只縣)이었으며 백제말에는 주류성이었다는 설도 있다.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연기현(燕岐縣)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 현재의 文義)의 속현으로 하였다. 연기현은 1018년(현종 9) 청주에 영속시켰다가 1172년(명종 2) 감무를 임명하였으며, 뒤에는 목주감무(木州監務)를 겸하게 하였다. 1397년 목주감무와 분리되어 연기현에도 감무가 임명되었다. 1414년(태종 14) 전의현과 연기현을 합쳐서 전기(全岐)가 하였고, 1416년 다시 연기현과 전의현을 분리하여 각각 현감을 두었다. 1680년(숙종 6)에는 연기현이 문의에 병합되었다가, 1685년 분리, 복구되었다. 1895년 공주부 연기군으로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개편되었고, 1896년에는 충청남도 연기군이 되었다. 연기군은 1909년에 전의면 일원과 공주군 일부를 편입하여 7개면을 두었으며, 1914년 부·군·면 통폐합시 전의를 병합하였다.

전의는 백제 때 구지현(仇知縣)이었는데, 당나라가 백제를 친 다음 구지(久遲)로 고치고 동명주(東明州)의 영현으로 하였다. 같은 해에 금지(金池)로 고쳤으며 대륙군(大麓郡:지금의 천원군 목천면)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940년(태조 23)에 금지현을 전의현(全義縣)으로 고치고 뒤에 청주에 소속시켰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에 처음으로 감무를 두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현감을 두었다. 1414년에 연기현(燕岐縣)과 합해서 전기현(全岐縣)이 되었으며, 1416년에 다시 연기현과 전의현을 분리하여 각각 현감을 두었다. 1895년 공주부 전의군으로 개편되었고, 1896년에는 충청남도 전의군이 되었다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시 연기군에 병합되었다.

따라서 연기군과 관련된 지명은 적현성(赤峴城)·두잉지현(豆仍只縣)·연기현(燕岐縣)·전기현(全岐縣)·연기군·구지현(仇知縣, 久遲縣)·금지현(金池縣)·전의현(全義縣)·전의군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연기군과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연기군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395년(태조 4)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연기군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연기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3건(효자), 전의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1건(효자)으로 모두 4건이 있다. 여기에서 전의현의 효자 김사지는 『실록』에서 발견되는 충청도 충·효·열 인물 포장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주목된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3-27>과 같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표 3-27> 역대 『실록』에 기록된 연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395	전의	署令 金四知	효자(노모 봉양)	정려, 복호	『태조실록』 8, 4/9/정미
1807	연기	士人 金璉	효자	급복	『순조실록』 10, 7/11/무신
1832	연기	士人 柳始明	효자	증직	『순조실록』 32, 32/4/기축
	연기	士人 柳始采	효자	정려	『순조실록』 32, 32/4/기축

조선시대의 윤리서에는 연기군(연기·전의)의 인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효자도에 단지(斷指)의 효를 행한 교생(校生) 김숙(金塾) 1인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³³⁾

지리지에 연기군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이다. 먼저 『여지도서』에서는 충·효·열 인물로 연기현에 15인(효 11, 열 4), 전의현에 4인(충 1, 효 2, 열 1)이 기록되어 있다. 연기현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8건, 증직 5건, 복호 2건이고, 전의현은 정려 3건, 복호 1건으로 복호는 정려를 받은 인물이다.³⁴⁾

<표 3-28> 『여지도서』에 수록된 연기군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연기현	효자	洪信民	증직(숙종)	嘗糞, 三年廬墓
연기현	효자	林頌	증직	嘗糞, 侍墓
연기현	효자	崔澹	정려	斷指, 喪禮
연기현	효자	李琢	증직(현종조)	
연기현	효자	洪廷窩	증직(숙종조)	嘗糞, 斷指
연기현	효자	尹廷鴻	증직	충효, 병자호란 홍병
연기현	효자	尹謙	복호	
연기현	효자	良人 裴立	정려(인조)	병자호란에 부친과 피란중 적을 만나 피살
연기현	효자	金洽	정려(인조)	병자호란에 모친과 함께 피살
연기현	효자	縣吏 林岐男	복호(숙종)	

33)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卷7, 金塾斷指(조선시대)

34) 전의현의 경우는 인물조 내에 충·효·열 인물의 구분이 없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연기현	효자	金興梅	정려(효종)	
연기현	열녀	張應軒 妻 金氏	정려(인조)	병자호란 피난중 자결
연기현	열녀	生員 林尙謙 妻 李氏	정려	수절, 병자호란에 죽음
연기현	열녀	李世禎 妻 權氏	정려	남편이 익사하자 같은 곳에가 자살
연기현	열녀	學生 李軾 妻 姜氏	정려(숙종)	남편따라 자살
전의현	충신	朴彭年		
전의현	열녀	金鸞 妻 洪氏	정려	자살
전의현	효자	金忠烈	정려	
전의현	효자	愼之愼	복호·정려	斷指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연기현지」는 충신 14인, 효자 78인, 효부 10인, 열녀 6인, 열부 14인을 수록하고 있다. 연기현지에는 충신·효자조가 두번 중복되어 나오고, 열녀조와 열부조가 나뉘어 있는데, 인물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있다기 보다는 읍지를 재차 간행하면서 후대의 인물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포장받지 않은 경우라도 단순히 충·효·열 행적이 있는 경우 수록되었다. 「전의현지」에는 절의인 5인, 효열 16인, 열부 8인, 효녀 1인이 있다. 여기에서 효열조는 효자를 수록한 것이다.

『호서읍지』(1871)에는 「연기현지」와 「전성지(全城誌)」가 있는데, 「연기현지」의 충·효·열 인물은 『충청도읍지』와 같다. 전의현지인 「전성지」의 경우는 『충청도읍지』와 비교하여 볼 때, 충·효·열 인물조의 형식은 같으나 인물의 수가 적는데, 절의인 5인, 효열 13인으로 효열조 내에 효자 8인, 열부 4인, 효녀 1인이 확인된다. 따라서 『호서읍지』의 충·효·열 인물조가 『충청도읍지』보다 이른시기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호서]읍지』(1895)에는 「전성지(全城誌)」만 수록되어 있는데, 『호서읍지』에 수록된 「전성지」와 같은 내용이다.³⁵⁾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연기군의 정려사례는 38건이고, 이 가운데 연기군

35) 연기군의 충·효·열 인물에 관해서는 제3장 제2절 忠·孝·烈 文獻資料의 分析과 活用 - 연기군의 사례 -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에 정려가 현존하는 것은 20건이다.

<표 3-29> 문헌에서 확인된 연기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연기지	충청남도지	현존여부	비 고
충신	洪稷	연기현			○	○	○	○	○	
효자	閔後騫	연기현			○				○	
효자	林尙謙	연기현					○		×	
효자	林命楫	연기현					○		○	
효자	林秀俊	연기현					○		○	
효자	愼之恒	연기현		○					×	
효자	林養文	연기현					○		○	
효자	金洽	연기현		○	○	○	○	○	×	병자호란에 모친과 함께 피살
효자	金興梅	연기현		○	○	○		○	×	
효자	良人 裴立	연기현		○	○	○	○	○	×	병자호란에 부친과 함께 피살
효자	上人 柳始采	연기현	○						※	서산시 오산동으로 이거
효자	林頤	연기현					○		×	
효자	崔澮	연기현		○	○	○	○		○	斷指, 喪禮
효자	趙秀彬	연기현					○		○	
효자	金師俊	연기현			○	○	○	○	○	
효자	金漢鼎	연기현					○		○	
효자	鄭人權	연기현					○		○	
효자	鄭元龍	연기현					○		○	
효자	金益精	연기현					○		○	
효자	洪光燮	연기현					○		×	
효자	署令 金四知	전의현	○						×	노모 봉양
효자	金忠烈	전의현		○					○	
효부	俞彦夏 妻 林氏						○		×	
효부	鄭元龍 妻 尹氏						○		○	
열녀	白東齊 妻 崔氏	연기현					○		×	
열녀	趙百遠 妻 金氏	연기현					○		×	
열녀	鄭憲世 妻 李氏	연기현					○		×	
열녀	全五福 妻 成氏	연기현			○	○	○	○	○	
열녀	崔公舜 妻 林氏	연기현					○		×	
열녀	全五倫 妻 張氏	연기현			○	○	○	○	○	
열녀	學生 李軾 妻 姜氏	연기현		○	○	○	○	○	○	殉節
열녀	愼爾初 妻 俞氏	연기현			○	○	○	○	○	
열녀	生員 林尙謙 妻 李氏	연기현		○	○	○	○	○	×	守節, 병자호란에 죽음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연기지	충청남도지	현존여부	비 고
열녀	李世禎 妻 權氏	연기현		○	○	○	○	○	×	남편이 익사하자 그곳에서 자살
열녀	崔之喆 妻 李氏	연기현			○	○	○	○	○	
열녀	張應軒 妻 金氏	연기현		○	○	○			×	병자호란 피난중 자결
열녀	李德新 妻 權氏	전의현			○	○	○	○	×	
열녀	金瓚 妻 洪氏	전의현		○	○	○	○	○	○	殉節

9. 부여군

부여군은 1914년에 부여군과 홍산군·임천군의 전지역, 석성군의 일부(당시의 현내면·북면·증산면·비당면, 현재의 부여군 석성면 지역), 공주군의 일부(반탄면 서원·정곡리)를 통합하여 설치되었다.

부여에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초산국(楚山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시대의 소부리(所夫里)·대산홀(大山忽:지금의 鴻山)·가림홀(加林忽:지금의 林川)·진악산(珍惡山:지금의 石城)이 현재의 부여군에 해당된다. 특히 부여읍 일대는 소부리 혹은 사비(泗沘)라고 하였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문무왕이 충관을 두었다가 686년(신문왕 6)에 사비주를 군으로 삼았으며, 경덕왕 때 웅천주를 웅주로 고치면서 부여를 그 속군으로 하였다. 고려 예종 이후에는 청주목의 속군인 공주에 속하였으며 부여군이라 하였다. 현종 때는 일시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하여 오다가, 태종 때에 팔도제(八道制)를 정비하면서 공주목의 속현이 되었다. 부여현은 1895년(고종 32)에는 팔도제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로 구획하여 공주부 관하의 부여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896년 13도제로 변경하였을 때 충청남도의 군이 되었다. 1914년 부·군 통합령의 실시로 홍산·임천 전지역과 공주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16개면을 관할하였다.

홍산은 본래 백제의 대산현(大山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 한산(翰山)으로 고쳐 가림군(嘉林郡)의 영현으로 하였다. 940년(태조 23) 홍산으로 고치고,

제 3 장 忠南의 忠 · 孝 · 烈 文獻資料 分析

1175년(명종 5) 한산감무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였다. 1413년(태종 13) 현감이 파견되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었으며, 1914년 부여군에 병합되었다.

임천은 본래 백제의 가림군(加林郡)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에 가림(嘉林)으로 고치고 웅주(熊州)에 예속하였다. 995년(성종 14)에 임주자사(林州刺史)를 두었다가, 1018년(현종 9)에 다시 가림현(嘉林縣)으로 고치고 현령을 두었다. 1315년(충숙왕 2)에는 원나라 평장사(平章事) 아패해(阿孛海)의 처 조씨(趙氏)의 고향이라 하여 지임주사(知林州事)로 승격하였다. 1394년(태조 3)에는 명나라 조정으로 들어간 환자(宦者) 진한룡(陳漢龍)의 청으로 부(府)로 승격되었는데, 1401년(태종 1)에 환원되었다가, 1403년에 다시 환자 주윤서(朱允瑞)의 청으로 부로 되었으며, 1413년에 임천으로 고쳐서 군이 되었다. 1914년에 부여군으로 편입되었다.

석성은 본래 백제의 진악산현(珍惡山縣)이었는데, 686년(신라 신문왕 6)에 석산(石山)이라 고치고, 757년(경덕왕 16)에 부여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석성(石城)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에 공주에 예속시켰으며, 1172년(명종 2)에 감무를 두었다가 후에 이를 혁파했다. 1371년(공민왕 20)에 부여감무로 이를 겸임하게 하였다가, 1390년(공양왕 2)에 다시 석성감무를 두었으며, 1414년(태종 14)에 이산(尼山)과 합하여 이성(尼城)이 되었다. 다음 해에 이곳이 고다진(古多津)으로 통하는 요충지라 하여 다시 나누고 현감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에 승격하여 군(郡)이 된 뒤, 1914년에 군을 폐하고 그 땅을 나누어 원북면 · 정지면 · 삼산면 · 병촌면 · 우곤면은 논산군 성동면에, 현내면 · 북면 · 증산면 · 비당면은 부여군 석성면으로 병합하였다.

따라서 부여군과 관련있는 지명은 소부리(所夫里) · 사비(泗沘) · 사비주 · 사비군 · 부여군 · 부여현 · 대산현(大山縣) · 한산(翰山) · 홍산현 · 홍산군 · 가림군(加林郡, 嘉林郡) · 가림현(嘉林縣) · 임주군(林州郡) · 임주부(林州府) · 임천군 · 진악산현(珍惡山縣) · 석산(石山) · 석성현(石城縣) · 이성(尼城) · 석성군(石城郡) 등이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부여지역의 충·효·열 자료 중에는 백제시대의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삼국사기』의 계백과 성충은 백제가 망하기 직전인 사비시대의 충신이므로 부여와 관련된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행적은 『삼국사기』에서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포장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부여군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54년(단종 2)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부여군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부여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9건(충 1건, 효자 6건, 열녀 2건), 임천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4건(효자 2건, 열녀 2건), 홍산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5건(충 1, 효자 2건, 열녀 2건), 부여지역으로 추정되는 포장사례 10건(충절 4건, 효자 2건, 열행 3건)으로 모두 28건이다. 석성현의 경우는 충·효·열 포장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0> 역대 『실록』에 기록된 부여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고을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54	부여	徐恭	효자(斷指)	상물	『단종실록』 12, 2/8/병신
1455	임천	幼學 趙孝恭	효자(侍墓)	서용	『단종실록』 14, 3/5/무오
1468	홍산	羅季文 妻 尹氏	열녀(節義)	상물, 복호	『세조실록』 45, 14/3/을축
1528	홍산	水軍 金元孫	효자	상물, 복호	『중종실록』 62, 23/8/경신
1543	부여	寺婢 孫德	열녀(喪禮)	상물, 복호	『중종실록』 101, 38/8/임오
1596	부여	道泉寺 僧 雪眉	충(역적에게 피살)	논상	『선조실록』 78, 29/8/경신
	홍산	伏兵將 李壽聃	충(역적 토벌)	논상	『선조실록』 78, 29/8/경신
1668	부여	良女 閔德	열녀(殉節)	정려	『현종실록』 14, 9/5/무술
1719	부여	禁衛軍 吳成安	효자	면역	『숙종실록』 64, 45/11/무인
1728	(부여)	主簿 尹翊	충절	정문	『영조실록』 15, 4/1/계해
		尹光殷	효행	정문	
1740	(임천)	李一相 女 李氏	열행	정문	『영조실록』 52, 16/12/병진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연대	고을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747	(부여)	鄭得說	충절	추증, 포장 논의	『영조실록』 65, 23/7/경술
		鄭澤雷(鄭得說의 子)	충절	추증, 포장 논의	
1790	부여	縣令 金光岳	효자(단지,시묘)	정려	『정조실록』 29, 14/1/무신
1806	임천	士人 趙明奎	효자	정려	『순조실록』 9, 6/9/을축
	임천	士人 趙相臣 妻 南氏	열녀	급복	『순조실록』 9, 6/7/무오
	(부여)	鄭澤雷 妻 鄭氏	열행	정문	『순조실록』 9, 6/12/계미
	(부여)	鄭澤雷 子 鄭千世	효행	정문	
1807	임천	士人 趙昌運 妻 李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10, 7/11/무신
1812	홍산	處女 尹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15, 12/3/을유
	부여	士人 崔賜百	효자	증직	
1816	(부여)	黃一喆	충절	정문	『순조실록』 19, 16/8/임인
	(부여)	黃璉(黃一喆의 子)	효행	정문	
1817	(부여)	權頤吉 妻 林氏	열행	정문	『순조실록』 20, 17/9/정묘
1822	부여	士人 黃載謙	효자	증직	『순조실록』 25, 22/3/병진
1831	부여	通德郎 俞漢昇	효자	증직	『순조실록』 32, 31/7/갑자
1832	홍산	士人 康世郁	효자	정려	『순조실록』 32, 32/4/기축

조선시대의 윤리서에는 부여군의 인물이 모두 10인이 등재되어 있다. 『(동국)속삼강행실도』의 효자도에 석성현 인물 1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에 부여현 1인, 석성현 1인, 홍산현 1인, 충신도에 부여현 3인, 열녀도에 부여현 4인 등이 기록되어 있다.

<표 3-31>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부여군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續三綱行實圖	孝子圖	石城	조선	田漢老	漢老嘗痢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 綱行實圖	忠臣圖	卷一	扶餘	백제	階伯	階伯鏖戰
	忠臣圖	卷一	扶餘	조선	私奴介同	介同效忠
	忠臣圖	卷一	扶餘	백제	成忠	成忠上書
	孝子圖	卷一	扶餘	고려	徐恭	徐恭割指
	孝子圖	卷五	石城	조선	李德隣	德隣斷指
	孝子圖	卷五	鴻山	조선	幼學鄭渾	鄭渾斷指
	烈女圖	卷二	扶餘	조선	甲士朴元亨妻李氏	李氏斷指
	烈女圖	卷二	扶餘	조선	朴世熙妻方氏	方氏斷指
	烈女圖	卷三	扶餘	조선	私奴守云妻良女者叱達	者叱達城祭
	烈女圖	卷三	扶餘	조선	卜世溫妾私婢今貴	今貴居墓

지리지에서 부여군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부터이다. 부여현에 고려조 효자 1인, 조선조 열녀 1인, 석성현에 조선조 효자 1인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부여현의 열녀 이씨를 제외하면, 모두 『실록』에 행적과 포장연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열녀 이씨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 열녀 이씨는 갑사 박원형(朴元亨)의 아내이다. 남편이 악질(惡疾)을 앓으며, 손가락을 끊어서 약에 타서 먹여 병이 나왔다. 금상[중종] 14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부여현에 31인(충의 15, 효 10, 열 6), 석성현에 10인(효 7, 열 3), 임천군에 24인(충 2, 효 7, 열 15), 홍산현에 5인(효 5)이 기록되어 있다. 부여현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14건, 증직 7건, 복호 5건, 서원배향 1건으로 이 가운데 정려·증직·복호가 중복된 경우 1건, 정려·증직은 2건이다. 석성현은 정려가 내려진 것이 9건, 증직이 2건, 시호가 1건으로, 증직 1건은 정려를 받은 인물이고, 시호 1건은 증직을 받은 인물이다. 임천군에는 정려가 내려진 것이 17건, 증직이 1건(정려와 중복),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복호가 7건이다. 홍산현에는 정려가 내려진 것이 2건, 복호가 3건이다.

<표 3-32> 『여지도서』에 수록된 부여군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임천군	효자	李旦	정려	
임천군	효자	俞忠吉	정려	
임천군	효자	徐貴漢	복호	
임천군	효자	朴璧只	복호	
임천군	효자	趙箕徵	복호	
임천군	효자	辛潤龜	복호	
임천군	효자	姜渭老	복호	
임천군	충신	茂豊都正 摠	정려	
임천군	충신	李旺	정려, 증직	임진란에 금산전투에서 殉節
임천군	열녀	正郎 俞澈命 妻 尹氏	정려	
임천군	열녀	良女 禮今	정려	
임천군	열녀	良女 敬今	정려	
임천군	열녀	權氏	정려	
임천군	열녀	進士 趙貴中 妻 韓氏	정려	
임천군	열녀	趙天瑞 妻 李氏	복호	
임천군	열녀	尹東文 妻 崔氏	정려	
임천군	열녀	趙廷謙 妻 李氏	복호	
임천군	열녀	趙彦宗 妻 尙氏	정려	
임천군	열녀	趙聖一 妻 鄭氏	정려	
임천군	열녀	李一相 妻 李氏	정려	
임천군	열녀	李憲胃 妻 睦氏	정려	
임천군	열녀	李趾遜 妻 金氏	정려	
임천군	열녀	私婢 太今	정려	
임천군	열녀	徐召史	정려	
석성현	효자	田漢老	정려	
석성현	효자	趙景星	정려, 증직	
석성현	효자	李德麟	정려(선조조)	
석성현	효자	尹文學	증직, 시호	
석성현	효자	朴用汲	정려	
석성현	열녀	良女 孝貞	정려	
석성현	열녀	良女 松	정려	
석성현	효자	良人 廉善發 其女 水丹・禮丹	정려(금상)	
석성현	효자	良女 禮節	정려(금상)	
석성현	열녀	良女 朴召史	정려(금상)	
부여현	忠義	[백제]成忠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부여현	忠義	[백제]階伯		
부여현	忠義	[백제]興首		
부여현	忠義	[백제]福信		
부여현	忠義	[백제]黑齒常之		
부여현	忠義	[백제]達愛信		
부여현	忠義	[고려] 李存吾	정려	실록에는 공주인물
부여현	忠義	鄭得說	증직(만력), 복호(정유), 정려(숙종)	임진왜란에 전사
부여현	忠義	判官 權頤吉	증직, 정려	병자호란
부여현	忠義	黃一皓	증직, 시호, 충열사	
부여현	忠義	閔汝俊	증직	이몽학 란 토평
부여현	忠義	柳賞		이몽학 란
부여현	忠義	主簿 尹翊	旌	
부여현	忠義	學官 張應起	증직	정유재란에 문묘위관 보호
부여현	忠義	私奴 介同叱	정문	충노
부여현	효자	[고려]徐恭	정려	斷指
부여현	효자	鄭澤雷	정려(숙종 계사)	斷指
부여현	효자	鄭千世	복호	喪禮
부여현	효자	黃璣	증직	
부여현	효자	閔鎭翼	증직	
부여현	효자	柳承春	정려	
부여현	효자	朴世龜	복호	
부여현	효자	尹光殷	旌	
부여현	효자	李必能	복호	
부여현	효자	金運新	복호	
부여현	열녀	鄭澤雷 妻 鄭氏	복호(숙종)	斷指
부여현	열녀	判書 李師命 妻 嘉林趙氏		
부여현	열녀	李喜 妻 延日鄭氏	정문	
부여현	열녀	甲士 朴元亨 妻 李氏	정문	斷指
부여현	열녀	騎兵 李順立 妻 良女潤德	정문(강희7년)	
부여현	열녀	尹時雲 妻 良女 鵲達	정문	
부여현	?	俞大備	정문(계사),증직	광해군때 하향
홍산현	효자	鄭渾	정문	斷指
홍산현	효자	金論金	정려	虎忠
홍산현	효자	金聲厚	급복(현종조)	斷指
홍산현	효자	金壽雄	급복	斷指
홍산현	효자	尹汝聖	급복	斷指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부여현지」에는 절의 13인, 충노 1인, 효자 11인, 열녀 6인이 있으며, 정문포장을 받았으나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인물 1인이 있다. 「임천군지」에는 충신 2인, 효자 7인, 열녀 13인이 있고, 「석성현지」에는 효자 5인, 효녀 1인, 열녀 4인이 있고, 「홍산현지」에는 효자 5인이 기록되어 있다.

『호서읍지』(1871)에는 4개 현의 읍지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부여와 임천현의 경우 『충청도읍지』의 충·효·열 인물조 내용과 같다. 「석성읍지」는 효자 5인, 효녀 1인, 열녀 3인으로, 『충청도읍지』보다 열녀가 1인 증가하였다. 홍산현지는 효자 7인이 기록되어 『충청도읍지』보다 2인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증가된 2인은 각각 비석과 정려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호서]읍지』(1895)에는 4개 현의 읍지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부여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청도읍지』와 내용이 같다. 「부여현읍지」에는 충의 11인, 충노 1인, 열녀 4인으로 『충청도읍지』와 비교해 볼때 충의인에서 백제인 2인이 기록되지 않아 11인으로 줄었고, 효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열녀도 2인이 줄었다.

1929년에 간행된 『부여군지(扶餘郡誌)』는 당시 부여군수였던 홍한표(洪漢杓)가 중심이 되어 부여군 사람들과 함께 1901년의 구지(舊誌)를 수정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군지는 부여현, 홍산현, 임천현, 석성현 등의 읍에 관한 기록을 싣고, 마지막에 군의 병합 이후의 보충내용에 대해서 실었으므로 오늘날의 부여군과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부여현에 충의(忠義) 40인, 효행 50인, 정열(貞烈) 24인, 홍산현에 효행 27인, 정열 5인, 임천군에는 충의 7인, 효행 15인, 정열 18인, 석성현에 충의 4인, 효행 15인, 정열 7인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89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3집 부여군편에는 모두 37기의 정려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충과 관련된 것이 9기(3기는 충신 1인, 3기는 충신·열녀 각 1인씩, 2기는 충신·효자·열녀 각 1인씩, 1기는 충신·열녀 1인, 효자 2인), 효와 관련된 것은 27기(18기는 효자 1인, 1기는 효자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2인, 5기는 효자·열녀 각 1인씩, 2기는 충신·효자·열녀 각 1인씩, 1기는 충신·열녀 1인, 효자 2인), 열과 관련된 것이 15기(4기는 열녀 1인, 3기는 충신·열녀 각 1인씩, 2기는 충신·효자·열녀 각 1인씩, 1기는 충신·열녀 1인, 5기는 효자·열녀 각 1인씩)이다.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부여군의 정려사례는 9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려가 현존하는 경우는 26건에 불과하다.

<표 3-33> 문헌에서 확인된 부여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부여군지	현존여부	비 고
충신	李旺	임천군		○	○	○	○	○	×	임진란 금산전투 殉節
충신	茂豐都正 李摠	임천군		○	○	○	○	○	○	
충의	主簿 尹翊	부여현	○	○	○	○		○	×	병자호란에 殉節
충의	判官 權頤吉	부여현		○	○	○		○	○	병자호란
충의	[고려] 李存吾	부여현		○	○	○	○	○	○	
충의	鄭得說	부여현		○	○	○		○	○	임진왜란에 전사
충의	私奴 介同叱	부여현		○	○	○	○		×	충노
충의	黃一皓	부여현	○					○	×	
충의	俞大備	부여현		○				○	×	광해군때 하향
충효	縣令 金光岳	부여현	○		○	○		○	○	斷指, 侍墓
효자	尹光殷	부여현	○	○	○	○	○	○	×	
효자	[본조] 鄭澤雷	부여현		○				○	○	斷指
효자	[고려] 徐恭	부여현		○	○	○		○	×	斷指
효자	柳承春	부여현		○	○	○	○	○	○	
효자	柳震春	부여현						○	○	
효자	李延會	부여현						○	○	
효자	李晋聖	부여현						○	×	
효자	鄭千世	부여현	○					○	○	
효자	黃璫	부여현	○					○	○	1816년(순조 16)
효자	黃運祚	부여현						○	×	
효자	徐鎮憲	부여현						○	×	부부 쌍정려
효자	徐鎮文	부여현						○	×	
효열	良人廉善發女 水丹·禮丹	석성현		○	○	○	○	○	×	
효녀	良女 禮節	석성현		○					×	
효자	朴用汲	석성현		○	○	○	○	○	×	
효자	李德麟	석성현		○	○	○	○	○	×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부여군지	현존여부	비 고
효자	趙景星	석성현		○	○	○	○	○	×	
효자	田漢老	석성현		○	○	○	○	○	○	
효자	私婢 禮節	석성현			○	○	○	○	×	
효자	廉壽善	석성현						○	×	
효자	高時興	석성현						○	×	
효자	高定鎭	석성현						○	×	
효자	李鳳憲	석성현						○	×	
효자	沈宜宗	석성현						○	×	
효자	金相德	석성현						○	×	
효자	金商順	석성현						○	○	
효자	李旦	임천군		○					×	
효자	李煜	임천군			○	○	○	○	×	
효자	俞忠吉	임천군		○	○	○	○	○	×	
효자	土人 趙明奎	임천군	○					○	×	
효자	金基泰	임천군						○	○	
효자	趙華鎭	임천군						○	○	
효자	趙聖一	임천군						○	×	
효자	姜宜燁	임천군						○	×	
효자	姜禧	임천군						○	×	
효자	金論金	홍산현		○	○	○	○	○	×	호환
효자	鄭渾	홍산현		○	○	○	○	○	×	斷指
효자	土人 康世郁	홍산현	○						×	
효자	李淵愚	홍산현						○	×	
효자	金鼎大	홍산현						○	×	
효자	李敏承	홍산현						○	×	
효자	李容憲	홍산현						○	×	
효자	金商坤	홍산현						○	×	
효자	李嘉秀	홍산현						○	×	
효자	李龜命	홍산현						○	×	
효자	李佐命	홍산현						○	×	
효자	李祖玉	홍산현						○	○	
효자	李度星	홍산현						○	○	
효자	曹錫賢	홍산현						○	○	
효자	朴宗坤	홍산현						○	×	
효자	徐鎭宇	홍산현						○	×	
효자	徐榮義	홍산현						○	×	
열녀	嘉林趙氏 延日鄭氏	부여현		○	○	○	○	○	○	
열녀	甲土 朴元亨 妻 李氏	부여현		○	○	○		○	×	斷指
열녀	騎兵 李順立 妻 良女 潤德	부여현	○	○	○	○	○	○	×	자결
열녀	尹時雲 妻 良女 鵲達	부여현		○	○	○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부여군지	현존여부	비 고
열녀	鄭澤雷 妻 東萊鄭氏	부여현	○					○	○	
열녀	權頤吉 妻 體泉林氏	부여현	○					○	○	1817년(순조 17)殉節
열녀	柳承春 妻 慶州金氏	부여현						○	○	
열녀	土人 金有昌 妻 義城金氏	부여현						○	×	
열녀	主簿 李延會 妻 靑松沈氏	부여현						○	×	
열녀	朴滢鎭 妻 潭陽全氏	부여현						○	×	
열녀	良女 孝貞	석성현		○	○	○	○	○	×	
열녀	良女 朴召史	석성현		○	○		○		×	
열녀	良女 松	석성현		○	○	○	○	○	×	
열녀	南宮獻處女	석성현						○	×	
열녀	金斗漢 妻 姜氏	석성현						○	×	
열녀	進士 趙貴中 妻 韓氏	임천군		○	○	○	○	○	×	
열녀	李憲胃 妻 睦氏	임천군		○	○	○	○		×	
열녀	李一相 女 李氏	임천군	○	○	○	○	○	○	×	남편이 위독하자 먼저 자결
열녀	良女 敬今	임천군		○	○	○	○	○	×	
열녀	弼善 趙全素 孫婦 權氏	임천군		○	○	○	○	○	○	
열녀	李趾遜 妻 金氏	임천군		○	○	○	○	○	×	‘李北遜 妻’(근대읍지)
열녀	私婢 太今	임천군		○	○	○	○	○	×	
열녀	徐召史	임천군		○	○	○	○	○	×	
열녀	良女 禮今	임천군		○	○	○	○	○	×	
열녀	正郎 俞澈命 妻 尹氏	임천군		○	○	○	○	○	×	‘正郎俞命胤妻’(근대읍지)
열녀	趙彦宗 妻 尙氏	임천군		○	○	○	○	○	×	
열녀	趙聖一 妻 鄭氏	임천군		○	○	○	○	○	×	
열녀	趙見素 妻 黃氏	임천군						○	○	
열녀	趙慶弼 妻 宋氏	임천군						○	×	
열녀	趙安和 妻 李氏	임천군						○	○	
열녀	趙恒春 妻 柳氏	임천군						○	×	
열녀	金台鉉 妻 平澤林氏	임천군						○	○	
열녀	尹東文 妻 崔氏	임천군		○					×	
열녀	土人 趙昌運 妻 李氏	임천군	○						×	
열녀	處女 尹氏	홍산현	○					○	×	
열녀	金在訓 妻 李氏	홍산현						○	×	
열녀	宋泰浩 妻 金氏	홍산현						○	×	

10. 서천군

서천군은 1914년에 서천군·한산군·비인군이 통합되어 서천군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다.

서천에는 마한시대에 비리국(卑離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서천이 백제의 설림군(舌林郡)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756년(경덕왕 15)에는 서림군(西林郡)이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서천은 이 지방출신인 이언충(李彦忠)이 충선왕에게 공로가 있다고 하여 지서주사(知西州事)로 승격되었다가,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으로 고치고, 1914년에 서천군·한산군·비인군이 합쳐 서천군이 되었다.

한산(韓山)은 본래 백제의 마산현(馬山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 가림군(嘉林郡)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940년(태조 23) 한산현으로 고치고, 1175년(명종 5) 감무를 설치하여 홍산(鴻山)을 함께 다스렸으며, 뒤에 승격하여 한주(韓州)가 되어 지한주사(知韓州事)가 파견되었다. 조선초기인 1413년(태종 13)에 한산군이 되었고, 1914년에 서천군에 병합되었다.

비인(庇仁)은 본래 백제의 비중현(比衆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에 비인(庇仁)으로 고쳐 서림군(西林郡:지금의 서천군)의 영현으로 삼았으며, 1018년(현종 9)에 가림현(嘉林縣:지금의 임천)에 속하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비인현의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고, 1895년(고종 32)에 승격하여 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서천군에 병합되었다.

따라서 서천군과 관련이 있는 지명은 비리국(卑離國)·설림군(舌林郡)·서림군(西林郡)·서주(西州)·서천군·마산현(馬山縣)·한산현·한주(韓州)·한산군·비중현(比衆縣)·비인현(庇仁縣)·비인군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서천군과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서천군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20년(세종 2)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실록』에서 서천군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서천군의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충·효·열 포장사례 1건(효자), 비인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1건(열녀), 한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5건(효자 4건, 열녀 1건), 서천군 지역으로 추정되는 효자 1건으로 모두 8건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4> 역대 『실록』에 기록된 서천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20	서천	俞仁奉	효자(侍墓)	서용	『세종실록』 7, 2/1/경신
1454	한산	朴地	효자(병구환)	상물	『단종실록』 12, 2/8/병신
1455	한산	司正 鄭酬 妻 宋氏	열녀(侍墓)	복호	『단종실록』 14, 3/5/무오
1472	한산	將仕郎 朴地	효자(嘗糞)	탁용	『성종실록』 15, 3/2/을유
1513	비인	仁壽府 婢 春非	열녀(斷指)	정려	『중종실록』 18, 8/4/기해
1681	(서천)	武臣 張繼先	충신	정려, 증직	『숙종실록』 12, 7/10/을유
1832	한산	閔鉅 子 閔深	효자	증직	『순조실록』 32, 32/4/기축
	한산	通德郎 閔鉅	효자	증직	『순조실록』 32, 32/4/기축

조선시대 윤리서에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서천군의 충·효·열 인물이 모두 7인 등재되어 있으니, 효자도에 서천군 1인, 한산군 1인, 비인현 1인이 있고, 열녀도에 한산군 3인, 비인현 1인이 있다.

<표 3-35>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서천군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綱 行實圖	孝子圖	卷四	舒川郡	조선	金處溫	處溫斷指
	孝子圖	卷六	韓山郡	조선	幼學盧敬仁	敬仁赴水
	孝子圖	卷八	庇仁縣	조선	保人黃元伯	元伯斷指
	烈女圖	卷一	韓山郡	조선	羅繼門 妻 尹氏	尹氏訴冤
	烈女圖	卷五	庇仁縣	조선	內禁衛具思謹妻高氏	高氏投火
	烈女圖	卷七	韓山郡	조선	水軍朴允山妻順德	順德殺虎
	烈女圖	卷八	韓山郡	조선	幼學盧激妻朴氏	朴氏投淵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지리지에 서천군의 충·효·열 인물이 처음 등재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서천군에 효자 1인, 한산군에 효자 3인, 열녀 1인이 있는데, 모두 조선조 인물이다. 이들의 효행·열행은 『실록』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산군의 열녀 윤씨가 『실록』에는 홍산(鴻山)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홍산은 한산에서 북으로 29리가 떨어진 인접 고을이었으므로, 윤씨의 거처에 관한 기록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효자 이하(李夏), 이렴(李廉), 박지(朴地)는 정려를 받은 사실만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서천군 효자 김처온(金處溫)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 효자 김처온(金處溫)은 어머니가 나쁜 병을 얻자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약에 넣어 바쳤는데, 병이 즉시 나았다. 금상[중종] 14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서천군에 10인(충 1, 효 6, 열 3), 비인현에 9인(효 7, 열 2), 한산군에 22인(효 15, 열 7)이 기록되어 있다. 서천군의 10인 모두 정려를 받았고, 이중 충신 1인은 증직도 받았다. 비인현은 정려 5인, 증직 3인, 복호 2인으로 효자 1인은 복호와 증직을 연달아 받았다. 한산군은 정려 17인, 증직 2인, 복호 1인이다.

<표 3-36> 『여지도서』에 수록된 서천군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한산군	효자	李夏	정려	
한산군	효자	李廉	정려	
한산군	효자	朴地	정려	
한산군	효자	李稔	정려	三年侍墓
한산군	효자	方秀幹	정려	병구환, 三年侍墓
한산군	효자	盧敬仁	정려	정유재란에 죽음
한산군	효자	金聲	정려	斷指
한산군	효자	申準	정려	嘗糞
한산군	효자	金吉同	정려	부모 봉양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한산군	효자	尹木精	정려	
한산군	효자	金得連	정려	斷指
한산군	효자	李道吾	증직	병구환
한산군	효자	李聖錫	증직	
한산군	효자	權檣	정려	
한산군	효부	李聖錫 妻 安氏	정려	斷指
한산군	효부	金遇慶 妻 李氏	급복	시어머니 병구환
한산군	열녀	尹氏	복호	세조에게 남편의 억울함 호소
한산군	열녀	土人 盧激 妻 朴氏		
한산군	열녀	李氏	정려	殉節
한산군	열녀	業武 金光珽 妻 羅氏	정려	殉節
한산군	열녀	步兵 金廷郁 妻 全氏	정려	殉節
한산군	열녀	土人 金漢祚 妻 權氏	정려	殉節
한산군	열녀	崔公儉 妻 李氏	정려	殉節
서천군	충신	張繼先	증직, 정려	
서천군	효자	金處溫	정려	斷指
서천군	효자	曹祐立	정려	斷指
서천군	효자	羅慶瑞	정려	斷指
서천군	효자	朴守忠	정려	斷指
서천군	효자	崔光屹	정려	화재에서 木主를 구하고 죽음
서천군	효자	金時兩	정려	아버지와 北關 마천령에서 귀환
서천군	열녀	崔順亨 妻 李氏	정려	화재에 목주를 구하고 죽음.
서천군	열녀	金順先 妻 金氏	정려	殉節
서천군	열녀	李近綱 妻 朴召史	정려	殉節
비인현	효자	俞遠基	복가, 증직	
비인현	효자	白時繼	復固辭(숙종 임진), 증직(영조 병진)	
비인현	효자	崔尙	정려	화재에 부친과 함께 죽음
비인현	효자	金萬奇	정려	虎患
비인현	열녀	具思謀 妻 高氏	정려	
비인현	열녀	金存孫 妻 權氏	정려	朝夕上墓, 守節
비인현	효자	羅慶瑞	정려(숙종)	
비인현	효자	羅舜孝	증직(영조 병진)	
비인현	효자	具廷斌	급복	居喪 3년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서천군지」 충·효·열 인물조에는 충신 2인, 효자 8인, 효녀 2인, 열녀 3인, 「비인현지」 인물조에는 효자 6인, 열녀 2인, 「한산군지」 인물조에는 충신 3인, 효자 20인, 효부 2인, 열녀 7인이

기록되어 있다.³⁶⁾

『호서읍지』(1871)에는 3개 군현의 읍지가 모두 실려 있는데, 「한산군읍지」의 경우에는 『충청도읍지』의 충·효·열 인물조와 동일하다. 「서천읍지」에는 충신 2인, 효자 8인, 효녀 2인, 열녀 4인이 수록되어 『충청도읍지』에 비해 열녀 1인[癸未新增]이 추가되어 있다. 「비인현읍지」에는 효자 7인, 열녀 2인으로 『충청도읍지』에 비해 효자 1인이 추가되었고, 충·효·열 인물의 수록순서도 다르다.

『[호서]읍지』(1895)의 「서천군지」 충·효·열 인물조에는 충신 1인, 효자 8인, 효부 2인, 열녀 3인이 기록되어 있어 『호서읍지』에 비해 충신이 1인 줄었고, 「비인현지」와 「한산군지」의 충·효·열 인물조는 『호서읍지』와 동일하다.

1929년에 간행된 『서천군지(舒川郡誌)』는 군수 하준환(河俊煥)이 부임하여 서천군의 기록이 갑오년 동학운동 이후 모두 소실되어 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1926년부터 지역의 유림들과 함께 자료를 채집하고 각종 지역현황을 파악하여 1929년에 완성한 것이다. 『군지』의 체제는 모두 9권으로 나뉘어 있고, 이것을 다시 상하(上下) 2책으로 묶었는데, 하 7권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조는 구지와 신증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충신 2인, 효자 8인, 효부 2인, 열녀 3인, 효행 77인, 열행 38인이 기록되어 있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간행되었으므로 현재의 서천군과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한편, 1996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0집 서천군편의 정려조사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편이다. 조사자는 기초 조사과정에서 충·효·열 인물에 대한 정려와 비석 41개소를 대상유적으로 찾아내었는데, 정려는 1910년 이전에 국가로부터 명정을 받아 건립된 28기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적의 설명방법은 ① 소재지, ② 유래·현황, ③ 관련자료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28기 가운데 충과 관련한 것이 2기, 효와 관련한 것이 19기(13기는 효자 1인, 2기는 효자 2인, 2기는 효자·열녀 각 1인씩, 1기는 효자 2

36) 명현으로 분류된 인물중 1인은 효행이 있어 포장받았으므로 효자에 포함시켰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인·효부 1인, 1기는 효자 5인), 열과 관련한 것이 9기(5기는 열녀 1인, 2기는 열녀 2인, 2기는 효자·열녀 각 1인씩)이다.³⁷⁾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서천군의 정려사례는 35건인데, 이 가운데 정려가 현존하는 경우는 5건이다.

<표 3-37> 문헌에서 확인된 서천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근대도지	현존여부	비 고
충신	張繼先	서천군	○	○	○	○	○		○	
효자	羅慶瑞	비인현		○	○	○	○		×	
효자	金萬奇	비인현		○	○	○	○		×	호환

37) 참고로 이들의 일람을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정려 명칭	소재지	命旌年代
1	孟氏 孝子碑	한산면 송상리	1392~1399
2	孝子 李種善 孝子碑, 旌閭	한산면 부촌리	1398(태조 7)
3	尹末貞 孝子碑	기산면 광암리	1655(효종 6)
4	孝子 李稔, 烈女 李惟榮妻 慶州李氏 旌閭碑閣	화양면 봉명리	1673(현종 14)
5	忠臣 張繼先 旌閭	문산면 금복리	1681(숙종 7)
6	烈女 盧激妻 高靈朴氏, 孝子 盧敬仁 旌閭	한산면 단산리	1688(숙종 14)
7	烈女 崔大應妻 扶餘徐氏 旌閭碑閣	마산면 나궁리	1748(영조 24)
8	烈女 羅斗慶妻 金海金氏, 羅鳳燦妻 慶州金氏 旌閭	서천읍 화금리	1824(순조 24)
9	孝子 李瑋 旌閭	종천면 석촌리	1847(헌종 13)
10	孝子 柳載煥 旌閭門	한산면 단산리	1854(철종 5)
11	孝子 李秉淵碑	마서면 덕암리	1860(철종 11)
12	孝子 羅東倫 旌閭	기산면 막동리	1862(철종 13)
13	烈女 劉漢承妻 益城金氏 旌閭	기산면 황사리	1869(고종 6)
14	池繼崔 忠臣門	관교면 후동리	1881(고종 18)
15	孝子 金濟亨 旌閭閣	마서면 어리	1883(고종 20)
16	孝子 成學淳 旌閭	기산면 화산리	1888(고종 25)
17	孝子 尹滋鶴 旌閭碑閣	기산면 신산리	1888(고종 25)
18	孝子 金鼎九, 孝婦 金元五妻 南平文氏 旌閭閣	기산면 광암리	1888(고종 25)
19	孝子 鄭仁教 旌閭	관교면 북대리	1888(고종 25)
20	孝子 李祖允·李用命 旌閭	비인면 칠지리	1889(고종 26)
21	烈女 劉秉植妻 驪陽陳氏 旌閭	문산면 금복리	1889(고종 26)
22	孝子 李在元·李在貞, 孝婦 李在貞妻 靑松沈氏 旌閭	서 면 부사리	1892(고종 29)
23	孝子 金溶鉉 旌閭	서 면 도둔리	1893(고종 30)
24	烈女 朴厚鎭妻 金海金氏 旌閭	한산면 나교리	1894(고종 31)
25	烈女 趙燾妻 善山金氏, 趙珍九妻 龍宮全氏 旌閭門	서천읍 둔덕리	1904
26	烈女 趙東信妻 金海金氏 旌閭碑閣	마산면 마명리	1904
27	孝子 秋萬基·秋泰基 兄弟 旌閭碑閣	장항읍 옥남동	1906
28	坡平尹氏 五孝子 記蹟碑(玉山祠)	마서면 옥산리	1909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근대도지	현존여부	비 고
효자	崔尙	비인현		○	○	○	○		×	화재에 부친과 함께 죽음
효자	崔光屹	서천군		○	○	○	○		×	화재에서 木主를 구하고 죽음
효자	金時兩	서천군		○					×	아버지와 北關 마천령에서 귀환
효자	羅慶瑞	서천군		○	○	○	○		×	斷指
효자	曹祐立	서천군		○	○	○	○		×	斷指
효자	金處溫	서천군		○	○	○	○		×	斷指
효자	朴守忠	서천군		○	○	○	○		×	斷指
효자	金得連金	한산군		○	○	○	○	○	×	斷指
효자	尹木精	한산군		○	○	○	○	○	○	
효자	金古同	한산군		○	○	○	○	○	×	부모봉양
효자	李稔	한산군		○	○	○	○	○	○	三年侍墓
효자	李夏	한산군		○	○	○	○	○	×	
효자	朴地	한산군		○	○	○	○	○	×	
효자	李廉	한산군		○	○	○	○	○	×	
효자	申準	한산군		○	○	○	○	○	×	嘗糞
효자	金聲	한산군		○	○	○	○	○	×	斷指
효자	盧敬仁	한산군		○	○	○	○	○	○	정유재란에 죽음
효자	方秀幹	한산군		○	○	○	○	○	×	병구환, 三年侍墓
효자	權槁	한산군		○	○	○	○		×	인물조에 포함
효부	李聖錫 妻 安氏	한산군		○	○	○	○	○	×	斷指
열녀	具思謀 妻 高氏	비인현		○	○	○	○		×	
열녀	仁壽府 婢 春非	비인현	○						×	斷指(중종 8)
열녀	金存孫 妻 權氏	비인현		○	○	○	○		×	朝夕上墓, 守節
열녀	李近綱 妻 朴召史	서천군		○	○	○	○		×	殉節
열녀	金順先 妻 金氏	서천군		○	○	○	○		×	殉節
열녀	崔順亨 妻 李氏	서천군		○	○	○	○		×	화재에 목주를 구하고 죽음
열녀	羅斗慶 妻 金海金氏	서천군				○			○	계미신증(『호서읍지』)
열녀	士人 金漢祚 妻 權氏	한산군		○	○	○	○	○	×	殉節
열녀	業武 金光斑 妻 羅氏	한산군		○	○	○	○	○	×	殉節
열녀	李氏	한산군		○	○	○	○	○	×	殉節
열녀	崔公儉 妻 李氏	한산군		○	○	○	○	○	×	殉節
열녀	步兵 金廷郁 妻 全氏	한산군		○	○	○	○	○	×	殉節

11. 청양군

청양군은 1914년에 청양군과 정산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청양군이 되었다. 청양에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구로국(狗盧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며, 삼국 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이 설치되었고, 삼국 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고량부리현을 청정현(靑正縣) 또는 청무현(靑武縣)이라 개칭하여 임성군(任城郡 : 지금의 대흥)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초에는 청양현(靑陽縣)으로 개칭하였으며, 1018년(현종 9)에는 청양현을 천안부(天安府)에 소속시켜 속현으로 삼았다. 그 뒤 청양현은 홍주(洪州)에 영속되었다가, 1395년(태조 4)에는 감무가 파견되기 시작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는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고치는 규례에 따라 현감이 파견되었다. 1668년(현종 9)에는 청양현을 정산현에 합하고 명칭도 정양현(定陽縣)으로 고쳤다가, 1674년에 다시 청양현과 정산현으로 분리하였다. 1895년(고종 32) 청양현을 청양군으로 개칭하였으며, 1914년 군면폐합을 실시하면서 정산군을 청양군에 편입시켰다.

정산(定山)은 본래 백제의 열기현(悅己縣, 또는 豆陵·尹城·豆串)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에 열성현(悅城縣)으로 고쳐서 부여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940년(태조 23)에 정산현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에 공주목의 속현이 되었다가 뒤에 복구하여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두었고, 1895년(고종 32)에 군이 되었다가, 1914년 대면(大面)과 잉면(仍面)을 합쳐 정산면으로 한 다음 청양군에 병합시켰다.

따라서 청양군과 관련있는 지명은 구로국(狗盧國)·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청정현(靑正縣)·청무현(靑武縣)·청양현(靑陽縣)·정양현(定陽縣)·청양군·열기현(悅己縣, 또는 豆陵·尹城·豆串)·열성현(悅城縣)·정산현·정산군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청양군과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청양군의 충·효·열 인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55년(단종 3)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청양군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청양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3건(효자 1건, 열녀 2건), 정산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2건(충 1건, 충효 2건)으로 모두 5건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8> 역대 『실록』에 기록된 청양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55	청양	學生 中元仲 妻 所文	열녀(守節)	복호	『단종실록』 14, 3/5/무오
1596	정산	校生 金慶瑞	충(이몽학난)	논상	『선조실록』 78, 29/8/경신
	정산	衙前 金有日	충,효(이몽학난)	은전	『선조실록』 78, 29/8/경신
1719	청양	韓道東 妻 崔氏	효자	정려	『숙종실록』 64, 45/11/무인
1822	청양	良人 李重馥 妻 金姓	열녀	정려	『순조실록』 25, 22/3/병진

조선시대 윤리서에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청양군의 충·효·열 인물로 모두 3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효자도에 청양현 인물 1인, 열녀도에 정산현 인물 2인이 있다.

<표 3-39>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청양군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卷七	靑陽縣	조선	幼學林萱	林萱廬墓
	烈女圖	卷二	定山縣	조선	正兵李允妻玉杯	玉杯遂虎
	烈女圖	卷三	定山縣	조선	正兵尹有成妻良女注叱德	注叱德縊死

지리지에서 청양군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부터인데, 청양현은 한명도 없고, 정산현에 열녀 이윤(李允) 처 옥배(玉杯) 1인이 실려 있다. 이 열녀 옥배는 『실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 정산현의 열녀 옥배(玉杯)는 이운(李允)의 아내이다. 그 남편이 범에게 몰려가는데 옥배가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몽둥이로 치며 크게 소리지르니, 범이 곧 버리고 달아났다. 금상[중종] 14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청양현에 19인(충 1, 효 15, 열 3)이 있다. 이 중에서 정려를 받은 인물이 9인, 증직이 3인(2인은 정려와 중복), 복호가 7인, 논상(論賞)이 2인이다. 정산현에는 충신 1인, 효자 1인, 열녀 2인이다.

<표 3-40> 『여지도서』에 수록된 청양군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청양현	효자	李承吉	복호(현종 무술)	부친 병구환
청양현	효자	姜淳	정려	
청양현	효자	林禮傑	정려(명종)	병구환, 지극한 喪禮.
청양현	효자	林萱	정려(선조), 증직	喪禮, 廬墓
청양현	효자	李後男	정려(효종)	斷指, 廬墓
청양현	효자	韓時珍	복호(효종)	嘗糞, 廬墓
청양현	효자	金邦弼	복호(효종)	斷指, 喪禮
청양현	효자	李五狀	論賞(현종)	斷指
청양현	효자	盧逸龍	정려(현종 병오)	斷指, 廬墓
청양현	효자	張啓漢	論賞(영조 병인)	廬墓
청양현	효자	金萬昌	복호	斷指
청양현	효자	李汝樑	증직, 褒旌	
청양현	효자	李錫福	복호(숙종)	斷指
청양현	효자	劉萬彩	복호	斷指, 居喪 3년
청양현	효부	幼學 李天民 妻 金氏	복호(영조 병인)	嘗糞, 省墓.
청양현	열녀	士人 郭時翰 妻 趙氏	정려	斷指, 割股
청양현	열녀	韓東道 妻 崔氏	정려	殉節
청양현	열녀	貢生 朴泰儉 妻 金氏	정려	殉節
청양현	충신	朴信龍	증직(영조 을축)	정묘호란 전사
정산현	충신	李梯吉	정려(영조)	병자호란 殉節
정산현	효자	尹聘三	정려, 증직(숙종)	割股
정산현	열녀	正兵 李允 妻 玉杯	정려(今無)	虎患
정산현	열녀	學生 趙廷瑞 妻 鄭氏	정려(康熙壬子)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청양현지」 충·효·열 인물조에는 효자 14인, 효부 1인, 열녀 3인, 충신 1인이 기록되어 있고, 「정산현지」에는 충신 1인, 효자 1인, 열녀 2인이 기록되어 있다.

『호서읍지』(1871)의 「청양현지」와 「정산현지」충·효·열 인물조는 『충청도읍지』의 인물조를 그대로 전사한 것이다. 『[호서]읍지』(1895)에는 청양과 정산의 읍지가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06년(고종 43)에 편찬된 『청양읍지(靑陽邑誌)』는 당시 청양현감으로 있던 이재신(李在信)이 유실된 구지(舊誌)의 일부를 보충하여 편찬한 것으로 현존하는 충청도의 사찬읍지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읍지의 충신, 효자, 열녀조는 국가로부터 포장받은 인물은 물론, 충·효·열 행적이 알려진 모든 경우를 수록하여 편찬 당시 생존인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충신 1인, 효행 29인, 효녀 2인, 열행 10인 등이 기록되어 있다.

1995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8집 청양군편에는 모두 22기의 정려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충과 관련된 것이 4기(3기는 충신 1인, 1기는 충신·효자 각 1인), 효와 관련된 것이 13기(6기는 효자 1인, 4기는 각각 효자 2인, 1기는 충신·효자 각 1인, 1기는 효자·열녀 각 1인, 1기는 孝烈婦), 열과 관련된 것이 6기(4기는 열녀 1인, 1기는 효자·열녀 각 1인, 1기는 孝烈婦), 미상 2기이다.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청양군의 정려사례는 15건인데, 이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5건이다.

<표 3-41> 문헌에서 확인된 청양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근대 도지	현존 여부	비 고
충신	李梯吉	정산현		○	○	○	○	○	병자호란 殉節
효자	尹聘三	정산현		○	○	○	○	×	割股
효자	李汝樑	청양현		○	○	○	○	×	
효자	李後男	청양현		○	○	○	○	×	斷指, 廬墓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근대 도지	현존 여부	비 고
효자	姜淳	청양현		○	○	○	○	×	
효자	林禮傑	청양현		○	○	○	○	○	병구환, 喪禮.
효자	盧逸龍	청양현		○	○	○	○	○	斷指, 廬墓
효자	林肯	청양현		○	○	○	○	○	喪禮, 廬墓
효녀	韓道東 妻 崔氏	청양현	○					×	
열녀	正兵 李允 妻 玉杯	정산현		○	○	○	○	×	虎患
열녀	學生 趙廷瑞 妻 鄭氏	정산현		○	○	○	○	×	
열녀	士人 郭時翰 妻 趙氏	청양현		○	○	○	○	×	斷指, 割股
열녀	貢生 朴泰儉 妻 金氏	청양현		○	○	○	○	×	殉節
열녀	良人 李重馥 妻 金姓	청양현	○					○	
열녀	韓東道 妻 崔氏	청양현		○	○	○	○	×	殉節

12. 홍성군

홍성에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과 사로국(駟廬國)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비정되며,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지금의 홍성읍지역에 사시랑현(沙尸良縣), 결성면지역에 결기군(結己郡), 장곡면지역에 사평현(沙平縣)이 각각 두어졌다. 그 뒤 통일신라시대에는 757년(경덕왕 16) 사시랑현을 신평현(新平縣)으로, 결기군을 결성군(潔城郡)으로, 사평현을 신평현(新良縣)으로 고치고, 신평현을 혜성군에, 신평현을 결성군에 각각 소속시켜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995년(성종 14)에 운주(運州)라 하고 도단련사(都團練使)를 파견하였으며, 1012년(현종 3)에는 도단련사를 폐지하고 대신 지주사(知州事)를 두었다. 그 뒤 홍주(洪州)로 개칭하였으나,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1356년(공민왕 5) 왕사(王師) 보우(普愚)의 내향(內鄉)이라 하여 홍주목(洪州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368년에 홍주로 복구되었고, 1371년에 다시 홍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홍주목이라 하였는데, 세조 때 진(鎭)을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1661년(현종 2)에는 한때 홍양현(洪陽縣)으로 강등되었다가 복구되었으며, 1895년 지방제도가 23부제로 개편됨에 따라 홍주부로 승격되어 인근의 22개군을 관할하였으나, 1896년에는 13도제의 실시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따라 충청남도 홍주군(2등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914년에는 홍주군과 결성군을 통합하고 보령군의 일부를 편입하여 홍성군이라 하였다. 1983년 서산군 고북면 대사리가 홍성에 편입되었고, 1989년에는 태안군 안면읍 죽도리가 서부면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홍성군과 관련있는 지명은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사로국(駟廬國)·사시량현(沙尸良縣)·결기군(結己郡)·사평현(沙平縣)·신평현(新平縣)·결성군(潔城郡)·신량현(新良縣)·운주(運州)·홍주(洪州)·홍양현(洪陽縣)·홍주부(洪州府)·홍주군·홍성군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홍성군과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홍성군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홍주목 임내 신평현의 효녀에 관한 1406년(태종 6)의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홍성군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 보면, 홍주목의 충·효·열 포장사례 10건(충 1건, 효자 5건, 효부 1건, 열녀 3건), 결성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4건(효자 2건, 열녀 1건, 효열 1건), 신평현의 충·효·열 사례 1건(효녀), 홍성군 지역으로 추정되는 포장사례 1건(열녀)으로 모두 16건이다. 이 가운데 홍주목의 사인(士人) 홍순개(洪舜凱)는 1691년에 정려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때에 이 가문에서 송사가 벌어지면서 명정 사실이 언급된 경우이다.³⁸⁾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42> 역대 『실록』에 기록된 홍성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06	신평	郎將 權止의 女	효녀(侍墓)	정려	『태종실록』 12, 6/7/임자
1428	홍주	李仲贊 妻 林氏	열부	(예조보고)	『세종실록』 42, 10/10/병오
1431	홍주	陳謹	효자(侍墓)	복호	『세종실록』 54, 13/10/기미
1455	결성	生員 黃裳古	효자(侍墓)	서용	『단종실록』 14, 3/5/무오

38) 한편, 조선시대에 홍주의 임내에 속해 있던 신평현의 경우에는 1914년에 당진군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낭장 권지의 딸은 엄밀히 말하면 당진군의 효녀에 포함된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72	홍주	藝文館檢閱 卜承貞	효자	탁용	『성종실록』 15, 3/2/을유
1528 1529	결성	結城 俞恒	효자	관직하사 복호, 상물	『중종실록』 62, 23/8/경신 『중종실록』 65, 24/6/임오
1565	결성	幼學 文九容 妻 梁氏	열녀(嘗糞, 殉節)	정려, 복호	『명종실록』 31, 20/1/임자
1596	홍주	生員 李翼賓	충(이몽학난)	논상	『선조실록』 78, 29/8/경신
1678	홍주	金震元	효자	상물	『숙종실록』 7, 4/3/신축
1691	홍주	士人 洪舜凱	효자	정려	『숙종실록』 23, 17/3/정미
1779	결성	縣吏 張溟翹 妻와 女	효열	정표	『정조실록』 7, 3/3/신해
1808	홍주	下吏 金宗甲 妻 林姓	효부	정려	『순조실록』 11, 8/6/을사
1821	홍주	學生 具載禎	효자	증직	『순조실록』 23, 21/2/병오
1822	홍주	士人 許殷洙 妻 李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25, 22/3/병진
1822	?	李儒秀 妻 邊氏	열행	정려	『순조실록』 25, 22/3/무신
1832	홍주	士人 李鵬浩 妻 金氏	열녀	정려	『순조실록』 32, 32/4/기축

조선시대의 윤리서에는 홍성의 충·효·열 인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효자도」에 홍주인 2인만 등재되어 있다.

<표 3-43>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홍성군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	孝子圖	卷七	洪州	조선	朴文英	文英禱天
綱行實圖	孝子圖	卷七	洪州	조선	幼學李忠立 妻 朴氏	朴氏斷指

지리지에서 홍성군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홍주목 효자 2인이 처음이다. 모두 자세한 효행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인물 각각의 신분과 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확인된다. 효자 복한(卜僩)은 벼슬이 장령(掌令)에 이르렀고, 효자 한원발(韓元發)은 지방 아전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실록』에서도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표 3-44> 『여지도서』에 수록된 홍성군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홍주목	충신	成三問	사액서원	
홍주목	효자	李舒		
홍주목	효자	卜儻	정문	
홍주목	효자	韓元發	정문	
결성현	충신	李栲	褒典	병자호란 선전관 전사
결성현	효자	方璨成	정려	
결성현	열녀	徐經世 妻 李氏	정려	
결성현	열녀	田天祥 妻 李氏	정려	
결성현	열녀	朴壽百 妻 殷召史	정려	
결성현	열녀	金貴宗 妻 柳召史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서 충·효·열 인물은 홍주목에 4인(충 1, 효 3), 결성현에 5인(충 1, 효 1, 열 3)이 기록되어 있다. 홍주목에서 정려를 받은 것은 2건이고, 서원에 배향되어 사액받은 경우가 1건이다. 결성현은 정려를 받은 것이 4건이고, 포전(褒典)된 것이 1건이다. 조선시대 홍주는 충청도의 4목(牧) 가운데 한 고을로 면적과 인구가 주변고을에 비해 컸음에도 불구하고, 충·효·열 인물의 수가 적은 편이다.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홍주목지」 충·효·열 인물조에는 절행 7인(고려 4, 조선 3), 효자 3인이 있을 뿐인데, 후대의 인물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성현지」에는 충신 1인, 효자 5인, 효녀 1인, 열녀 6인이 기록되어 있다.

『호서읍지』(1871)에 실려 있는 「홍주목읍지」는 내용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물조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결성현지」에는 충신 1인, 효자 1인, 열녀 5인의 포상내역만 간단하게 적혀 있어 『충청도읍지』보다 인물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호서]읍지』(1895)에는 홍주의 읍지가 없으며, 「결성현지」에는 인물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洪城郡誌)』³⁹⁾에는 인물조

39) 郡守 李敏寧이 부임한 후 홍주와 결성의 옛 舊誌를 참고로, 각종 기록을 채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에 충·효·열 관련 인물로 충신 9인, 효행 34인(효부, 충노 포함), 열행 19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각각의 인물마다 행적이 자세하게 첨부되어 있다. 이 군지는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홍주와 결성이 합쳐져 홍성군이 된 이후에 편찬되었으므로 현재의 홍성군과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충·효·열 인물이 이전의 읍지에 비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충·효·열 연구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홍성군의 충·효·열 정려사례는 모두 28건이고, 이 가운데 현존하는 정려는 9건이다.

<표 3-45> 문헌에서 확인된 홍성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홍성 군지	현존 여부	비 고
충신	俞瀼						○	○	1867년(고종4)
충신	鄭雷卿						○	×	정조 신해년
충신	韓基慶						○	×	동학군 토벌중 신레원에서 전사
효자	士人 洪舜凱	홍주목	○					×	
효자	卜僩	홍주목		○			○	×	
효자	韓元發	홍주목		○			○	×	
효자	方璨成	결성현		○	○	○	○	×	현종조
효자	吳載禎						○	×	嘗冀, 1821년(순조 21)
효자	金振遠						○	×	
효자	朴基龍						○	○	철종 계해년
효자	吳敏燮						○	×	
효자	李長新						○	○	고종 기묘년
효자	鄭海龍						○	○	고종 계해년
효부	李忠立 妻 密陽朴氏						○	×	고종 갑자년
효부	下吏 金宗甲 妻 林姓	홍주목	○					×	
열녀	士人 李鵬浩 妻 金氏	홍주목	○					×	
열녀	士人 許殷洙 妻 李氏	홍주목	○					×	
열녀	朴壽百 妻 段召史	결성현		○	○	○	○	○	영조조
열녀	田人祥 妻 李氏	결성현		○		○	○	○	
열녀	幼學 文九容 妻 梁氏	결성현	○					×	嘗冀, 殉節
열녀	徐經世 妻 李氏	결성현		○	○	○	○	×	숙종조
열녀	柳春培 妻 李氏	결성현			○	○	○	×	숙종조
열녀	金貴宗 妻 柳召史	결성현			○	○	○	×	

제 3 장 忠南의 忠 · 孝 · 烈 文獻資料 分析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홍성 군지	현존 여부	비 고
열녀	趙安邦 妻 鄭氏	결성현			○			×	
열녀	張溟初 妻 裴氏	결성현	○				○	○	정조 무신년
열녀	水使 李儒秀 妻 原州邊氏	?	○				○	○	순조 임오년
열녀	趙聖元 妻 牛峯李氏						○	○	
열녀	貞夫人 礪山宋氏						○	×	고종 정해년

13. 예산군

현재의 예산군은 1914년에 예산군·대흥군·덕산군과 공주의 일부를 합하여 설립된 것이다.

예산은 백제 때 오산현(烏山縣)이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에 고산현(孤山縣)으로 개칭하여 임성군(任城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이 고산현이 919년(태조 2)에 예산현(禮山縣)으로 개칭되었고, 1018년(현종 9)에 천안부에 속하였으며,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1413년에 현감이 파견되었다. 1895년에는 홍주부 예산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 충청남도 예산군이 되었고, 1914년에 대흥군과 덕산군을 통합하게 되었다.

대흥은 백제 때 임존성(任存城) 혹은 금주(今州)로, 경덕왕 때 임성군으로 고쳤다. 이 임성군이 940년에 대흥군(大興郡)으로 개칭되었고, 1018년에 홍주(洪州)에 속하였으며, 1172년(명종 2)에 감무를 두었다가, 1413년에 현감이 파견되었다. 1895년에는 홍주부 대흥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 충청남도 대흥군이 되었고, 1914년에 예산군에 통합되었다.

덕산은 백제 때 마시산군(馬尸山郡)이라고 하였으며, 경덕왕 때 이산군(伊山郡)으로 고치고 웅주에 예속시켰다. 1018년에는 홍주에 속하였고, 뒤에 감무를 두었다가, 1405년(태종 5) 덕풍현과 합쳐서 덕산(德山)으로 개칭하였다. 한편 덕풍현(德豐縣)은 백제 때 금물현(今勿縣)이었고, 경덕왕 때 금무(今武)로 개칭하여 이산군의 영현으로 삼았다가, 고려초에 덕풍(德豐)으로 고치고, 현종 때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홍주에 속하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었다. 덕산현에도 1913년부터 현감이 파견되었고, 1895년에 홍주부 덕산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에 충청남도 덕산군이 되었고, 1914년에 예산군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예산군과 관련 있는 지명은 오산현(烏山縣)·고산현(孤山縣)·예산현(禮山縣)·예산군·임존성(任存城)·금주(今州)·임성군·대흥군(大興郡)·마시산군(馬尸山郡)·이산군(伊山郡)·덕산현(德山縣)·덕풍현(德豐縣)·금물현(今勿縣)·금무(今武)·덕산군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예산군과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예산군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20년(세종 2)의 호장 이성만에 관한 기사이다.⁴⁰⁾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예산군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예산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4건(효자 3건, 열녀 1건), 대흥현의 충·효·열 포장사례 5건(효자 2건, 열녀 3건), 덕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5건(효자 4건, 열녀 1건), 예산군 지역으로 추정되는 포장사례 2건(충신)으로 모두 16건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46> 역대 『실록』에 기록된 예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20	대흥	戶長 李成萬	효자	정려	『세종실록』 7, 2/1/경신
1428	대흥	金順	효자	예조의 계	『세종실록』 42, 10/10/병오
1431	대흥	朴根 妻 郭氏	열녀(守節)	복호	『세종실록』 54, 13/10/기미
1454	예산	李開祐	효자(斷指)	상물	『단종실록』 12, 2/8/병신
1464	예산	李千海 子 李開祐	효자(斷指)	정려,복호,서용	『세조실록』 34, 10/9/무진
1503	예산	戶長 張仲淵의 女 每 邑德	열녀(守節)	정려, 복호	『연산군일기』 49, 9/4/을축
1528	덕산	良女 寶德	열녀	상물	『중종실록』 62, 23/8/경신

40)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에서는 李成萬이 고려시대 大興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려사』에서는 이성만에 관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535	예산	鄉吏 方萌	효자	상물, 복호	『중종실록』 79, 30/3/갑신
1535	대흥	金永壽 妻 申氏	열녀	상물, 복호	『중종실록』 79, 30/3/갑신
1547	덕산	校生 金應臣	효자(삼년상)	정문, 복호	『명종실록』 6, 2/12/정축
1701	(덕산)	兵使 李義培	충신(殉節)	추증, 賜祭	『숙종실록』 35, 27/6/신유
		李穆	충신(殉節)	정려	
1739	대흥	朴家 子婦 禹氏	열녀(守節, 피살)	정려	『영조실록』 49, 15/3/갑자
1807	덕산	士人 李德采	효자	증직	『순조실록』 10, 7/3/기미
1829	덕산	士人 吳命瀾	효자	정려	『순조실록』 30, 29/3/을사
1831	덕산	士人 吳命熙	효자	정려	『순조실록』 32, 31/6/신축

조선시대의 윤리서에는 예산군의 충·효·열 인물로 모두 10명이 등재되어 있으나,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에 예산현 3명, 덕산현 2명, 대흥현 2명, 열녀도에 예산현 1명, 대흥현 2명이다.

<표 3-47>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예산군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卷一	大興縣	고려	李成萬	成萬守墳
	孝子圖 卷三	禮山縣	조선	幼學 朴忠	朴忠廬墓
	孝子圖 卷四	禮山縣	조선	鄉吏 方萌	方萌廬墓
	孝子圖 卷五	禮山縣	조선	奉事 李文卿	文卿居廬
	孝子圖 卷七	大興縣	조선	幼學 朴元忠	元忠孝友
	孝子圖 卷八	德山縣	조선	私奴 允熙 風伊	二子誠孝
	孝子圖 卷八	德山縣	조선	庶人 白春福	春福斷指
	烈女圖 卷一	禮山縣	조선	戶長 張仲淵 女 每邑德	每邑德斷髮
	烈女圖 卷一	大興縣	고려	朴根 妻 郭氏	郭氏廬墓
	烈女圖 卷八	大興縣	조선	內奴 仁洪妻 私婢 春德	春德守節

지리지에서 예산군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승람』부터인데, 예산현에 조선조의 효자 2인, 열녀 1인, 대흥현에 고려조 효자 1인, 조선조 열녀 1인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예산의 효자 김근(金勤)을 제외하면 모두 『실록』에서도 확인된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예산현에 17인(효 12, 열 5), 덕산현에 30인(충 5, 효 17, 열 8), 대흥군에 17인(효 11, 열 6)이 있다. 여기에서 덕산현의 경우는 인물조 내에 충·효·열의 구분은 없다. 포장내용을 보면, 예산현의 경우 정려 10건, 증직 1건, 가자 1건, 제직(除職) 1건, 향천(鄉薦) 2건이고, 덕산현은 정려 17건, 증직 10건(6건은 정려와 중복), 복호 6건이며, 대흥군은 정려 12건, 증직 1건, 복호 4건이다.

<표 3-48> 『여지도서』에 수록된 예산군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예산현	효자	處士 李思檢		嘗糞, 喪禮
예산현	효자	金勤	정문	
예산현	효자	李開石	정문	
예산현	효자	直長 李文鄉	정문	
예산현	효자	朴忠	정문(만력 원년)	三年侍墓, 朝夕之奠
예산현	효자	戶長 方崩	정문	
예산현	효자	金孟		
예산현	효자	李耆嫻	除職 贈金吾郎	7세에 斷指
예산현	효자	郡守 鄭世翊	鄉薦	斷指
예산현	효자	鄭世良	鄉薦	斷指, 3년의례
예산현	효자	朴信興	충효문, 가자(戊寅)	병구환, 追喪, 무신란
예산현	효부	進士 李尙賓 妻 申氏	정문	남편사후 시부모를 모심
예산현	열녀	戶長 孫仲淵 女 每邑德	정문	남편이 죽자, 중이됨.
예산현	열녀	金違 妻 韓氏	정문	
예산현	열녀	鶴今		
예산현	열녀	韓弘祚 妻 禹氏	정문	
예산현	열녀	土人 金泰璧 妻 姜氏	정문	殉節
대흥군	효자	[고려]李成萬	정려	
대흥군	효자	崔承立	정려(현종)	
대흥군	효자	尹思誠		
대흥군	효자	朴元忠	정문	
대흥군	효녀	朴枝帶 妻 姜氏	복호	斷指
대흥군	효자	土人 車命徵·敬徵 兄弟	복호, 정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대흥군	효자	士人 牟萬重	정려	
대흥군	효자	良人 崔望回	정려	
대흥군	효자	良人 田斤金	정려(금상)	
대흥군	효자	進士 李星規 妻 鄭氏	복호	
대흥군	효자	士人 俞受基	증직	
대흥군	열녀	[고려] 郭氏	정려	
대흥군	열녀	私婢 春德	정려	
대흥군	열녀	學生 朴誠望 妻 黃氏	복호	
대흥군	열녀	上人 李時培 妻 宋氏	정려(금상)	守節
대흥군	열녀	元氏	정려	守節
대흥군	열녀	通引 洪德祚 妻 李召史	정려	殉節
덕산현	효자	趙克善	정려(현종 병오), 증직	학행, 斷指
덕산현	충신	韓楯	증직(효종), 정려(숙종조)	전사(임진왜란)
덕산현	충신	尹汝益	증직(숙종조)	임진왜란 금산전투 전사
덕산현	충신	李義培	증직, 정려	
덕산현	충신	李穆	증직, 정려	이괄의 난에 죽음
덕산현	충신	李攄	증직, 정려	병자호란 전사
덕산현	효자	朴承休	정려	모병 斷指, 호란 호종, 창의
덕산현	효자	朴承健	증직, 정려	
덕산현	효자	司果 李甲俊	정려	모병 斷指
덕산현	효부	李甲俊 妻 李氏	급복	
덕산현	효자	學生 申晶	정려	처 박씨와 함께 斷指
덕산현	효자	佐郎 楊萬榮	정려(숙종조)	
덕산현	효자	學生 洪啓聖	급복	割股
덕산현	효자	學生 朴尙冑	증직	斷指, 割股
덕산현	효자	學生 成漢翼·生員 成雲翼	증직	斷指
덕산현	효자	忠義 崔俊發·崔俊天·崔俊克	급복	斷指, 3년여묘
덕산현	효자	李秬	증직	嘗糞, 3년의례
덕산현	효자	老職通政 崔景望	급복	斷指
덕산현	효자	同知 李弘肇	급복	
덕산현	효자	學生 尹東雨	급복	割股
덕산현	효자	學生 李後發	급복	嘗糞, 斷指.
덕산현	열녀	鄭見龍 妻 貞夫人 李氏	정려	守節
덕산현	열녀	權還 妻 李氏	정려	守節
덕산현	열녀	學生 李光冑 妻 魚氏	급복	守節
덕산현	열녀	柳梯男 妻 朴氏	정려	병자호란 적을 피해 자살
덕산현	열녀	姜孝閔 妻 張氏	정려	병자호란에 자살
덕산현	열녀	李汝珏 妻 尹氏	정려	3년상을 마친후 殉節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덕산현	열녀	李俊傑 妻 崔氏	정려	자살
덕산현	열녀	李福龍 妻 寺婢 有德	정려	병자호란에 적을 피해 자살
덕산현	효녀	私婢 再介	정려	割股, 嘗糞, 3년상.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에는 「예산현지」와 「덕산현지」만 수록되어 있고, 대흥현지는 빠져 있다. 「예산현지」에는 충·효·열 인물조에 효자 11인, 효부 1인, 열녀 4인이 수록되어 있고, 「덕산현지」에는 인물조에 충·효·열 구분없이 41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충·효·열로 분류되는 인물은 충신 5인, 효자 18인, 효부 1인, 효녀 1인, 열녀 8인이다.

『호서읍지』(1871)에는 3개 군현의 읍지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현읍지」와 「덕산군지」의 충·효·열 인물조는 『충청도읍지』와 내용이 같으며, 「대흥군지」는 효자 12인, 효부 2인, 열녀 6인이 기록되어 있다.

『[호서]읍지』(1895)에는 「덕산현지」만 수록되어 있는데, 인물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1995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9집 예산군편에는 모두 34기의 정려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충과 관련된 것이 4기(2기는 충신 1인, 1기는 충신표자 1인, 1기는 충신·효자 각 1인), 효와 관련된 것이 26기(13기는 효자 1인, 7기는 효자 2인씩, 1기는 효자·효부 각 1인, 1기는 효자·효열부 각 1인, 1기는 효부, 1기는 충신표자 1인, 1기는 충신·효자 각 1인, 1기는 효자·절부·열녀 각 1인), 열과 관련된 것이 8기(6기는 열녀, 1기는 효자·효열부 각 1인, 1기는 효자·절부·열녀 각 1인)이다.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예산군의 정려사례는 모두 49건인데, 이 가운데 현존하는 정려는 13건에 불과하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표 3-49> 문헌에서 확인된 예산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호서] 읍지	현존 여부	비 고
충신	韓楯	덕산현		○	○	○		○	임진왜란 전사
충신	李穆	덕산현	○	○	○	○		×	이괄의 난에 죽음
충신	李億	덕산현		○	○	○		○	병자호란 전사
충신	李義培	덕산현	○	○	○	○		※	회암서원 배향(신도비 있음)
효자	良人 崔望回	대흥군		○		○		×	
효자	朴元忠	대흥군		○		○		×	
효자	良人 田斤金	대흥군		○		○		×	
효자	士人 車命徵·敬徵 兄弟	대흥군		○		○		○	
효자	崔承立	대흥군		○		○		○	
효자	[고려]李成萬	대흥군	○	○		○		○	효자비 있음
효자	士人 牟萬重	대흥군		○		○		×	
효자	金邦彦 致和 父子	대흥군				○		○	
효자	俞受基	대흥군				○		×	
효자	朴承休	덕산현		○	○	○		○	母病 斷指, 호란 호중, 창의
효자	趙克善	덕산현		○	○	○		○	학행, 斷指
효자	學生 申晶	덕산현		○	○	○		×	처 박씨와 함께 斷指
효자	佐郎 楊萬榮	덕산현		○	○	○		×	
효자	司果 李甲俊	덕산현		○	○	○		×	모병 斷指
효자	朴承健	덕산현		○	○	○		×	
효자	校生 金應臣	덕산현	○					×	3년상
효자	士人 吳命滄	덕산현	○					×	
효자	士人 吳命熙	덕산현	○					×	
효자	直長 李文鄉	예산현		○	○	○		×	
효자	朴信興	예산현		○	○	○		○	병구환, 追喪, 무신란
효자	金勤	예산현		○	○	○		×	
효자	戶長 方崩	예산현		○	○	○		○	
효자	朴忠	예산현		○	○	○		×	三年侍墓, 朝夕之奠
효자	李千海 子 李開祐	예산현	○	○	○	○		×	
효자	金孟	예산현			○	○		×	
효녀	私婢 再介	덕산현		○	○	○		×	割股, 嘗糞, 3년상.
효부	進上 李尙賓 妻 申氏	예산현		○	○	○		×	남편사후 시부모를 모심
열녀	士人 李時培 妻 宋氏	대흥군		○		○		×	守節
열녀	私婢 春德	대흥군		○		○		×	
열녀	[고려] 郭氏	대흥군		○		○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현존여부	비 고
열녀	通引 洪德祚 妻 李召史	대흥군		○		○		×	殉節
열녀	元氏	대흥군		○		○		×	守節
열녀	學生 朴聖望 妻 黃氏	대흥군				○		×	
열녀	朴家 子婦 禹氏	대흥군	○					×	守節, 피살
열녀	鄭見龍 妻 貞夫人李氏	덕산현		○	○	○		○	守節
열녀	姜孝閔 妻 張氏	덕산현		○	○	○		×	병자호란에 殉節
열녀	李俊傑 妻 崔氏	덕산현		○	○	○		×	殉節
열녀	權還 妻 李氏	덕산현		○	○	○		×	守節
열녀	柳梯男 妻 朴氏	덕산현		○	○	○		×	병자호란, 殉節
열녀	李汝玉 妻 尹氏	덕산현		○	○	○		×	3년상을 마친후 殉節
열녀	李福龍 妻 寺婢有德	덕산현		○	○	○		×	병자호란, 殉節
열녀	金違 妻 韓氏	예산현		○	○	○		×	
열녀	土人 金泰璧 妻 姜氏	예산현		○	○	○		×	殉節
열녀	韓弘祚 妻 禹氏	예산현		○	○	○		○	
열녀	戶長 孫仲淵 女 每邑德	예산현	○	○	○	○		×	남편이 죽자, 중이됨.

14. 태안군

태안은 마한의 신소도국(臣蘇塗國)이었다가, 백제의 근초고왕 때 백제권에 들어가 성대혜현(省大兮縣)이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757년(경덕왕 16)에 기군(基郡)이 부성군으로 고쳐질 무렵 성대혜현이 소태현(蘇泰縣 또는 蘇州)으로 되었다. 1018년(현종 9)에는 소태현이 부성군의 속현에서 운주(運州:지금의 홍성)에 속하게 되었으며, 충렬왕 때에 소태현 출신인 환관李大順(李大順)이 원나라 왕실의 총애를 받은 것을 계기로 고려에 압력을 가하여 태안군(泰安郡)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을 지군사로 격상시켰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 군현제도의 개편으로 태안군이 되어 내려오다가, 1914년 해미군과 함께 서산군에 통합되었다. 한편, 1983년에는 보령군 오천면 삼시도리 일부(내파수도, 외파수도, 외도)를 안면읍에 편입하였고, 1989년에 서산군이 서산시·서산군·태안군으로 나뉠 때, 태안읍·안면읍·고남면·남면·근흥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으로 태안군이 설치되었다.

제 3 장 忠南의 忠 · 孝 · 烈 文獻資料 分析

따라서 태안군과 관련있는 지명은 신소도국(臣蘇塗國) · 성대혜현(省大兮縣) · 소태현(蘇泰縣 또는 蘇州) · 태안군(泰安郡) 등이다.

『삼국사기』 · 『삼국유사』 · 『고려사』 등에서는 태안군과 관련한 충 · 효 · 열 인물을 찾을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안군의 충 · 효 · 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31년(세종 13)의 효부 약신(若信)에 관한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태안군의 충 · 효 · 열 인물을 찾아보면, 충 · 효 · 열 포장사례 5건(효자 2건, 효부 1건, 열녀 2건)이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0> 역대 『실록』에 기록된 태안군의 충 · 효 · 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 · 효 · 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31	태안	金洽 妻 若信	효부(守節, 삼년상)	복호	『세종실록』 54, 13/10/기미
1472	태안	學生 金得中	효자(병구환)	탁용	『성종실록』 15, 3/2/을유
1528	태안	衙前 李軸 妻 同叱介	열녀(人火)	정려	『중종실록』 23, 10/12/임신
1808	태안	校奴 金玉鉉	효자	정려	『순조실록』 11, 8/6/을사
	태안	崔鳳瑞 妻 金姓	열녀	정려	『순조실록』 11, 8/6/을사

조선시대의 윤리서와 조선초기의 자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태안군의 충 · 효 · 열 인물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태안진관(泰安鎭管)편에 2인(효 1, 열 1)이 기록되어 있는데, 2인 모두 정려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절부 똥개(同叱介)는 『실록』에서 행적과 포장 사실이 확인되지만, 효녀 사비(私婢) 연생(連生)은 『여지도서』에 처음 보이는 인물이다.

<표 3-51> 『여지도서』에 수록된 태안군의 충 · 효 · 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태안군	절부	李軸 妻 同叱介	정려	화재로 남편이 죽자 殉節
태안군	효녀	私婢 連生	정문	화재에 노모를 구하다 죽음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태안군지」에는 절부 1인, 효녀 1인이 수록되어 있고, 『호서읍지』(1871)의 「태안군지」도 같은 내용이다. 『[호서]읍지』(1895)에는 태안군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조선 초기 자료에서 태안의 충·효·열 인물의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변방지역으로서의 지역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14년 이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산군에 속하게 됨에 따라, 태안군의 충·효·열 인물이 서산군 자료에 포함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1991년에 발간된 『瑞山·泰安 文化遺蹟(上)』에서 태안군의 정려로는 모두 5기가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충과 관련한 것이 2기(1기는 충신 1인, 1기는 충신·효자 1인씩), 효와 관련한 것이 2기(1기는 충신·효자 1인씩, 1기는 효자 1인) 열과 관련한 것이 2기(열녀 1인씩)이다.

이상의 문헌을 통해 확인된 태안군의 정려사례는 모두 10건인데, 이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2건 뿐이다.

<표 3-52> 문헌에서 확인된 태안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서산 군지	현존 여부	비 고
효자	池時淨	태안군					○	○	영조 기유년 7월 명정
효자	校奴 金玉鉉	태안군	○					×	서산군지 金玉鉉 1808년
효녀	私婢 連生	태안군		○	○	○	○	×	화재에 노모 구출후 함께 죽음
열녀	池時淨 妻 蘇城賈氏	태안군					○	×	영조 기유년 7월
열녀	朴命道 妻 東萊鄭氏	태안군					○	○	
열녀	尹弼靖 妻 慶州李氏	태안군					○	×	영조 32년
열녀	衙前李軸 妻 同叱介	태안군	○	○	○	○		×	화재로 남편이 죽자 불속에 뛰어들어 죽음
열녀	崔鳳世 妻 咸昌金氏	태안군					○	×	
열녀	崔鳳瑞 妻 金姓	태안군	○					×	
열녀	李拙 妻 固叱介	태안군					○	×	

※ 1927년 간행된 『서산군지』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내용상 거주지가 확인되어 있거나 泰安舊誌를 참고했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이다.

15. 당진군

당진군은 1914년에 당진군·면천군의 전부와 해미군의 일부지역, 예산군의 일부지역이 병합되어 성립되었다. 1957년에는 서산군으로부터 대호지면, 정미면이 편입되었고, 1973년에는 정미면 여미리를 서산군 운산면으로 편입시켰다.

당진은 백제시대의 별수지현(伐首只縣, 혹은 夫只縣)으로, 신라 때에 당진현으로 개칭되어 해성군의 관할현이 되었으며, 고려 때에는 1018년(현종 9)에 운주(運州)지역에 속하게 되었고, 예종 때에 당진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현감을 두게 되었고, 1895년에 홍주부 당진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에 충청남도 당진군이 되었고, 1914년 군면폐합 때 면천군 등을 통합한 당진군이 되었다.

면천(沔川)은 본래 백제의 해군(檣郡)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에 해성군(檣城郡)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에 운주(運州:지금의 홍성)의 속현으로 하였으며, 후에 감무를 설치하였다. 1293년(충렬왕 19)에 현인(縣人) 복규(卜奎)가 합단(哈丹:원나라의 反賤)의 군병을 방어한 공로가 있어서 지면주사(知沔州事)로 승격하였다가, 1413년(태종 13)에 면천군이 되었으며, 1914년에 당진군에 편입되었다.

신평(新平)은 본래 백제의 사평현(沙平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에 신평으로 고치고 해성군(檣城郡:지금의 당진군 면천면)의 영현으로 삼았다. 1018년(현종 9)에 홍주(洪州)에 예속되었고, 그 뒤 1895년(고종 32)에 면천군(沔川郡)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인접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평면으로 개칭하고 당진군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의 신평은 주읍(主邑)인 홍주목(洪州牧)과 덕산(德山)을 사이에 둔 월경처(越境處)였다. 백제의 여촌현(餘村縣)은 신라 때에 여읍현(餘邑縣)으로 개칭되어 해성군(檣城郡)의 관할현이 되었다가, 고려초에는 여미현(餘美縣)으로 바뀌어 운주에 속하였다.

한편, 1298년에는 고을사람 황석량(黃石良)이 원나라에 가서 공을 세웠으므로 덕풍현(德豐縣)에 딸린 합덕부곡(合德部曲)이 합덕현(合德縣)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 합덕현은 세조 때 폐현이 되어 홍주군의 합남(合南)·합북(合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北) 2개면이 되었다. 그리고 홍주에 편입되었던 신평현은 조선초에 폐현이 되어 현내(縣內)·신남(新南)·신북(新北)의 3개면이 되었다. 당진현은 1895년 군으로 승격하여 8개면을 관할하였다. 1914년 군면폐합 때 먼천군의 22개면과 해미군·예산군의 일부지역이 당진군에 병합되었다.

따라서 당진군과 관련 있는 지명은 벌수지현(伐首只縣, 혹은 夫只縣)·당진현·당진군·혜군(樞郡)·혜성군(樞城郡)·면주(沔州)·면천군·사평현(沙平縣)·신평·합덕부곡(合德部曲)·합덕현(合德縣) 등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당진군과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당진군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06년(태종 6)의 신평현에 사는 효녀 기사이다.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당진군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당진의 충·효·열 포장사례 2건(효자 2건), 먼천의 충·효·열 포장사례 7건(효자 1건, 효열 2건, 열녀 2건, 충절가문 1건, 우애 1건), 신평의 충·효·열 포장사례 1건(효녀)으로 모두 10건이다.⁴¹⁾ 여기에서 1514년 나란히 정려와 복호를 받은 곽씨 자매는 열행과 함께 친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였다고 한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3> 역대 『실록』에 기록된 당진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06	신평	郎將 權止의 女	효녀(시묘)	정려	『태종실록』 12, 6/7/임자
1420	면천	少監 沈仁富 妻 耿氏	열녀(수절)	정려	『세종실록』 7, 2/1/경신
1472	면천	船軍 朴文 女 芷芝 (安止義의 妾)	열녀(병구환, 수절)	정려	『성종실록』 15, 3/2/을유
1514	면천	朴忠幹 妻 郭氏 (忠順衛 郭純 女)	효열	정려, 복호	『중종실록』 19, 9/1/병자
	면천	具世忠 妻 郭氏 (忠順衛 郭純 女)	효열	정려, 복호	『중종실록』 19, 9/1/병자

41) 신평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홍주목 임내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당진군에 편입되었으므로 홍성군과, 당진군편에서 중복해서 다루었다.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연대	지역	인 물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518	면천	正言 李存吾 후손 5인	충절인의 후손	녹용, 복호	『중종실록』 33, 13/6/갑술
1670	면천	奴婢 戒元	우애	정려	『현종개수실록』 22, 11/2/정유
1719	면천	學生 李性一	효자	정려	『숙종실록』 64, 45/11/무인
	당진	私奴 同立	효자	면역	『숙종실록』 64, 45/11/무인
	당진	御營軍 金斗尙	효자	면역	『숙종실록』 64, 45/11/무인

조선시대 윤리서에서 당진군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열녀도에 면천군 인물 3인이 올라 있으며, 당진군과 신평현의 충·효·열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3-54> 『동국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당진군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女圖	卷一	沔川郡	조선	朴忠幹妻郭氏, 其世忠妻郭氏	兄弟祭墓
	烈女圖	卷一	沔川郡	조선	安止義 妻 樞子	樞子守信
	烈女圖	卷五	沔川郡	조선	奉事金彪妻安氏	安氏節行

지리지에서 당진군의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부터이다. 면천군의 열녀 3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실록』에도 행적과 포장사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충·효·열 인물로 면천군 인물 10명(효 10 : 정려 5건, 증직 2건, 가자 1건)이 보이며, 당진현의 경우는 충·효·열 인물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의 「당진현지」에는 충·효·열 구분없이 인물조에 학행으로 3인이 올라 있는데, 2인은 효행도 있었다고 한다. 「면천현지」에는 효자 25인, 효부 2인, 열녀 9인이 기록되어 있다. 『호서읍지』(1871)의 「당진현지」와 「면천군지」는 모두 『충청도읍지』의 충·효·열 인물조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표 3-55> 『여지도서』에 수록된 당진군의 충·효·열 인물

지 역	행 적	인 물	포상내역	비 고
면천군	효자	鄭慶昌	정려	斷指
면천군	효자	李斌	증직	喪禮
면천군	효자	辛孝曾	증직	斷指, 三年侍墓
면천군	효자	李尙雉	정려	斷指
면천군	효자	林若	정려	斷指
면천군	효자	安孝生	가자	
면천군	효자	朴希蘭	정려	斷指, 江都之戰에 참여
면천군	효자	朴希奎	정려	斷指, 남한산성으로 어가 효종
면천군	효자	朴孝鵞		斷指
면천군	효자	姜瑀		

『[호서]읍지』(1895)에도 당진과 면천의 읍지가 모두 있으나, 「당진현지」에는 인물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면천군지」에는 효자 23인, 효부 2인, 열녀 9인이 있어, 『호서읍지』에서 보다 효자가 2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1992년에 발간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6집 당진군편에는 모두 22기의 정려와 3기의 효열비(孝烈碑)가 조사되어 있다. 정려 가운데 충과 관련된 것이 2기(1기는 충신 1인, 1기는 충신 2인), 효와 관련된 것이 15기(6기는 효자 1인, 3기는 효자 2인, 1기는 효자 3인, 1기는 효부, 1기는 효녀, 1기는 효자 2인·효열부 1인, 1기는 효열부, 1기는 효자·효부·열녀 각 1인), 열과 관련된 것이 8기(5기는 열녀 1인, 1기는 효자 2인·효열부 1인, 1기는 효열부, 1기는 효자·효부·열녀 각 1인)이다.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당진군의 정려사례는 모두 18건인데, 이 가운데 현존하는 정려는 3건 뿐이다.

<표 3-56> 문헌에서 확인된 당진군의 정려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현존여부	비 고
효자	鄭慶昌	면천군		○				×	斷指
효자	李斌	면천군		○				×	喪禮
효자	辛孝曾	면천군		○				×	斷指, 三年侍墓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유형	인 물	지역	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호서]읍지	현존여부	비 고
효자	李尙雉	면천군		○	○	○		×	斷指
효자	林若	면천군		○	○	○		×	斷指
효자	安孝生	면천군		○				×	
효자	朴希蘭	면천군		○	○	○		○	斷指, 江都之戰에 참여
효자	朴希荃	면천군		○				○	斷指, 남한산성으로 피하는 어가 호종
효자	朴順明	면천군			○	○		×	
효자	朴孝騫	면천군			○	○		○	
효자	學生 李性一	면천군	○					×	
효녀	郎將 權止 女	신평현	○					×	조선시대에 홍주에 속한지역
효열	朴忠幹 妻 郭氏	면천군	○		○	○		×	
효열	具世忠 妻 郭氏	면천군	○					×	
열녀	少監沈仁富 妻 耿氏	면천군	○					×	守節
열녀	安止義 妾 朴芷芝	면천군	○					×	병구환, 守節
열녀	生員 李明善 妻 李氏	면천군			○	○		×	
우애	奴婢 戒元	면천군	○					×	

제2절 忠·孝·烈 文獻資料의 分析和 活用 - 연기군의 사례 -

현재 충남에는 시·군마다 20~50여기의 정려가 남아 있다. 이들 정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화유적 지표조사의 차원에서 거의 조사되었다. 시·군별 정려의 수와 근거가 되는 조사보고서는 다음 <표 3-57>과 같다.

그런데 이들 조사 가운데 한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려가 주로 건립된 조선시대의 전공자에 의해 조사된 것이 아니며, 조사 내용도 건축현황과 정려현황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려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퇴락하면 후손들에 의해 중·개수되거나 새로 건립된다. 따라서 현존 정려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지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보다는 오히려 정려가 건립된 배경, 건립과정, 정려의 건립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그 지역의 사족적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동안 이루어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표 3-57> 충남의 시·군별 현존 정려 현황

구분	정려수	근거	비고
천안시	30	1993,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7집 천안시·천안군편	
공주시	27	1995, 『공주문화유적』	1910년이전 건립
보령시			
아산시	23	1991,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5집 온양시·아산군편	
서산시	14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서산시』	
논산시	26	1990,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4집 논산군편	
금산군			
연기군	33	1998, 『연기의 충·효·열 유적』	1910년 이전건립
부여군	37	1989,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3집 부여군편	
서천군	41(28)	1996,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0집 서천군편	(1910년이전건립)
청양군	22	1995,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8집 청양군편	
홍성군	24	1997, 『홍성의 문화유적』	
예산군	34	1995,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9집 예산군편	
태안군			
당진군	20	1992,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6집 당진군편	

어진 대부분의 정려 조사는 이러한 점은 도외시된 채 피상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정려 조사에서 극복되어야 할 한계라고 생각된다.

최근 필자는 연기군에서 실시한 『연기군 충·효·열 유적』에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⁴²⁾ 이는 필자가 진행하고 있던 『충남의 충·효·열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를 현장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절에서는 충·효·열 문헌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여 현장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기군의 사례를 가지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기의 충·효·열 조사단은 유적과 인물의 선정기준을 연기군에서 파악한 지정문화재 20개소와 충·효·열 시설물 49개소를 토대로 연기군과 조사단, 연기향토문화연구회의 연석회의에서 대상을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였다.

42) 이 조사연구는 이해준 교수(공주대)의 연구책임하에 이준원 교수(공주대)와 필자가 참여하였다.(『연기군 충·효·열 유적』, 연기군·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 1910년 이전 건립된 현전 충·효·열 정려 유적.
- 문헌기록상 확실한 경우로서 정려 건립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예조 입안, 창건, 중건기).
- 문헌자료에 포장의 사실은 기록되어 있으나, 근거자료가 불명한 경우는 문헌기록편과 부록 자료편에 그 근거를 남김.
- 항일독립운동의 경우는 시기를 구애받지 않고 일괄 정리하여 뒤에 첨부.
- 엄밀한 의미에서 충·효·열 유적은 아니지만, 연기 정신을 대변하는 비암사 불상과 연기대첩, 그리고 삼강(충·효·열)의 부식에 주요 기능을 담당한 연기·전 의향교를 추가.

이와같은 기준에서 선정된 연기의 충·효·열 유적은 44건으로 다음과 같다.

<표 3-58> 연기군의 충·효·열 유적

읍·면	조사대상 유적(수)
조치원읍	孝子 崔滄 旌閭 / 烈女 崔之喆 妻 全州李氏 旌閭 (2)
동면	烈女 張應軒 妻 彥陽金氏 旌閭 / 洪禰 墓所와 神道碑 / 烈婦 林軾 妻 晉州姜氏 碑 / 密陽朴氏 五忠旌閭 / 烈女 朴基鼎 妻 光山金氏 旌閭 / 孝烈婦 張舜相 妻 漢陽趙氏 旌閭 / 孝子 金百悅 旌閭 / 孝子 蔡觀亨 行績碑 / 孝子 林養文 旌閭 / 烈女 金基喆 妻 密陽孫氏·金聖欽 妻 呂寧成氏 兩世旌閭 (10)
서면	孝子 閔後騫 旌閭 / 孝橋碑 / 孝子 金漢鼎 旌閭 / 孝婦 俞彥夏 妻 扶安林氏 旌閭 / 孝子 成爾復 旌閭 (5)
남면	燕岐鄉校 / 烈女 韓山李氏 旌閭碑 / 孝子 李廷煥·李景高·李景益 旌閭 / 烈女 一介 烈女碑 / 孝子 林自儀·林太先 雙旌閭 / 烈女 成氏·張氏 雙旌閭 / 孝子 林命楫 旌閭 / 孝子 林秀俊 旌閭 (8)
금남면	忠臣 成三問 旌閭 / 烈女 慶州李氏 旌閭址 / 孝子 康協 旌閭 (3)
전의면	全義鄉校 / 孝子 金益精·金師俊 旌閭 / 忠臣 全義李氏 李棹 墓碑·神道碑 / 孝子 金忠烈 旌閭 / 忠臣 洪植 旌閭 / 烈女 金曦 妻 南陽洪氏 旌閭 / 忠臣 金濟鼎 旌閭 / 三雙 孝烈門 / 孝子 朴履命 旌閭 / 四雙 孝烈門 / 烈女 尹信圭 妻 仁同張氏 旌閭址 (11)
전동면	金承露 墓所와 墓碣 / 孝婦 金震敞 妻 羅州羅氏 旌閭 / 趙啓遠 墓所와 神道碑 / 烈婦 愼爾草 妻 杞溪俞氏 旌閭 / 忠臣 邊應井 祠堂 (5)
계(7)	(44)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필자는 연기지역 충·효·열 현장조사에 앞서 문헌의 충·효·열 자료를 분석하여 현장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문헌상의 포장내용과 현존 정려를 비교 검토하기로 했다. 분석대상이 되는 문헌자료는 『조선왕조실록』, 『동국(원·속·신속)삼강행실도』, 연기와 관련된 역대 읍지류, 기타 예조의 충·효·열 관련 등록류 등이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연기지역과 관련된 충·효·열 기사가 4건 확인되었다. 최초의 기사는 태조 4년 9월의 것이다. 당시 태조는 각도에서 보고한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 등이 모두 실적이 있으므로, 포상을 더하고 문려에 정표하되 역이 있는 자는 복호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구휼하여 주어 풍속을 가다듬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충청도 전의(全義) 사람인 전 서령(署令) 김사지(金四知)가 노모(老母)를 봉양하기 위하여 아침저녁으로 반찬을 올리되 반드시 자기가 먼저 맛을 보며, 부모의 뜻을 순종하여 오래도록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정려하도록 명하고 있다.⁴³⁾ 그런데 이 김사지의 정려는 현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기군의 향토사가 조차도 김사지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순조 7년에는 예조에서 도(道)의 조사로 인해, 연기의 고(故) 사인(士人) 김연(金璉)에게 급복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기사가 보인다.⁴⁴⁾ 또한 순조 32년에는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에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충·효·열에 대해 장계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등급을 나누어 뽑아 아뢰고 있는데 [分等抄啓], 효자정려질(孝子旌閭秩)에 연기의 고(故) 사인(士人) 유시채(柳始采), 효자증직질(孝子贈職秩)에 연기의 고 사인 유시명(柳始明)이 포함되어 있다.⁴⁵⁾ 유시채의 정려도 현재 연기군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유시채(1681~1751)의 정려는 연기군 남면 봉암리에 건립되었으나, 유시채의 4세손인 원진(源璘)이 해미로 이거하였고, 원진의 아들인 기종(基宗)이 현재의 서산 장동

43) 『太祖實錄』 卷8, 太祖 4年 9月 丁未條.

44) 『純祖實錄』 卷10, 純祖 7年 11月 戊申條.

45) 『純祖實錄』 卷32, 純祖 32年 4月 己丑條.

으로 입거하여 이곳에 문화유씨들이 세거하게 되면서, 1924년에 유시채 정려도 서산시 장동 소여촌으로 이건되었다.

연기의 효자 가운데 교생 김숙(金塾)의 효행사실은 1617년(광해군 9)에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효자도와 함께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校生金塾全義縣人有孝行母病劇氣將絶斷指出血以進母得甦今 上朝旌門 (교생김숙은 전의현사람이니 효행이 있더니 어미병이 급하여 기우니 장춧곳게 되거늘 손가락을 베혀 피를 내야 밧조온대 어미시리 곱사니라 금 상도애 정문호시니라)

『삼강행실도』에는 정려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실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김숙의 효행도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김숙이 어느 시기 인물이며, 전의현의 어느 마을에 살았었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실록』의 기록과 윤리서의 기록이 현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후손이 이 고장을 떠나 그 유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연기군의 충·효·열과 관련해서는 『실록』이나 윤리서에 등재되어 있는 이들의 행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지리지나 읍지에서 연기지역의 충·효·열 관련 기사를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이다. 효자와 열녀를 지리지에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이지만, 『승람』의 연기현과 전의현에는 충·효·열 인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인물조에 충신 1인(朴彭年), 효자 2인(金忠烈·愼之恒), 열녀 1인(金璫妻 洪氏), 연기현 인물조에 효자 11인(洪信民·林頴·崔澮·李琢·洪廷高·尹廷鴻·尹謙·良人裴立·金洽·縣吏林岐男·金興梅), 열녀 4인(張應軒妻金氏·生員林尙謙妻李氏·李世楨妻權氏·學生李軾妻姜氏) 으로, 두 고을 함께 19인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헌종 연간에 편찬된 『충청도읍지』에는 전의현에 절의 5인, 효자 16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인, 열부 8인, 효녀 1인으로 함께 30인이 등재되어 있고, 연기현에는 효자 78인, 충신 14인, 열녀 6인, 효부 10인, 열부 14인으로 함께 122인이 등재되어 있어서, 두 고을 총계는 152인에 달한다. 이 가운데 효자 2인(金興梅·尹謙)을 제외한 『여지도서』의 인물 17인은 그대로 『충청도읍지』에도 등재되어 있다.

1871년에 편찬된 『호서읍지』에는 연기 인물조에 효자 72인, 충신 14인, 열녀 20인, 효부 10인이 등재되어 있고, 전의에 절의 5인, 효열 8인, 열부 4인, 효녀 1인이 등재되어 있다. 『충청도읍지』와 『호서읍지』의 등재인물 수를 비교해 보면, 『충청도읍지』가 『호서읍지』보다 18인이 많다. 『충청도읍지』의 등재인물 가운데 21인(충신 權柱, 효자 姜希說·柳璣·朴炳·朴之溫·愼得權·尹光善·李璇·李敏行·李載祐·林達淵·林益齡·林挺復·趙秀彬·趙榮壽·趙榮徵·趙遠彬, 효부 愼儉의 처 안동김씨, 열녀 趙百達의 처 경주김씨, 邊處箕의 처 고령신씨, 金正義의 처 전주이씨)이 탈락하고, 3인(충신 崔濤, 효자 金興梅·尹謙)이 추가되어 있으며, 131인은 그대로 중복되어 있다.

한국근대도지로 소개되고 있는 「전의현읍지」와 「연기현읍지」는 조령(朝令)에 의하여 일시에 편찬된 『충청남도지』이다. 이 『충청남도지』의 「전의현읍지」에는 절의 6인, 효자 16인, 열부 8인, 효녀 1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연기현읍지」 인물조에는 효자 75인, 충신 14인, 열녀 6인, 효부 10인, 열부 14인이 등재되어, 함께 150인(충신 20인, 효자 91인, 효부(녀) 11인, 열녀(부) 28인)이 있다. 그 내용은 앞의 『충청도읍지』·『호서읍지』와 대동소이하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편찬된 『연기지』와 『조선환여승람』은 연기현과 전의현이 연기군으로 통합된 시기의 군지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읍지의 연기현지와 전의현지, 그리고 공주목 읍지의 일부 인물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먼저 연기지의 경우 효자는 구지(舊誌-연기현지)에서 79인, 전성지(全城誌)에서 51인, 공산지(公山誌)에서 6인을 빼끼고, 추가로 63인을 수록하여 모두 199인이 등재되어 있다. 충신(절의)은 구지와 전성지에서 각각 16인을 빼끼고, 새로 15인을 수록하여 모두 47인이며, 효부(효녀)는 구지에서 10인, 전성지에서 6인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을 빼끼고, 추가로 22인을 수록하여 모두 38인이 등재되어 있다. 열녀는 구지 20인, 전성지 13인, 추가 25인으로 모두 58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현원(賢媛)·자선(慈善)·선행(善行)조를 신설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와같이 『연기지』는 종전의 읍지를 종합한데다 새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가장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조선환여승람』의 연기군편은 연기지와 같은 시기에 편찬되었지만, 그 내용은 소략한 편이다. 충신 13인, 절의 4인, 효자 48인, 효녀 1인, 효부 12인, 정렬(貞烈) 46인, 여행(女行) 3인으로 구성되어 모두 124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설명도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적고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상 읍지에 등장하는 충·효·열 인물을 통계 처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9> 연기군 관련 읍지의 충·효·열 통계

구 분	충신·절의	효자·효녀·효부	열녀·열부	계	비고
여지도서 (전의·연기)	1 (1·0)	13 (2·11)	5 (1·4)	19 (4·15)	㉗
충청도읍지 (전의·연기)	19 (5·14)	105 (17·88)	28 (8·20)	152 (30·122)	㉘
호서읍지 (전의·연기)	19 (5·14)	91 (9·82)	24 (4·20)	134 (18·116)	㉙
충청남도지 (전의·연기)	20 (6·14)	102 (17·85)	28 (8·20)	150 (31·119)	㉚
연기지 (구지·전성지·공산지·추가)	47 (16·16·0·15)	237 (89·57·6·85)	58 (20·13·0·25)	342 (125·86·6·125)	㉛
조선환여승람 연기군편	17	61	49	127	㉜

앞서 언급했듯이(제2장 제4절 4), 조선시대 예조에서는 충·효·열과 관련하여 『충효등록』·『충효열등제등록』·『효행등제등록』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현재 규장각도서로 남아 있다. 이 『충효열등제등록』과 『효행등제등록』에서는 연기지역의 인물 73인을 찾아볼 수 있다.

효자의 경우에는 정문(旌門, 旌閭)이 7인, 제직(除職, 賞職)이 9인, 증직(贈職)이 12인, 복호(復戶)가 17인, 면역(免役)이 1인, 상물(賞物, 食物題給)이 12인이며, 열녀는 정문(旌門, 旌閭)이 11인, 복호(復戶)가 3인, 상물(賞物)이 2인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으로 열녀의 경우 정문포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기 성선장(成善章)의 처 홍씨(洪氏)의 경우에는 숙종 39년에 복호를 받고, 다시 영조 5년에 정문을 받고 있어 흥미롭다.

이상 살펴본 연가지역의 충·효·열 인물을 정리하면, 충신 67인, 효자 256인, 효부(효녀) 40인, 열녀(열부) 95인에 달한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표 3-60·61·62·63>과 같다⁴⁶⁾.

<표 3-60> 연기군의 충신

구분	성명	본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비 고
			1	19	19	20	47	17	59	1	11	
1	姜惟精	晋州					○	○	○			丙子胡亂 白衣倡義 殉節
2	高汝兩	濟州					○		○			壬辰倭亂 錄勳 三綱錄
3	權 柱	安東	○			○	○		○			壬辰倭亂 糧餉, 胡亂倡義
4	金 岷	江陵					○		○			임진란에 300여명을 이끌고 중봉 조현을 따라 금산 전투에서 순절. 贈戶議
5	金緒漢	江陵					○		○			임진왜란 권율의 휘하에서 白衣從事 殉節
6	金承露	江陵					○	○	○		○	태종조 大司憲. 贈右議政
7	金元一	江陵	○	○	○	○			○			영조조 水軍僉節制使로 人命을 구함 特賜熟馬 一匹
8	金彦信	慶州						○	○			
9	金 基	安東					○		○			金濟鼎의 子, 병자호란 黔州에서 節死
10	金濟鼎	安東	○	○	○	○	○	○			○	정묘호란 節死, 贈兵參 致祭, 영조조 諡忠壯
11	金 休	安東							○			
12	金子粹								○			
13	柳 洙	文化					○		○			단종조 靖亂勳封, 文城君, 贈領相
14	柳亨國	文化					○		○			병자호란 倡義, 作鳳凰亭
15	朴大鵬	密陽		○	○	○	○	○	○		○	重峰 趙憲의 從事官, 密陽朴氏五忠旌閭
16	朴禮謙	密陽						○			○	密陽朴氏五忠旌閭
17	朴元謙	密陽						○			○	密陽朴氏五忠旌閭

46) 이 표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 『여지도서』 전의·연기, ㉮ :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 전의현·연기현, ㉮ : 『호서읍지』(1871) 연기·전의, ㉮ : 『충청남도지』 전의현읍지(순조조)·연기현읍지(고종조), ㉮ : 『연기지』(1934), ㉮ : 『조선환여승람』 연기군지(1934), ㉮ : 『연기인물지』(1997), ㉮ : 문헌에서 정려사실 확인되는 경우, ㉮ : 『연기군 충·효·열 유적』 조사대상, ㉮ : 『충효열등제등록』·『효열등제등록』, 비고 난의 ★ : 실록기사, < > : 『등제등록』 기록 내용.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구분	성명	본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비 고
			1	19	19	20	47	17	59	1	11	
18	朴義謙	密陽						○			○	密陽朴氏五忠旌閭
19	朴仁謙	密陽						○			○	密陽朴氏五忠旌閭
20	朴彭年	順天	○	○	○	○	○	○				諡忠正
21	朴光前	珍原						○				
22	朴 祐	珍原					○		○			諡忠烈, 정유란에 일본에 잡혀갔다가 돌아옴
23	朴 璿	珍原					○		○			임진란 倡義
24	朴承宗	珍原		○	○	○	○		○			임진란 扈從, 贈兵曹參判, 一等功臣錄券
25	朴元孝	珍原					○		○			정유란에 진중에서 죽음. 贈兵曹參判
26	裴 裕	星州					○		○			
27	裴敬傑	星州					○		○			충봉 조현을 따라 공을 세움
28	裴天義	星山							○			배경걸의 손자
29	裴弘德	星州					○					이괄의 난에 張晩을 따라 공을 세움, 아들 裴慶星은 南漢之辱에 杜門, 贈堂令
30	邊應井	原州					○		○		○	임진왜란에 순절, 贈兵判, 三綱錄
31	邊忠範	原州					○		○			邊應井의 子, 丁卯斥和功臣
32	成聘壽	昌寧							○			
33	成三問	昌寧							○		○	
34	成仁山	昌寧		○	○	○	○		○			성종 22년 함경도의 野人亂 토벌, 3등공신
35	愼 益	居昌		○	○	○	○		○			병자호란 의병장
36	愼無敵	居昌					○		○			丁丑 聞大駕移御南漢 廣州에 감
37	吳淵達	寶城					○		○			고종甲午東擾 宋奎憲撰碣
38	李 攄	道康		○	○	○	○		○			세조조 忝靖難功 錄券
39	李 推	陽城					○		○			정유왜란 露梁에서 순절
40	李 振	陽城						○				선조 정유 사절
41	李 訪	牛峰					○		○			임진란 倡鄉兵 贈官左贊成
42	李 棹	全義							○		○	전의이씨 시조
43	李思敬							○				절의
44	李首慶							○				절의
45	林 湑	扶安		○	○	○	○	○	○			병자호란때 무과급제 竹山전투
46	林 興	扶安					○		○			林蘭秀의 子 야은 길재의 문인 特命禮葬享 岐湖社
47	林景澤	扶安		○	○	○	○	○	○			林湑의 子 병자호란 무과급제 竹山 遠川전투 錄券 贈秉節校尉
48	林鳳祚	扶安					○	○	○			江華都會所錄 公山誌
49	林世老	扶安					○		○			林尙元의 子 戊申亂 倡義
50	林秀桂 (檀)	扶安		○	○	○	○		○			구지 수계, 어명으로 수담으로 고침) 英宗朝무과 戊申亂 賜錄券
51	林東秀	平澤		○	○	○	○		○			戊申亂 倡義
52	張在學	結城					○		○			
53	張碩徵	興德		○	○	○	○		○			泗川縣監 재임중 戊申亂
54	鄭天卿	晉州					○		○			선조 原從勳享院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구분	성명	본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비 고
			1	19	19	20	47	17	59	1	11	
55	鄭之産	晋州							○			
56	鄭 芑	晋州							○			
57	崔達源	江華							○			
58	崔進源	江華							○			
59	崔有慶	全州							○			
60	崔 湏	和順			○	○	○		○			崔漢源의 子
61	崔梓秀	和順					○		○			이괄의 난 仁祖南幸 原從勳
62	河啓溟	晋陽		○	○	○	○		○			戊申亂 子孫錄用
63	河啓澈	晋陽		○	○	○	○		○			戊申亂 子孫錄用
64	河漢斗	晋陽					○		○			甲午之擾
65	韓必迪	淸州		○	○	○	○		○			丁卯虜亂 白衣扈從 南塘韓元震撰 遺事, 遂庵權尙夏撰 詩帖跋
66	洪 植	唐城		○	○	○	○	○	○	○	○	인조 이괄의 난 錄原從一等勳, 정묘호란 捕獲有功, 숙종 癸丑 監職 命旌閭(○)○(○)○(○)
67	洪尙慶	唐城		○	○	○	○		○			무과급제 甲子變 扈從 除萬戶

<표 3-61> 연기군의 효자

구분	성명	본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비 고
			13	94	80	91	199	48	176	20	28	58	
1	姜榮善	晋州					○	○					
2	姜必復	晋州					○	○	○				
3	姜希說	晋陽		○		○	○	○	○				
4	姜永峻							○					
5	姜麟馨							○					
6	康永壽	谷山					○	○					崔永祚撰 墓表
7	康 協	信川							○		○		
8	高平珵	濟州					○		○				
9	金 澹	江陵					○		○				稷山三綱錄
10	金 璉	江陵		○	○	○	○		○				★『순조실록』 권10, 순조 7년 11월 무신조, 給復
11	金啓涵	江陵					○		○				
12	金啓洪	江陵					○		○				
13	金奎鎭	江陵					○		○				
14	金百鍊	江陵					○		○				金忠烈의 子 鄉約을 일으키고자 함.
15	金秉國	江陵					○		○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구분	성명	본관	㉗ 13	㉘ 94	㉙ 80	㉚ 91	㉛ 199	㉜ 48	㉝ 176	㉞ 20	㉟ 28	㊱ 58	비 고
16	金秉儀	江陵					○	○	○				今古實記
17	金秉貞	江陵					○	○	○				今古實記
18	金世鼎	江陵					○		○				復戶 <1703(숙종29) : 全義金震敬子世鼎>
19	金信烈	江陵					○		○				김충열의 弟 송시열이 형제의 학행을 칭송.
20	金演憲	江陵					○	○	○				今古實記
21	金義彬	江陵		○	○	○	○		○				復戶
22	金宗鎭	江陵					○		○				
23	金宗喆	江陵					○	○	○				任憲晦撰傳
24	金振男	江陵					○		○				金秉淳의 曾孫 鄉薦
25	金忠烈	江陵	○	○	○	○	○		○	○	○	旌門	<1659(효종10) : 全義幼學金忠烈>, 현종조 命旌閭(㉗㉘㉙㉚㉛)
26	金漢鼎	江陵					○		○	○	○		高宗 丁亥(?) 贈戶曹參判 命旌閭(㉗)
27	金泰喜	慶州					○		○				
28	金鴻恩	管城				○							
29	金永敦	光山						○					
30	金天河	善山					○		○				
31	金百悅	安東						○	○		○		
32	金益精	安東		○	○	○	○	○	○	○	○		命旌閭(㉗)
33	金在鳳	安東					○	○	○				五倫行實錄
34	金師俊	安東		○	○	○	○	○	○	○	○		명종조 命旌閭(㉗㉘㉙㉚㉛)
35	金英會	安東						○					
36	金錫珍	彦陽		○	○	○	○		○				
37	金 洽		○	○	○	○	○	○	○				병자호란시 효자, 仁祖조 特命旌閭(㉗㉘㉙㉚㉛)
38	金千大						○		○				忠奴
39	金四知									○			★『태조실록』권8, 태조 4년 9월 정미조(충청도 전의인, 정려)
40	金興梅		○		○	○				○		免役	<1655(효종6)-燕岐水軍金興梅>, 효종조 命旌閭(㉗㉘㉙)
41	金永祿												賞物 <1682(숙종8) 全義騎保金永祿>
42	金 銓												賞物 <1682(숙종8)-全義校生金銓>
43	金廷日												賞物 <1723(경종3)-全義常人金廷日>
44	金弼漢												賞物 <1716(숙종42) 全義校生金弼漢>
45	金夏九												復戶 <1703(숙종29) 燕岐幼學金夏九>
46	金希說												復戶 <1669(현종10)-
47	金希曾												復戶 <1669(현종10)-
48	南英熙	宜寧					○		○				鄉里褒賞
49	柳 瓚	文化		○		○	○		○				
50	柳始采	文化		○	○	○	○	○	○	○		旌閭	★『순조실록』권32, 순조 32년 4월 기축조(孝子旌閭秩), <1832(순조32)-燕岐故士人柳始采>, 순조 壬辰 命旌閭(㉗), 贈童蒙敎官, 서산으로 이 건
51	柳齊泰	文化		○	○	○	○	○	○				3형제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구분	성명	본관	㉓ 13	㉔ 94	㉕ 80	㉖ 91	㉗ 199	㉘ 48	㉙ 176	㉚ 20	㉛ 28	㉜ 58	비 고
52	柳齊衡	文化		○	○	○	○	○					3형제
53	柳齊華	文化		○	○	○	○	○					3형제
54	柳行直	文化		○	○	○	○		○				士林呈狀
55	柳發永	文化						○					
56	柳建永	文化					○		○				木褒
57	柳發永	文化					○		○				鄭寅杓撰 墓誌
58	柳始明											贈職	★『순조실록』권32, 순조 32년 4월 기축조(孝子贈職秩), <1832(순조32)-燕岐故土人柳始明>
59	閔宗泗	驪興		○	○	○	○		○				
60	閔後騫	驪興		○	○	○	○	○	○	○	○		閔浩의 子, 贈參判, 崇禎戊子 命旌閔(㉔㉕), 김장생의 문인
61	朴履命	高靈					○		○		○		閔旌褒 절충 丁未 武科
62	朴 炳	務安		○		○	○		○				宋明欽의 문인
63	朴 場	務安		○	○	○	○						朴善一の 子
64	朴東煥	務安		○	○	○	○		○				
65	朴善一	務安		○	○	○	○						송시열, 송준길의 문인
66	朴之溫	密陽		○		○	○		○				
67	朴鍾憲	順川							○				
68	朴再得						○		○				良人
69	朴有觀												賞物 <1723(경종3)-全義治匠朴有觀>
70	裴 立	양인	○	○	○	○	○	○	○	○			良人, 명자호란시 효자, 인조조 特命旌閔(㉔㉕㉖)
71	邊緯南												除職 <1674(현종15)-全義幼學邊緯南>
72	徐世業												復戶 <1729(영조5)-燕岐故常漢徐世業>
73	徐萬弼												賞物 <1716(숙종42) 全義假吏徐萬弼>
74	成爾復	昌寧					○	○	○	○	○		고종 辛卯 命旌閔(㉕)
75	宋 立												賞物 <1682(숙종8)-全義私奴宋立>
76	愼得權	居昌		○		○	○		○				
77	愼無我	居昌					○		○				
78	愼無遇	居昌					○						
79	愼無過	居昌							○				
80	愼宗夏	居昌					○		○				遺稿
81	愼之恒	居昌	○	○	○	○	○	○	○	○			復戶 <1669(현종10)-全義出身愼之恒>, 褒賞旌閔(㉔)
82	愼後尹	居昌						○					
83	愼萬榮												復戶 <1729(영조5) 全義土人愼萬榮>
84	安承一	順興						○					
85	安惠承	竹山					○	○	○				고종조 贈內部協○良 孝行錄
86	安好問	竹山						○					
87	楊泰濟	淸州					○						
88	俞彦郁	杞溪					○		○				
89	俞永孝	杞溪					○						褒題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구분	성명	본관	㉓ 13	㉔ 94	㉕ 80	㉖ 91	㉗ 199	㉘ 48	㉙ 176	㉚ 20	㉛ 28	㉜ 58	비 고
90	俞致敬	杞溪					○		○				俞舜煥의 子
91	俞致福	杞溪					○						
92	俞致元	杞溪					○		○				
93	尹光善	坡平		○		○	○		○				贈職 <1854(철종5)-全義故生員尹光善>
94	尹東壽	坡平					○		○				
95	尹東祐	坡平					○		○				
96	尹勝圭	坡平					○		○				尹光善의 子
97	尹喜鎭	坡平					○		○				
98	尹廷鴻		○	○	○	○	○		○				병자호란 현종조 송시열 陳達 贈義禁府都事
99	尹 謙		○		○	○	○		○				윤정홍의 子 復戶
100	李行權	固城					○		○				田愚撰行狀
101	李 琢	固城	○	○	○	○	○		○				賞職 <1659(효종10)-燕岐幼學李琢>, 현종조 贈監察
102	李 璇	公州		○		○	○		○				擁正 7년 贈吏曹參判
103	李 馨	德水					○		○				
104	李德彬	德水					○		○				
105	李敏學	道康					○		○				
106	李敏行	道康		○		○	○		○				營邑承襲題
107	李德新	順天					○		○				
108	李 懋	順天		○	○	○	○		○				璵의 孫 給復後武郡守
109	李 珽	順天		○	○	○	○		○				復戶 <1716(숙종42)-全義通德郎李珽處子女>, 李守弘의 姪 贈持平
110	李 璟	順天					○		○				李守弘의 姪 贈持平
111	李 璵	順天		○	○	○	○		○				李珽의 弟 贈持平
112	李守弘	順天		○	○	○	○		○				贈持平
113	李培古	陽城					○		○				
114	李善古	陽城					○		○				
115	李載祐	陽城		○		○	○		○				
116	李秉秀	陽城					○		○				
117	李相鳳	禮安					○		○				
118	李敦燮	禮安					○		○				營邑禮院
119	李鳳煥	原州							○				
120	李根海	全義					○	○	○				勉庵 崔益鉉撰狀
121	李貞幹	全義					○		○				世宗 賜書褒獎 諡孝靖
122	李敬哲	完山					○		○				
123	李鎭英	全州					○		○				
124	李東高	全州					○		○				宋來熙撰(?) 墓碣銘
125	李 鈺	全州					○		○				營邑美褒
126	李廷煥	全州							○		○		
127	李景高	全州								○	旌門		<1697(숙종23)-公州居李景高>
128	李景益	全州								○	旌門		<1697(숙종23)-公州居李景益>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구분	성명	본관	㉓ 13	㉔ 94	㉕ 80	㉖ 91	㉗ 199	㉘ 48	㉙ 176	㉚ 20	㉛ 28	㉜ 58	비 고
129	李壽天											賞物	<1716(숙종42)-全義騎兵李壽天>
130	李德壽											贈職	
131	李德一											贈職	<1719(숙종45)-燕岐故進士李德壽及學生德一德俊三兄弟>
132	李德俊											贈職	
133	林玄圭	羅州					○		○				
134	林 頴	扶安	○	○	○	○	○		○	○		贈職	<1669(현종10)-燕岐故僉知林頴>, 贈右尹 旌閭(㉞)
135	林慶燾	扶安		○	○	○	○		○				林世衡의 孫 朱奎憲撰 墓碣銘
136	林奎喆	扶安					○	○	○				林魯相의 子 郭漢○撰 墓表, 弟 翼喆도 효자
137	林麒祚	扶安					○	○	○				
138	林魯壽	扶安					○		○				
139	林達淵	扶安		○		○	○		○				
140	林達源	扶安		○	○		○		○				營邑承襲題
141	林德玄	扶安		○	○	○	○		○				呈狀承襲題
142	林命東	扶安					○		○				贈敎官
143	林命楫	扶安					○	○	○	○	○		고종 辛未 贈左承旨 命旌閭(㉞)
144	林士根	扶安					○		○				林章佑撰 墓表
145	林祥喆	扶安					○		○				
146	林尙穰	扶安					○			○			旌閭(㉞)
147	林碩蕃	扶安		○	○	○	○	○	○				贈判決事
148	林碩英	扶安		○	○	○	○		○			復戶	<1729(영조5)-燕岐士人林碩英及妻姜氏子汝楫>, 恩典
149	林聖淵	扶安					○		○				
150	林世蕃	扶安		○	○	○	○		○				呈狀承襲題
151	林世衡	扶安		○	○	○	○		○				權況撰 墓碣銘
152	林秀俊	扶安						○	○		○		
153	林養文	扶安					○	○	○	○	○		고종 甲辰 命旌閭(㉞)
154	林養身	扶安		○	○	○	○		○				
155	林養祚	扶安					○	○	○				
156	林汝松	扶安		○	○	○	○		○				營邑承襲題
157	林汝楫	扶安		○	○		○		○			復戶	<1729(영조5)-燕岐士人林碩英及妻姜氏子汝楫>, 林碩英의 子 黃世楨의 문하 恩典
158	林營喆	扶安					○		○				
159	林益齡	扶安		○		○	○		○				
160	林益茂	扶安					○		○				權況撰 墓碣銘
161	林益鍾	扶安					○		○				任憲晦撰 墓誌
162	林自儀	扶安							○		○		쌍정려
163	林在坤	扶安						○					
164	林宗錫	扶安		○	○	○	○		○				
165	林柱八	扶安		○	○	○	○		○				林厦擎의 子 무신란때 창의
166	林徵杓	扶安		○	○	○	○		○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구분	성명	본관	㉓ 13	㉔ 94	㉕ 80	㉖ 91	㉗ 199	㉘ 48	㉙ 176	㉚ 20	㉛ 28	㉜ 58	비 고
167	林致慶	扶安					○		○				
168	林太先	扶安							○		○		쌍정려
169	林泰祚	扶安					○		○				三綱錄
170	林厦擎	扶安		○	○	○	○		○				營邑承襲題
171	林學壽	扶安					○		○				林章佑撰 墓誌銘
172	林學喜	扶安					○		○				林章佑撰 墓碣銘
173	林憲國	扶安					○		○				
174	林憲一	扶安					○		○				憲昌의 弟 雙孝子
175	林憲昌	扶安					○		○				褒題
176	林弘相	扶安					○		○				俱有文 名
177	林敷榮	平澤		○	○	○	○		○				
178	林世寶	平澤		○	○	○	○		○				
179	林挺復	平澤		○			○		○				
180	林岐男		○	○	○	○	○		○				縣吏, 숙종조 복호
181	林悌男											食物 題給	<1669(현종10)-燕岐寺奴林悌男>
182	張恩煥	結城					○		○				고종 甲辰 蒙恩階通政 有遺稿 朱毅燮撰行狀
183	張龍相	結城					○		○				
184	張元胄	結城		○	○	○	○	○	○			復戶	<1716(숙종42)-燕岐故士人張元胄>, 호조좌랑 장진영의 子 숙종조 給復戶
185	張台鼎	結城					○		○				
186	張振榮	結城					○		○				贈戶曹佐郎
187	張義徵	興德		○	○	○	○		○			復戶	<1716(숙종42)-燕岐故士人張義徵>, 현종조 給復
188	張應軒							○					
189	張天福							○					
190	張台鼎							○					
191	張次拭											賞物	<1713(숙종39)-燕岐士人張次拭>
192	全以道	管城		○	○	○	○		○				
193	全鴻恩	管城		○	○		○		○				
194	全章煥	沃川					○		○				
195	鄭東暉	慶州					○		○				三綱錄
196	鄭人權	晉州					○		○	○			고종조 贈內部協辦, 命旌閭(㉞)
197	鄭元龍	晉州					○		○	○			贈童蒙教官, 고종甲辰 命旌閭(㉞)
198	鄭弘暉	晉州		○	○	○	○		○				
199	趙百達	楊州					○		○				趙榮壽의 子 순조조 贈教官
200	趙秀彬	楊州		○		○	○		○	○	○		趙木生의 11세손 현종조 命旌閭(㉞), 三雙孝烈門
201	趙榮壽	楊州		○		○	○		○				趙秀彬의 堂姪 순조조 贈教官
202	趙榮徵	楊州		○		○	○		○				
203	趙遠彬	楊州		○		○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구분	성명	본관	㉓ 13	㉔ 94	㉕ 80	㉖ 91	㉗ 199	㉘ 48	㉙ 176	㉚ 20	㉛ 28	㉜ 58	비 고
204	趙鎭元	楊州					○		○				趙百達의 子
205	趙命彬	楊州							○	○	○		旌閭 <1854(철종5)-全義故士人趙命彬>, 三雙孝烈門
206	趙鳴殷												除職 <1716(숙종42) 燕岐士人趙鳴殷>
207	池鏡明												復戶 <1729(영조5)-全義故學生池鏡明>
208	陳英根	驪陽					○						道褒
209	蔡觀亨	仁川		○	○	○	○		○		○		呂承褒題, 행적비
210	崔 燾	江華		○	○	○	○		○				영조 壬辰 給復 贈參判
211	崔 滄	江華	○	○	○		○		○	○	○		賞物 <1682(숙종8)-燕岐生員崔滄>, 숙종조 特命旌閭 (㉓㉔㉕㉖)
212	崔達源	江華		○	○	○	○						賞職 <1659(효종10)-燕岐前參奉崔達源>, 숙종 贈正郎 丙子
213	崔道源	江華		○	○	○	○		○				除職 <1674(현종15)-燕岐幼學崔道源>, 숙종 癸丑 贈左郎
214	崔有華	江華		○	○	○	○						除職 <1674(현종15)-燕岐幼學崔有華>, 숙종조 贈佐郎 中年中司馬
215	崔一華	江華		○	○	○	○		○	○			旌門 <1697(숙종23)-燕岐故士人崔一華>, 숙종조 贈別檢
216	崔挺華	江華		○	○	○	○		○				贈職 <1736(영조12)-燕岐故學生崔挺華>
217	崔柱華	江華		○	○	○	○		○				贈職 <1729(영조5)-燕岐處士崔柱華>, 영조조 贈持平
218	崔進源	江華		○	○	○	○		○				賞職 <1659(효종10)-燕岐幼學崔進源>, 숙종 丁巳 贈持平
219	崔 命												復戶 <1669(현종10)-
220	崔挺韓												賞物 <1682(숙종8)-全義假吏崔挺韓>
221	河得采	晉陽		○	○	○	○		○				
222	韓人震	淸州		○	○	○	○						권상하의 문인
223	韓汝益	淸州		○	○	○	○						효자로 천거됨. 숙종 己巳 ○山현감
224	韓濟世								○				
225	韓孝永								○				
226	韓後吉								○				
227	洪廣燮	南陽						○					
228	洪光燮	南陽						○		○	○		고종조 命旌閭(㉗)
229	洪相萬	南陽						○		○			고종조 贈通訓太大學樂院正
230	洪在河	南陽						○					洪光燮의 子
231	洪駿燮	南陽						○					宋毅燮撰 墓表
232	洪 鎬	唐城		○	○	○	○				○		給復, 孝橋碑
233	洪 鈺	唐城		○	○	○	○						
234	洪 鉦	唐城						○		○			
235	洪得一	唐城		○	○		○		○		○		贈職 <1794(정조18)-燕岐故士人洪得一>, 贈持平 정조 甲寅, 孝橋碑
236	洪碩慶	唐城		○	○	○	○						賞職 <1659(효종10)-燕岐幼學洪碩慶>, 贈義禁府都事 康熙 14년
237	洪信民	唐城	○	○	○	○	○		○				贈職 <1655(효종6)-燕岐故學諭洪信民>, 숙종조 贈都承旨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구분	성명	본관	㉠ 13	㉡ 94	㉢ 80	㉣ 91	㉤ 199	㉥ 48	㉦ 176	㉧ 20	㉨ 28	㉩ 58	비 고
238	洪廷慶	唐城		○	○	○	○		○		○		贈義禁府事, 贈工議, 孝橋碑
239	洪龍九	唐城					○						
240	洪禹九	唐城		○	○	○	○				○	贈職	<1716(숙종42)-燕岐故士人洪禹九>, 擁正 7년 贈持平, 孝橋碑
241	洪禹極	唐城		○	○	○	○						給復
242	洪禹績	唐城		○	○	○	○		○		○	贈職	<1713(숙종39)-燕岐士人洪禹績>, 贈持平 贈吏 議, 孝橋碑
243	洪禹疇	唐城		○	○	○	○						
244	洪禹平	唐城		○	○	○	○		○		○	復戶	<1713(숙종39)-燕岐故士人洪禹平>, 甲午 給復, 孝橋碑
245	洪以烈	唐城		○	○	○	○						
246	洪廷高	唐城	○	○	○	○	○		○		○		숙종조 贈戶郎, 孝橋碑
247	黃 稷	長水					○						營邑褒題
248	黃碩源	長水					○	○					金福漢撰狀 崔永祚撰墓表
249	黃再復	長水		○	○	○	○						三綱錄
250	黃廷協	長水		○	○	○	○	○	○			復戶	<1713(숙종39)-燕岐士人黃廷協>, 贈吏議
251	黃仁爻	昌原		○	○	○	○						
252	黃采河	昌原		○	○	○	○						
253	黃弼熙	昌原					○		○				贈嘉善戶參
254	黃以章											除職	<1716(숙종42)-燕岐士人黃以章>
255	奎 立									○		旌門	<1669(현종10)-全義私奴奎立>
256	龍 福											復戶	<1669(현종10)-全義私奴龍福>

<표 3-62> 연기군의 효부(효녀)

구분	효부 (효녀)	남편	㉠ 0	㉡ 12	㉢ 11	㉣ 12	㉤ 38	㉥ 13	㉦ 32	㉧ 2	㉨ 2	㉩ 0	비 고
1	晋州姜氏	坡平 尹東祐						○		○			
2	慶州金氏	扶安 林鶴善						○		○			
3	安東金氏	居昌 愼 愼		○		○	○		○				㉠에는 烈婦로 기록되어 있음
4	安東金氏	密陽 朴恒林						○		○			
5	文化柳氏	江陵 金演浩						○	○	○			今古實記
6	晋州柳氏	晋州 姜甲植						○		○			郡守表彰
7	南平文氏	慶州 李堯鉉						○		○			郡褒
8	密陽朴氏	扶安 林世基		○	○	○	○	○					賜米典
9	旌善朴氏	慶州 李相好						○					隣里 賞褒揚
10	順興安氏	結城 張宗仁		○	○	○	○	○	○				
11	順興安氏	扶安 林津淵		○	○	○	○	○	○				營邑承褒題
12	順興安氏	扶安 林承奎						○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구분	호부 (호녀)	남편	㉠	㉡	㉢	㉣	㉤	㉥	㉦	㉧	㉨	㉩	비 고
			0	12	11	12	38	13	32	2	2	0	
13	順興安氏	扶安 林徵儀		○	○	○	○	○					
14	順興安氏	全義 李善浩					○		○				
15	杞溪俞氏	扶安 林益茂	○	○	○	○	○						營邑蒙褒題
16	坡平尹氏	晉州 鄭元龍					○		○	○			고종 癸巳 命旌閭(㉠)
17	固城李氏	晉州 姜一植					○	○	○				一鄉褒賞
18	公山李氏	晉陽 河得采	○	○	○	○	○						營邑에서 옷을 지급하고 每式年 報巡營(재확인)
19	順天李氏	(호녀) 효자 挺의 少女	○	○	○	○	○						숙종 丁酉 道伯尹憲周上聞 命給復
20	牙山李氏	扶安 林魯鏡					○		○				
21	全義李氏	結城 張寅煥					○		○				宋毅燮撰行狀
22	完山李氏	咸安 尹鳳淵					○						上林呈書中
23	全州李氏	杞溪 俞鎮元					○		○				道郡有褒
24	全州李氏	扶安 林大喆					○						有褒文
25	全州李氏	延安 金宇秀						○					
26	李孝婦幸 愛	朴介也之					○		○				
27	扶安林氏	杞溪 俞彦夏	○	○	○	○	○	○	○	○			命旌閭(㉠)
28	扶安林氏	杞溪 俞義濬					○		○				
29	扶安林氏	호녀					○						
30	沃川全氏	禮安 李相殷					○		○				
31	河東鄭氏	江陵 金演正					○		○				
32	漢陽趙氏	結城 張舜相									○		1812~1884, 1888년 명정, 孝烈婦, 예조입안 전래
33	豐川陳氏	水原 白樂元					○		○				郡褒賞
34	陳召史	良人 權壬申	○	○	○	○	○	○					孝婦累呈狀
35	慶州崔氏	仁川 蔡觀亨	○	○	○	○	○	○					列邑多士累呈營邑
36	全州崔氏	慶州 金龍集					○		○				
37	和順崔氏	扶安 林相喆					○		○				
38	淸州韓氏	居昌 愼爾儀					○		○				
39	淸州韓氏	扶安 林柱天	○	○	○	○			○				營邑承褒題
40	長水黃氏	居昌 愼宗武					○		○				隣里褒賞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표 3-63> 연기군의 열녀(열부)

구분	열녀 (열부)	남편	㉠	㉡	㉢	㉣	㉤	㉥	㉦	㉧	㉨	㉩	비 고
			5	27	24	27	59	49	40	14	16	15	
1	晋州姜氏	扶安 林 軾	○	○	○	○	○	○	○	○			숙종 命旌閭(㉠㉡㉢㉣㉤), 여지도서 에는 李軾妻姜氏로 기록
2	晋州姜氏	扶安 林憲模						○					
3	慶州慶氏	和順 崔錫晉					○				○	復戶	<1713(숙종39)-公州崔錫晉妻慶氏> 命旌閭(공산지·㉥)
4	濟州高氏	星山 裴相麟					○						
5	郭烈女	才人 鄭性古 의 母					○		○				
6	安東權氏	李世楨	○	○	○	○	○	○	○	○		旌門	<1691(숙종17)-燕岐李世楨妻權女> 命旌閭(㉠㉡㉢㉣㉤)
7	安東權氏	順天 李德新		○	○	○	○	○	○	○		旌閭	<1736(영조12)-全義李德新妻權氏> 命旌閭(㉡㉢㉣㉤)
8	江陵金氏	道康 李惟茂						○					
9	慶州金氏	李益欽		○	○	○	○	○	○				
10	慶州金氏	唐城 洪景九					○		○				
11	慶州金氏	楊州 趙百達	○			○	○		○	○	○		순조조 命旌閭(㉥), 三雙孝烈門
12	慶州金氏	林承福						○					
13	光山金氏	朴基昇							○				
14	光山金氏	務安 朴基鼎									○		
15	金海金氏	驪陽 陳會顯					○		○				李載現撰 碑文 公山誌
16	水原金氏	南陽 洪○燮					○						
17	彦陽金氏	張應軒	○	○	○	○	○	○	○	○			인조조 命旌閭(㉠㉡㉤)
18	義城金氏	李聖浩							○				
19	金氏	洪震叙										復戶	<1719(숙종45)-燕岐故學生洪震叙妻 金氏>
20	金氏	張次○										賞物	<1716(숙종42)-燕岐幼學張次○妻金 氏>
21	羅州羅氏	江陵 金震敞					○		○	○	○	旌門	<1703(숙종29)-全義金震敞妻羅氏> 命旌閭
22	安定羅氏	淸州 楊致辛						○					
23	文化柳氏	居昌 愼養起					○		○				
24	文化柳氏	扶安 林聖喆					○						
25	晋州柳氏	杞溪 俞一煥					○						
26	晋州柳氏	晋州 姜甲植						○					
27	晋州柳氏	扶安 林魯八						○					
28	晋州柳氏	扶安 林璣喆						○					
29	務安朴氏	唐城 洪秉善						○					
30	務安朴氏	淸州 郭夏鉉						○					
31	密陽朴氏	扶安 林達源		○	○	○	○	○	○				營邑承襲題
32	密陽朴氏	淸州 韓挺震						○					
33	密陽朴氏	居昌 愼正載						○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구분	열녀 (열부)	남편	㉠	㉡	㉢	㉣	㉤	㉥	㉦	㉧	㉨	㉩	㉪	비 고
			5	27	24	27	59	49	40	14	16	15		
34	星州裴氏	扶安 林五淵					○							
35	星山裴氏	慶州 金彦信						○						
36	昌寧成氏	全五福	○	○	○	○	○	○	○	○	旌閭	<1772(영조48)-燕岐故上人全五福妻成氏(其弟五倫妻張氏)>, 영종조 임진 命旌閭(㉠㉢㉣㉤), 쌍정려		
37	昌寧成氏	金聖欽						○		○		兩世旌閭		
38	密陽孫氏	金基結						○		○		兩世旌閭		
39	恩津宋氏	監役徐老淳子婦					○							
40	居昌愼氏	楊州 趙履彬	○	○	○	○		○						
41	高靈申氏	原州 邊處箕	○		○	○		○						
42	平山申氏	竹山 安秉燮					○							
43	順興安氏	禮安 李福燮					○							
44	竹山安氏	興德 張愚坤					○							
45	谷山延氏	晋州 姜泰鎮					○	○						
46	寶城吳氏	南陽 洪喬燮					○							
47	丹陽禹氏	晋州 姜泰興						○						
48	杞溪俞氏	居昌 愼爾初	○	○	○	○	○	○	○	○	旌門	<1729(영조5)-全義故上人愼爾初妻俞氏>, 영조 己酉 命旌閭(㉠㉢㉣㉤)		
49	杞溪俞氏	寶城 吳淵達					○					柳寅哲撰 墓誌		
50	杞溪俞氏	昌原 黃履坦	○	○	○	○	○	○				營承褒題		
51	慶州李氏	扶安 林舜鍾					○							
52	慶州李氏	陽川 許權旭						○				女行		
53	公山李氏	南陽 洪德秀						○						
54	德水李氏	晋州 柳惠浩						○				女行		
55	道康李氏	扶安 林性源	○	○	○	○		○				江津李氏		
56	延安李氏	清州 韓世榮		○				○				영조조 給復		
	延安李氏	清州 韓榮世	○		○	○		○						
57	全州李氏	江華 崔之喆	○	○	○	○	○	○	○	○		정조 甲申上言 命旌閭(㉠㉢㉣㉤)		
58	全州李氏	扶安 林鳳陽						○						
59	全州李氏	南陽 洪德肖						○						
60	全州李氏	兎山 金正義	○		○	○		○						
61	韓山李氏	林尙謙	○	○	○	○	○	○	○	○	旌門	<1669(현종10)-燕岐林尙謙妻李氏>, 命旌閭(㉠㉢㉣㉤㉥)		
62	韓山李氏	結城 張彦坤		○	○	○	○	○	○					
63	韓山李氏	中和 楊裁學		○	○	○	○	○	○					
64	韓山李氏	晋州 姜泰鳳					○	○						
65	韓山李氏	晋州 鄭憲世					○			○		고종 甲辰 命旌閭(㉥)		
66	韓山李氏	道康 李友淳						○						
67	李召史										賞物	<1723(경종3)-全義騎兵任天起妻李召史>		
68	扶安林氏	慶州 崔公舜					○	○		○		命旌閭(㉥)		

제 3 장 忠南의 忠·孝·烈 文獻資料 分析

구분	열녀 (열부)	남편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비 고
			5	27	24	27	59	49	40	14	16	15	
69	扶安林氏	昌原 黃奇秀					○						
70	扶安林氏	結城 張基贊						○					
71	扶安林氏	密陽 朴光林						○					
72	扶安林氏	杞溪 俞參淳							○				
73	豐川任氏	唐城 洪相義	○	○	○	○			○				多士呈書中
74	結城張氏	全五倫	○	○	○	○	○	○	○	○	○	旌閭	<1772(영조48)-燕岐故士人全五福妻成氏(其弟五倫妻張氏)>, 영종조 입진 命旌閭(㉔㉕㉖㉗), 쌍정려
75	結城張氏	杞溪 俞麟柱	○	○	○	○	○	○					營邑承褒題
76	結城張氏	文化 柳齊泰		○									孝子 柳齊華, (柳齊泰는 오류인듯?)
	結城張氏	文化 柳齊和			○								
	結城張氏	柳齊華	○					○	○				
77	花山張氏	坡平 尹信圭					○		○		○		
78	天安全氏	南陽 洪桂燮					○						
79	慶州鄭氏	安東 金孝常					○						
80	東萊鄭氏	坡平 尹光達					○		○				
81	草溪周氏	羅必奎	○	○	○	○	○	○					承褒
82	驪城陳氏	杞溪 俞漢祚					○						
83	驪陽陳氏	晉州 姜雲善						○					
84	仁川蔡氏	扶安 林璵結					○						郡褒
85	慶州崔氏	水原 白東齊					○			○			고종 甲戌 命旌閭(㉔)
86	慶州崔氏	坡平 尹泰豐					○	○	○				孝烈閣記
87	慶州崔氏	密陽 朴明圭						○					女行
88	全州崔氏	慶州 李元熙					○						
89	全州崔氏	全州 李仁秀					○	○					
90	海州崔氏	文化 柳亨國	○	○	○	○	○	○					병자호란
91	南陽洪氏	扶安 林宇榮	○	○	○	○	○	○					
92	南陽洪氏	安東 金 瓚	○	○	○	○	○	○	○	○	○	旌閭	<1736(영조12)-全義幼學金瓚妻洪氏>, 命旌閭(㉔㉕㉖㉗)
93	洪氏	成善章								○		復戶旌門	<1713(숙종39)-燕岐成善章妻洪氏>, <1729(영조5)-燕岐故學生成善章妻洪氏>
94	一介									○	○	旌閭	<1736(영조12)-公州私婢一介>, 烈女碑
95	一貞	金日才								○		旌閭	<1746(영조22)-燕岐常漢金日才妻私婢一貞>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는 연기지역 정려 건립 사례는 모두 43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현재 연기군에서 정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24건에 불과했다(<표 3-64>의 밑줄 친 인물이 연기군에 정려가 현존한 경우임). 나머지 19건은 조선시대에 정려가 건립되었는데, 유시채 정려의 경우처럼 후손이 연기군을 떠나 정려도 함께 이전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퇴락하여 없어진 경우라 하겠다. 앞으로는 이와같이 없어진 정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3-64> 연기군의 정려인물

종류	정려된 인물(<표 3-60·61·62·63>의 해당 번호)	정려수
충신	洪植(66)	1
효자	金忠烈(25), 金漢鼎(26), 金益精(32), 金師俊(34), 金洽(37), 金四知(39), 柳始采(50), 閔後騫(60), 裴立(70), 成爾復(74), 愼之恒(81), 林頤(134), 林命楫(143), 林尙謙(146), 林養文(153), 鄭大權(196), 鄭元龍(197), 趙秀彬(200), 趙命彬(205), 崔澮(211), 崔一華(215), 洪光燮(228), 裴立(255)	23
효부 (녀)	晉州 鄭元龍 妻 坡平尹氏(16), 杞溪 俞彦夏 妻 扶安林氏(27)	2
열녀 (부)	扶安 林軾 妻 晉州姜氏(1), 李世楨 妻 安東權氏(6), 楊州 趙百達 妻 慶州金氏(11), 張應軒 妻 彦陽金氏(17), 江陵 金震敞 妻 羅州羅氏(21), 全五福 妻 昌寧成氏(36), 居昌 愼爾初 妻 杞溪俞氏(48), 江華 崔之喆 妻 全州李氏(57), 林尙謙 妻 韓山李氏(61), 晉州 鄭憲世 妻 韓山李氏(65), 慶州 崔公舜 妻 扶安林氏(68), 全五倫 妻 結城張氏(74), 水原 白東齊 妻 慶州崔氏(85), 安東 金蠟 妻 南陽洪氏(92), 成善章 妻 洪氏(93), 一介(94), 一貞(95)	17
계		43

제 4 장 맺음말

중국 고대에 형성된 충(忠)·효(孝)·열(烈)은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였는데, 우리 나라에도 유교의 수용과 함께 점차 충·효·열 윤리가 정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충·효·열 행적자를 널리 찾아 정기·비정기적으로 포장(褒獎)하였다. 그 절차는 행적이 뛰어나고 향중의 공론이 형성되면, 포장을 청하는 천장(薦狀)을 수령·관찰사·어사 등에게 올렸으며, 국왕에게 직접 상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조에서는 현지조사를 하여 포장을 결정하였는데, 정문이 내려지면 정려각을 건립했다. 충·효·열 포장의 종류는 정문류(旌門類), 상직류(賞職類), 복호류(復戶類), 상물류(賞物類)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충·효·열에 관한 유적과 유물로는 정려·정문·정려비, 관련 고문서, 비석 및 기타 삼강(三綱)의 행적과 관련된 유물·유적 등이 있다.

충·효·열과 관련된 문헌의 종류는 사서(史書), 윤리서, 지리지, 예조의 관련 등록류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사기』·『고려사』 등의 기전체 사서에는 충·효·열과 관련된 열전(列傳)이 설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의 『실록』에도 충·효·열 포장기사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윤리서로는 『효행록』, 『삼강행실도』·『속삼강행실도』·『동국신속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이 있다. 지리지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 인물조를 설정하여 충·효·열을 다루었는데, 이는 이후 읍지(邑誌) 편찬시 관례가 되었다. 조선시대 읍지의 인물조에서는 충신·효자·열녀를 구분 없이 다루기도 하고, 소항목으로 구분·설정하여 다루기도 하였다. 예조에서는 충·효·열과 관련된 『충효등록』·『충효열등제등록』·『효행등제등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충남의 시·군에는 충·효·열 정려(旌閭)와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도 그 동안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현지조사는 대개 지표조사의 차원에 머문 것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아니었다.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시·군별 문헌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현존 정려는 조선시대에 세워졌던 정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역사적 가치를 지닌 조선 전기의 정려보다는 조선 후기에 내려진 정려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군의 정려 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헌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현지조사를 수행하여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문헌정리와 함께 이루어진 연기지역의 충·효·열 유적조사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병행하면서 시·군별 문헌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다룬 『실록』과 같은 사서, 『삼강행실도』와 같은 윤리서, 지리지와 읍지 외에도 『충효등록』·『충효열등제등록』·『효행등제등록』 등과 같은 예조의 충·효·열 관련 등록류, 문집, 족보, 고문서 등의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본격적인 연구에 대비한 기초작업이다. 아무쪼록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의 복원에 일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經國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增補文獻備考』, 『三綱行實圖』, 『續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孝謄錄』, 『忠孝烈等第謄錄』, 『孝行等第謄錄』, 『三綱錄』,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湖西邑誌』, 『(湖西)邑誌』, 『忠清道邑誌』, 『湖南邑誌』, 『朝鮮輿地勝覽』, 『湖山錄』, 『稷山縣誌』, 『牙山郡邑誌』(순조), 『新昌縣誌』(정조), 『溫陽郡邑誌』(순조), 『海美縣邑誌』(순조), 『瑞山郡誌』(정조), 『泰安郡誌』, 『沔川邑誌』(순조), 『唐津郡邑誌』, 『天安郡邑誌』, 『林川邑誌』(철종), 『舒川郡邑誌』(정조), 『庇仁縣邑誌』(고종), 『藍浦郡邑誌』(영조), 『保寧郡邑誌』(고종), 『扶餘縣誌』(정조), 『扶餘縣邑誌』, 『連山縣誌』(정조), 『石城邑誌』(고종), 『魯城郡邑誌』, 『恩津縣誌』(고종), 『定山縣誌』(고종), 『靑陽縣誌』(순조), 『鴻山縣誌』, 『韓山郡邑誌』(정조), 『木川郡邑誌』(순조), 『全義縣邑誌』(순조), 『燕岐縣邑誌』(고종), 『洪州郡誌』(고종), 『結城邑誌』(순조), 『大興郡誌』(정조), 『德山縣誌』, 『禮山縣邑誌』(영조), 『公州邑誌』(철종), 『洪城郡誌』(1925), 『舒川郡誌』(1929), 『瑞山郡誌』(1927), 『扶餘誌』(1929), 『公山誌』(1923)

◎ 저서 및 조사보고서

朴 珠, 1990,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
 李成九, 1987, 『韓國의 孝』, 지문출판사
 李成茂, 1980, 『朝鮮初期 兩班研究』, 일조각
 李樹建,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李樹建, 1989,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李熙德, 1984,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研究』, 일조각
 지교헌편저, 1997, 『韓國의 효사상』, 민속원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1993, 『經濟六典輯錄』, 다은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6,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1輯 天原·舒川·保寧·禮山·燕岐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2輯 公州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9,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3輯 夫餘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4輯 論山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1,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5輯 溫陽市·牙山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2,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6輯 唐津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3,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7輯 天安市·天安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5,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8輯 靑陽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5,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9輯 禮山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6,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10輯 舒川郡篇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百濟文化圈域의 孝烈說話研究-湖西地方을 中心으로-』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7, 『百濟文化圈域의 孝烈說話研究-湖南地方을 中心으로-』
-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公州文化遺蹟』
- 서산문화원, 1996, 『瑞山圈域 文化遺蹟』
- 홍성문화원, 1997, 『洪城의 文化遺蹟』
- 서산시, 1998, 『서산시지』
- 연기군·공주대학교 박물관, 1998, 『연기군 충·효·열 유적』
-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瑞山市-』
- 충청남도, 『孝烈行記念施設物誌』 (上·下)

◎ 논문

- 高橋進, 1995, 「孝意識의 歷史的 變遷과 現代에 있어서의 變容」,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高斗行, 1980, 「東國輿地勝覽 ‘孝子·烈女’條의 분석」, 全北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孔德成, 1995, 「孝란 무엇인가」,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

참 고 문 헌

- 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權正顔, 1997, 「原初 儒學의 孝에 관한 考察」,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琴章泰, 1997, 「傳統 社會에서의 孝와 그 社會的 影響」,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金璟鎭, 1977, 「朝鮮王朝實錄에 記載된 孝女·孝婦에 관한 小考」, 『亞細亞女性研究』 16
- 金光淳, 1984, 「孝烈說話의 樣相과 現代的 意味」, 『女性問題研究』 13, 曉星女大
- 金東洙, 1992,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 金龍德, 1964, 「婦女守節考」, 『女性問題研究』 3
- 金鎔貞, 1997, 「現代 科學時代의 孝 論理」,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金容峻, 1995, 「孝와 社會秩序의 確立 : 韓·美 兩國을 中心으로」,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益洙, 1995, 「栗谷의 《同居誠辭》와 實踐的 家庭倫理」,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駿錫, 1981,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東方學志』 55
- 金恒洙, 1981, 「16세기 士林의 性理學理解」, 『韓國史論』 7, 서울대
- 金勳埴, 1985, 「16세기 《二倫行實圖》 보급의 社會史的 考察」, 『歷史學報』 107
- 金勳埴, 1996, 「朝鮮初期 《三綱行實圖》 보급의 대상」, 『仁濟論叢』 12, 仁濟大學校
- 羅國杰, 1995, 「孝思想의 中國의 傳統과 現代社會」,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杜維明, 1995, 「具體화된 사랑으로서의 仁 : 孝思想의 汎倫理的 觀點에 관하여」,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文喆永, 1982, 「麗末 新興士大夫의 新儒學 收容과 그 특징」, 『韓國文化』 3, 서울대
- 朴 珠, 1983, 「朝鮮初期 旌表者에 대한 一考察」, 『史學研究』 37
- 朴 珠, 1984, 「朝鮮肅宗朝의 旌閭에 대한 考察」, 『曉星女大論文集』 29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 朴 珠, 1985, 「朝鮮中宗朝의 旌閭에 대한 考察」, 『邊太燮博士華甲紀念私學論叢』
- 朴 珠, 1989, 「17세기 旌表政策에 대한 研究」, 『國史館論叢』 4, 국사편찬위원회
- 朴 珠, 1991, 「18세기 旌表政策」, 『國史館論叢』 22, 국사편찬위원회
- 朴 珠, 1993, 「임진왜란과 旌表」, 『韓國傳統文化研究』 8, 曉星女子大學校 韓國傳統文化研究所
- 朴 珠, 1994, 「19세기 旌表政策 -순조·헌종·철종대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57, 국사편찬위원회
- 朴 珠, 1997, 「19세기 후반기의 旌表政策 -고종·순종대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52, 대구효성카톨릭대
- 朴 珠, 1998, 「朝鮮時代 孝子에 대한 旌表政策」, 『韓國思想史學』 10, 韓國思想史學會, 서문문화사
- 朴秉濠, 1995, 「孝倫理의 法規範化와 그 繼承」,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朴忠錫, 1997, 「現代 韓國의 社會發展과 孝」,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成圭鐸, 1995, 「現代 韓國人이 認識하는 孝 : 內容分析」,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成中英, 1995, 「仁和 正義의 根源으로서의 孝에 관한 考察」,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孫鳳鎬, 1995, 「孝思想과 正義問題」,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宋 復, 1995, 「孝思想과 社會發展」,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申龜鉉, 1997, 「外來思想의 傳來와 孝思想의 變質」,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申採湜, 1978, 「宋代士大夫의 忠孝意識研究」, 『歷史敎育』 24
- 安炳周, 1997, 「福祉社會의 孝」,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참 고 문 헌

- 楊普景, 1983, 「16~17世紀 邑誌의 編纂背景과 그 性格」, 『地理學』 27호
- 楊普景, 1984, 「忠清道邑誌解題」, 『全國地理誌叢書：忠清道邑誌』, 亞細亞文化社
- 楊普景,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魚寅義, 1995, 「韓國 民法上 父母에 대한 子女의 義務」,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劉權鐘, 1997, 「禮文化와 孝」,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柳承國, 1995, 「孝와 人倫社會」,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柳太洙, 1995, 「儒敎文化圈에 있어서 孝와 經濟發展：韓·日 企業經營의 共通的 性格 모색을 중심으로」,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啓鶴, 1995, 「敎育方法論으로서의 孝」,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楠永, 1995, 「忠孝一致思想의 韓國的 展開와 特徵」,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相珣, 1995, 「孝思想의 本質과 現代社會」,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相泰, 1994, 「조선초기 지리지 편찬의 재검토」, 『芝村金甲周化갑기념 사학논총』
- 李成珪, 1998, 「漢代《孝經》의 普及과 그 理念」, 『韓國思想史學』 10, 韓國思想史學會, 서문문화사
- 李成茂, 1982, 「韓國의 관찬지리지」, 『규장각』 6, 서울대도서관
- 李舜九, 1986, 「朝鮮初期 朱子學의 普及과 女性의 社會的 地位」, 『淸溪史學』 3
- 李完哉, 1983, 「肯定的 側面에서 본 儒敎倫理」, 『韓國人의 倫理觀』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 李完宰·金松姬, 1998, 「조선초기의 儒敎의 國家儀禮에 대한 연구-五禮의 儀禮官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10, 韓國思想史學會, 서문문화사
- 李應百, 1995, 「孝思想의 展開過程」,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泰鎭, 1979, 「16世紀 士林의 歷史的 性格」, 『大東文化研究』 13
- 李泰鎭, 1979, 「東國與地勝覽 편찬의 歷史的 性格」, 『진단학보』 46·47합
- 李孝杰, 1997, 「佛敎와 孝思想」,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李熙德, 1998, 「韓國에 있어서 孝思想의 形成과 그 展開」, 『韓國思想史學』 10, 韓國思想史學會, 서문문화사
- 林尙源, 1995, 「傳統的 價値와 現代의 言論媒體 : 孝의 實踐과 언론매체」,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藏 健, 1998, 「《二十四孝》와 中國傳統孝文化」, 『韓國思想史學』 10, 韓國思想史學會, 서문문화사
- 鄭杜熙, 1976,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1·2)」, 『역사학보』 69·70, 역사학회
- 丁淳佑, 1997, 「儒家의 人性敎育과 孝思想」,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鄭在傑, 1989, 「朝鮮前期 敎化研究-성종·중종(1469-1544)년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鄭昌秀, 1984, 「조선조의 지리지에 나타난 사회설명의 원리-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본 조선조 지식계층의 인식체계의 특질-」, 『한국사회와 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趙 玠, 1998, 「朝鮮朝 孝 認識의 機能과 그 展開」, 『韓國思想史學』 10, 韓國思想史學會, 서문문화사
- 趙南國, 1995, 「孝의 本質과 社會的 適用方案」,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趙南旭, 1997, 「家族生活의 變遷과 孝」,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池敎憲, 1995, 「不孝란 무엇인가?」,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원)
- 陳少峰, 1995, 「孝教育의 儒敎的 方法과 當代社會에서의 適用」,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蔡茂松, 1995, 「孝의 本質과 現代的 意義」,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焦國成, 1995, 「孝와 中國社會」,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根德, 1995, 「孝의 오늘과 내일」,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英辰, 1998, 「朝鮮朝 孝思想의 理論的 基盤 -栗谷의 《聖學輯要》〈孝敬章〉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10, 韓國思想史學會, 서문문화사
- 崔一凡, 1997, 「韓國文化와 孝」, 『儒敎學研究』 1, 儒敎學術院
- 河宇鳳, 1983, 「世宗代의 儒敎倫理 普及에 대하여」, 『全北史學』 7
- 許昌武·兪光浩, 1995, 「孝思想의 現代的 具現을 위한 老人福祉政策의 改革方向」,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洪潤植, 1998, 「佛敎의 孝觀」, 『韓國思想史學』 10, 韓國思想史學會, 서문문화사
- 西川孝雄, 1976, 「李朝旌表者役免除の一研究」,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4
- 平木實, 1976, 「朝鮮王朝初期の旌表敎化政策について」, 『朝鮮學報』 81, 朝鮮學會
- 內藤雋輔, 1986, 「〈朝鮮〉における孝道の實踐とその全開(上)」, 『朝鮮學報』 119・120, 朝鮮學會
- 寬久美子, 1990, 「《烈女傳》の中の女性像」, 『歴史評論』 479
- 야마모토 유카타, 1995, 「孝의 義務와 正義」,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충남의 忠·孝·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 윌리엄 드베리, 1995, 「儒敎的 孝思想에 대한 小考」,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데오도르 담스, 1995, 「經濟·社會 秩序 속에서 바라본 孝思想과 그 實踐」,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맥밀런, 1995, 「忠孝思想과 普遍主義 : 토쿠가와 時代의 思想을 中心으로」,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주디스 바헤무카, 1995, 「社會變動이 孝思想에 미친 影響 : 아프리카의 경우」,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헬미, 1995, 「이집트 孝思想」,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루이스 랭카스터, 1995, 「佛敎에 있어서 孝思想의 役割 : 宗教的 擴散과 適用에 관한 研究」, 『孝思想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추진위원회(*주최 :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집 필 자

임 선 빈 :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장

기본연구 98-07

충남의 忠 · 孝 · 烈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발 행 자 : 황 용 주(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발 행 일 : 1999년 5월 20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7층~18층

전화 : (042)472-1900

팩스 : (042)472-1912

인 쇄 처 : 필성인쇄사 (042)252-168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